

## 목차

표지.....	1
발간사.....	2
목차.....	4
1장.....	5
2장.....	29
3장.....	51
4장.....	73
5장.....	87
6장.....	106
7장.....	136
8장.....	152
9장.....	174

# 한국유교레포트

제9집

-2022년도 한국학계의 유교 연구성과 분석 및 전망-

파주문화원

울곡학 콘텐츠 개발과 국제화 사업단

2023년 12월

## 발간사

유학이 처음 한국에 수용된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전인 것만은 분명하며, 유학이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한국사회를 주도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조선 중기 주자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조선성리학이 정립되고 17세기 이후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주자학이 강력한 통치이념으로 작동되면서 유학사상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7세기부터 160여년에 걸쳐 『주자대전』에 대한 주석 작업이 진행되어 19세기 이항로(李恒老)에 의하여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筭疑輯補)』가 집대성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사상은 치열한 논변을 통하여 발전하였습니다. 16세기의 사단칠정논변, 18세기의 호락논변, 19세기의 심설논변 등 한국성리학 삼대논변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논변의 주역들은 자신의 학설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서오경 등 유교경전과 주자학에 대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재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현대 유학연구자들에게 계승되어 한국학계에는 유학사상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매년 새로운 논문과 저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비판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각 논문과 저서들

은 개별적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몇몇 전공자들에게만 읽힐 뿐, 학계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사업단은 2015년도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유교 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물을 한국어와 중국어 및 영어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본 사업단은 개별 논문과 저서라는 구슬을 꿰어 한국 유학이라는 보배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논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를 계기로 연구자들의 연구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학계와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어 생산적인 논변의 공간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영어판 발간을 계기로 한국 유학의 현주소와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파주문화원 원장 우관제

울곡학 콘텐츠 개발과 국제화 사업단 단장 최영진

## 차례

발간사 .....	5
차례 .....	7

### 제1부 중국유학

제1장 선진 · 한당시기 유학 연구    김경희 .....	11
제2장 송대 유학 연구    박지훈 .....	35
제3장 명대 주자학과 양명학 연구    선병삼 .....	57
제4장 청대 유학 연구    류희성 .....	79
제5장 근현대 중국 유학 연구    류희성 .....	93

### 제2부 한국유학

제6장 한국 성리학 연구    배제성 · 유한성 .....	115
제7장 한국 양명학 연구    선병삼 .....	145
제8장 한국 실학 연구    단운진 .....	161
제9장 한국 근대 유학 연구    이원준 .....	183

제1장

## 선진·한당시기 유학 연구

김경희 ( 조선대학교 )

##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선진 · 한당 시기 관련 유학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22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논문 중에서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은 유학이나 유교에 관련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2022년도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 · 한당 시기의 유학과 관련된 논문은 총 82편으로 확인되었다. 그중에서 박사학위 논문은 10편이고, 일반 논문이 72편이다. 총 편수에서는 2020년도 95편, 2021년도 72편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선진시기가 총 78편, 진한 시기 4편이다. 2020년도에는 선진시기가 87편, 진한 시기 7편, 당나라 시기 1편이었으며, 2021년도에는 선진시기가 65편, 진한 시기 7편이었다. 이전의 두 해와 같이 선진시기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진한 시기의 유학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가 사상을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 사상,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교육, 다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 2. 인물별 분류

전체 82편의 논문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한 논문은 모두 47편

이다. 인물별로 보면, ①공자: 18편, ②맹자: 18편, ③순자: 7편, ④기타 인물: 4편이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와 관련된 논문이 43편이고, 기타 인물은 한대(漢代)의 유가 사상가로서 동중서(董仲舒) · 왕충(王充) · 정현(鄭玄) 등이 관련된 논문은 4편이 있다. 2022년도 인물별 전체 논문의 편수는 47편으로 2020년도 57편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2021년도 50편과는 거의 비슷하다. 2022년도 공자 관련 논문은 2021년도 19편에 비해 18편으로 비슷하고, 맹자 관련 논문도 2021년도에 17편과 비슷한 18편이다. 순자 관련 논문은 2021년도에 7편과 동일하다.

한대(漢代)의 유가 사상에 관한 논문은 2021년도는 7편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4편으로 소폭 줄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2022년도에는 공자 · 맹자 · 순자에 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금년에는 동중서, 왕충, 정현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전년도 연구 대상이었던 양옹 · 왕필 · 하안 · 공영달이 보이지 않아 한대(漢代) 사상에 관한 연구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 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현달	『論語』에 있어서의 '인간다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2	지준호	『논어(論語)』의 덕(德) 개념과 군자(君子)의 인격(人格)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3	지준호	『논어(論語)』의 덕(德)과 실천적 덕(德) 교육	한국철학논집 75	한국철학사연구회
4	조장연 지준호	『논어(論語)』의 덕(德)과 도(道) · 인(仁) · 예(藝)	동방문화와 사상 13	동양학연구소
5	류영하	『논어』 '직(直)'사상을 통해 본 복수의 정당성 연구	한국철학논집 74	한국철학사연구회
6	장준영	『논어(論語)』의 '내러티브' 구조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67	동아시아고대학회
7	김정희	공자의 愼와 인정육구 고찰	동양철학연구 111	동양철학연구회
8	김정희	유가 철학의 인정육구 고찰 - 공자와 순자를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64	인문학연구원
9	윤민향	공자 수양론에서 중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의 이상(理想)과 심신통합적 사유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10	황인지	보편적 복지와 공자의 정치관 - 대동사회론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58	유학연구소
11	이주강	공맹의 즐거움과 음악, 그리고 여민동락	퇴계학논집 31	영남퇴계학연구원
12	박진우	우정의 역설에 빠진 고독한 현자 구하기 - 『논어』가 제시하는 친구 사귀 원칙의 재해석 -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13	김용희	『논어』 속 향원(鄉原)에 대한 이상심리학적 해석 : 내현적 자기에 (covert narcissism)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103	한국동서철학회
14	김희영	『논어』 경문의 제주석(諸註釋)을 통해 본 '군자'에 관한 해석 양상 - 정수덕의 『논어집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61	유학연구소
15	김병준	司馬遷의 비판적 『論語』 읽기와 그 서사 - 一學而篇 '有子曰'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117	대동문화연구원
16	유영옥	『논어』 攻乎異端장 고찰 - 조선 후기 諸說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7	대동문화연구원
17	박성규	주자의 『논어』 일관총서(一貫忠恕) 해설과 옹화미소(拈花微笑) 구도	태동고전연구 49	태동고전연구소
18	권준섭 유현우	孔子的 君子小人之辨에 관한 연구	올곡학연구 49	올곡학회

2022년도의 공자 및 『논어』 관련 논문은 모두 18편이다. 2020년도 24편, 2021년도 19편에 비하면 적은 편수이지만 20편 내외의 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2020년도 1편이 나왔고, 2021년도에 1편도 없었으나, 2022년도에는 1편이 발표되었다.

송현달의 박사논문은 『논어』를 통해 공자가 주장하고 있는 ‘인간다움’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필자는 『논어』에 나타난 개인이 갖추어야 할 ‘인간다움’에 관한 연구를 위해 첫째, ‘인간다움’에 관해 공자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도란 무엇인가?, 둘째, 공자의 군자론은 어떠한 의미와 성격을 지니는가? 셋째, 공자가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완성을 위한 덕목체계 즉, 예·인·의는 어떠한 의미와 특성을 지니면서 상호 일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점을 고찰했다.

일반논문은 모두 17편인데,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준호는 『논어』의 덕과 관련하여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중에 『논어』의 덕과 실천적 덕교육’의 논문에서는 덕의 의미와 구조를 『논어』 원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유덕자(有德者)인 군자의 인격과 관련하여 유학의 실천적 덕목

이 표방하는 의미를 조명했다. 『논어』의 실천적 덕목은 가치체계와도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논어』의 덕이 표방하는 의미와 구조를 탐구하는 것은 현재 도덕과 교육의 원론적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 도덕과 교육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연구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류영하의 논문은 『논어』 ‘직(直)’ 사상을 통하여 ‘복수(復讎)’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필자는 ‘직’을 ‘직관적 충위’와 ‘행위적 충위’로 개념을 나누어보고 『논어』를 바탕으로 유교 복수의 문제를 탐구했다.

장준영의 논문은 ‘내러티브’ 관점에서 『논어』의 언어와 내용을 포함한 구조적 특성들을 고찰했다. 필자는 언어의 미니멀리즘 내러티브, 인물 ‘각화(刻畫)’ 내러티브, 생활 철학 내러티브 이렇게 세 가지 대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 고전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텍스트 『논어』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여 ‘내러티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다소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도이기는 하나 앞으로의 고전 텍스트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나머지 논문들은 『논어』 경학의 측면과 군자에 관한 해석, 정치관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추후 공자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

## 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혜수	맹자의 '권(權)' 개념에 대한 도덕 철학적 분석	양명학 67	한국양명학회
2	김용훈 최영진	'求放心'에서 '心要放'으로 -孟子 '求放心'의 일본적 변용-	울곡학연구 48	울곡학회
3	송윤우	맹자 본성론에서 도덕적 동기와 책임의 문제	철학사상 84	철학사상연구소
4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星湖 李瀾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95	민족어문학회
5	이해임	영조대 『맹자』 경언의 정황과 맹자에 대한 인식 고찰	동양철학 58	한국동양철학회
6	이장희	임록문과 맹자	한국철학논집73	한국철학사연구회
7	김기주	諸子百家에 대한 비판에서 본 맹자의 좌표	동아인문학 61	동아인문학회

8	탁희진	내면 표현을 위한 맹자 지언(知言)의 치유적 모색 - 선택적 함구증을 대상으로 -	인문과학 87	인문학연구원
9	이순미	『맹자』의 의전(義戰)과 무의전(無義戰) 연구	동양철학연구110	동양철학연구회
10	이순미	『맹자』의 리민(利民)과 여민(與民), 독락(獨樂)과 동락(同樂) 연구	동양철학연구109	동양철학연구회
11	안유경	맹자의 기론(氣論)과 율곡 성리학의 연관성 고찰	한국학 45	한국학중앙연구원
12	유민정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修辭學的 經典解釋 - 『孟子古義』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119	대동문화연구원
13	김선희	『맹자』의 부동심 논의에서 도덕성의 신체화와 정약옹의 재해석	다산학 41	다산학술문화재단
14	김 희	『주역』의 형세론에 기초한 맹자와 율곡의 역사인식 연구	율곡학연구 49	율곡학회
15	김백영 이경무	맹자의 성선(性善)과 순자의 위선(僞善)에 대한 다원주의적 통합	동서철학연구106	한국동서철학회
16	정우엽	시비지심의 이성적 성격에 대하여 -지(知)개념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67	중앙철학연구소
17	이진영	『주역』 수지 비괘(水地比卦 ䷇)와 맹자 왕도 정치론의 관련성 연구 -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18	이광혁	『맹자』 민본(民本)사상과 현대적 의의	중국학 81	대한중국학회

2022년도 맹자 및 『맹자』 관련 논문은 모두 18편이다. 2020년과 2021년은 동일하게 17편, 2022년도에는 18편으로 전년과 비슷한 편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박사 논문은 2020년 2편, 2021년에 3편이 발표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박사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김기주의 논문은 맹자가 제자백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했는지를 통해, 그가 전국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를 분석했다. 이 논문은 제자백가에 대한 맹자의 비판을 중심으로 맹자 철학의 좌표를 이해하기 위해 시도한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맹자의 ‘정치’와 관련된 논문은 5편이고, 그중에 이순미의 논문은 『맹자』의 의전(義戰)과 무의전(無義戰)의 의미를 고찰하여 현재 각국의 갈등과 분쟁 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특히 이진영의 논문은 『주역』 수지 비괘(水地比卦 ䷇)와 맹자 왕도 정치론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여 수지 비괘에 제시된 과사와 효사의 의미와 역할을 맹자 왕도 정치론에 나타난 왕-신하-백성의 관계와 비교하여 고찰했다. 필자는 수지

비패와 맹자의 왕도 정치론에 대한 덕치의 관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주역』 비패와 맹자의 왕도정치 사상을 비교하여 기존에 볼 수 없는 독창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3) 순자 관련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덕화	『荀子』 群體論 研究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2	오 빈	순자 교육철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3	배다빈	중국 유학사 속 순자 철학의 변증법적 역할과 특징	철학논총 107	새한철학회
4	배다빈	荀子 인성론과 도덕 기원론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양철학연구 109	동양철학연구회
5	김여진	순자가 이질적인 것을 다루는 방식 - 「成相」 과 「賦」 를 사례로 들어 -	유교사상문화연구 87	한국유교학회
6	이경무	類개념에 대한 荀子の 인식과 활용	동방문화와 사상12	동양학연구소
7	문순표	순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지(知)'의 종의적 사용에 대한 한 해석	공자학 48	한국공자학회

2022년도 순자 및 『순자』 관련 논문은 모두 7편으로, 2020년도 8편, 2021년도 7편과 비슷한 논문의 수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2020년에 1편도 없었으나, 2021년도에는 1편이 발표되었고, 금년에는 박사논문이 2편이나 나와서 향후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김덕화의 박사논문은 『순자』의 철학을 ‘군체(群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했다. 이 논문은 『순자』에 나타나는 여러 단계의 군체를 분석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치적 형태의 군체인 국가와 천하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필자는 『순자』 텍스트의 내용을 토대로 그의 철학이 인간의 생존과 군체의 유지를 목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순자』 텍스트 속에 이와 같은 논증들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군체’를 설정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유가 사상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배다빈의 논문 두 편 중에 「순자 인성론과 도덕 기원론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논문은 유학사 속에서 순자 비판을 둘러싸고 지적된 한 가지 문제, 즉 순자의 성악론과 성인의 도덕 기원론의 모순 관계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도덕 규범의 정당성 여부를 철학적으로 비판·해명하여 밝히고 있다. 문순표의 논문은 순자의 ‘능’과 ‘지’에 대한 중의적 사용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현실태의 범주로 해석하려고 시도를 한 점에서 추후 순자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

####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중희	董仲舒의 『論語』 활용과 그 의미 — 天人三策 분석을 중심으로 —	중국고중세사연구 65	중국고중세사학회
2	조원일	王充의 형신사상 대한 연구	중국학논총 74	한국중국문화학회
3	석미현	『논형』의 천인불감응론(天人不感應論)에 대한 고찰	동양학 89	동양학연구원
4	조혜진	정현(鄭玄) 『箋』의 정변(正變)論 小考 - 『毛傳』 과 비교	중국학 79	대한중국학회

2022년도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4편이다. 2020년 8편, 2021년 7편에 비하면 적은 편수이다. 박사논문은 2020년, 2021년도 각각 1편이 꾸준히 발표되었으나, 금년에는 박사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2020년에는 여러 학자들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공영달, 왕충, 양웅, 환담, 정현, 왕부, 동중서 등 한(漢)·당(唐)의 다양한 사상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21년도에도 공영달, 왕충, 양웅, 정현, 왕필, 하안, 동중서 등 주요한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왕충, 정현, 동중서 등의 관련 연구로 한정되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석미현의 논문은 『논형』의 천인분리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순자의 천인분리론과 구분하여 ‘천인불감응론’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분석했다. 필자는 왕충의 『논형』이 순자의 천인분리론을 계승하면서도 당시에 만연하였던 천인감응론의 허황함을 비판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으며, 이러한 비판적 사유를 잘 드러내 주는 ‘천인불감응론’으로 『논형』의 천인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원일의 논문은 왕충의 형신 관계에 대한 분석과 비유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논문에서 왕충이 형체는 주체가 되고 정신이 종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형신관계의 논증을 형체와 정기 및 지각 삼자의 관계로 보면서 정신은 형체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이라는 자세로 왕충의 형신 사상에 대한 분석과 비유를 중심으로 논의한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경학 사상 7편 ② 철학 49편 ③ 교육 3편 ④ 정치 및 경제 13편 ⑤ 기타 10편이다. 전년도 대비 조사 대상 전체 논문이 72편에서 82편으로 소폭 늘었다. 2022년도 철학사상, 정치 및 경제, 기타 분야는 전년도보다 소폭 늘었고, 경학 사상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교육은 5편에서 3편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학 사상 분야에서는 『논어』 2편, 『맹자』 2편, 『고문상서』 1편, 정현(鄭玄) 『전(箋)』 1편 등이 있다. 경학 분야의 논문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출토문헌 관련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2022년도 철학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주역』 관련 박사논문이 2편이고 일반논문은 11편이나 발표되었다. 전년도에 이어 꾸준히 역학 분야에 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선진 유가의 의리지변(義利之辨)과 군자관에 관한 박사 논문이 각각 1편이 발표되어 앞으로 선진시기 철학사상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연구 분야에서는 유가 예악사상의 도덕 교육과 순자 교육철학에 관한 박사 논문이 2편이나 발표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금년도 정치 분야 연구에서 『서경』, 『주역』, 『춘추』, 『공양전』 등의 정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이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희영	『논어』 경문의 제주석(諸註釋)을 통해 본 '군자'에 관한 해석 양상 - 정수덕의 『논어집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61	유학연구소
2	유영옥	『논어』 攻乎異端장 고찰 - 조선 후기 諸說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7	대동문화연구원
3	변은미	懸念을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 李翼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95	민족어문학회
4	유민정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修辭學的 經典解釋 - 《孟子古義》를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119	대동문화연구원
5	조혜진	정현(鄭玄) 『箋』의 정변(正變)論 小考 - 『毛傳』 과 비교 -	중국학 79	대한중국학회
6	원용준	곽점초간 오행(五行) 을 통해 본 고대 유가 사상의 전개 양상	유교사상문화연구 90	한국유교학회
7	민혜영	石泉 申緯의 『古文尙書』 에 대한 견해 연구	南冥學研究 75	경남문화연구원

2022년도 경학사상 분야의 연구는 7편으로, 2020년 16편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2021년도 8편과는 비슷한 논문의 수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도에 『논어』, 『맹자』, 『주역』, 『서경』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경학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연구의 내용도 더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진행되었으나, 금년에는 『논어』, 『맹자』, 정현(鄭玄) 『전(箋)』의 발표로 한정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유영옥의 논문은 공호이단(攻乎異端)장에 관련된 고주(古註)와 신주(新註) 및 조선 후기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 ‘공(攻)’ 과 ‘이(己)’ 의 해석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그와 연계하여 공자가 당시에 지목한 이단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고찰했다. 「위정」편 16장은 ‘공(攻)’ 과 ‘이(己)’ 자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혹은 ‘이단’ 을 무엇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반론없는 명쾌한 해석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선유(先儒)들의 여러 견해를 통해 부사도(扶斯道) 벽이단(闢異端)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여 상세히 분석한 점에서 이 논문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용준의 논문은 1993년 출토된 곽점초간 오행을 중심 텍스트로 삼고, 1973년 출토된 마왕퇴 백서 오행을 보조 텍스트로 삼아 전국시대 중기에서

전한 초기에 이르는 시기의 유가사상의 전개 양상의 일면을 탐구했다. 필자는 작년에 마왕퇴백서 『주역』을 현행본 『주역』 및 기타 문헌 자료들과 비교·고찰하였고, 금년에는 괘점초간 오행(五行)을 통해 본 고대 유가사상의 전개 양상을 분석한 점에서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 발전될 것이 기대된다.

민혜영의 논문은 석천(石泉) 신작(申綽)의 『서차고(書次故)』 중 『고문상서』에 대한 의견을 드러낸 『상서이십오편』을 주요 연구 텍스트로 삼아, 그의 문집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분석함으로써, 『고문상서』 25편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자세히 고찰했다. 『논어』, 『맹자』, 『고문상서』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경학연구가 축적되어 심도 있는 분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정석	『주역』 덕(德) 사상과 삼진구덕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이희영	『주역(周易)』의 시중(時中) 리더십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3	김연수	中國哲學의 義利之辨에 관한 연구 - 儒家의 義利之辨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4	장 양	중국 고대 君子觀의 형성과 변화 연구 - 先秦 시기 학파별 관점과 시대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5	송현달	『論語』에 있어서의 '인간다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6	김덕화	『荀子』 群體論 研究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7	신정원	『주역(周易)』 점서(占筮)에 대한 원시 점술 문화적 고찰	태동고전연구 49	태동고전연구소
8	황병기	『주역』의 종교성이 갖는 현대적 의미 - 다산역학의 종교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112	동양철학연구회
9	고운숙	'따름[隨, 從]'을 통한 관계 맺기에 관하여 - 『주역』 수괘(隨卦)를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74)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정석현	『주역』에 있어서 음양의 특징과 그 구분	대동철학 100	대동철학회
11	김연재	『易緯』의 太易元氣觀과 取象運數의 선형주의적 세계관	철학논총 109	새한철학회
12	김연재	우한의 서사에서 본 『주역』의 역도와 성인사관 - 서사주의의 역사콘텐츠 -	동방학 46	동양고전연구소
13	이난희	『주역』괘법에 대한 고찰: 중(中)개념과 연관하여	人文學研究 38	인문학연구소
14	유병현 임병학	『繫辭上』 제8장과 言 行의 易哲學의 의미	인문학연구 61	인문과학연구소



15	김 희	『주역』의 형세론에 기초한 맹자와 율곡의 역사인식 연구	율곡학연구 49	율곡학회
16	이난숙	역학평가의 준거, 성인사도인 辭變象占 연구	율곡학연구 50	율곡학회
17	박구선 최정준	음양의 대립과 통일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 -역과 사물의 상관성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	동양문화연구 36	동양문화연구원
18	손태호	초기 유가의 자유지향경향성에 관한 시론(試論)	동양철학연구 112	동양철학연구회
19	임병식	『예기』에 나타난 생사관 특성 고찰	철학사상 84	철학사상연구소
20	지준호	“사서(四書)”의 용례를 통해 본 대덕(大德)의 구조와 의미	온지논총 73	온지학회
21	임종진	四書에서 絜와 明의 사용 양상	철학논총 109	새한철학회
22	임현규	四書의 심성론적 연구	온지논총 71	온지학회
23	장상량	위료옹(魏了翁)의 춘추학(春秋學) 사상 특징에 관한 고찰 - 『춘추좌전오의(春秋左傳要義)』를 중심으로 -	인문연구 101	인문과학연구소
24	김정희	공자의 愬와 인정유구 고찰	동양철학연구 111	동양철학연구회
25	윤민향	공자 수양론에서 중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의 이상(理想)과 심신통합적 사유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26	지준호	『논어(論語)』의 덕(德) 개념과 군자(君子)의 인격(人格)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27	지준호	『논어(論語)』의 덕(德)과 실천적 덕(德)교육	한국철학논집 75	한국철학사연구회
28	조장연 지준호	『논어(論語)』의 덕(德)과 도(道)·인(仁)·예(藝)	동방문화와 사상 13	동양학연구소
29	이주강	공맹의 즐거움과 음악, 그리고 여민동락	퇴계학논집 31	영남퇴계학연구원
30	김병준	司馬遷의 비판적 『論語』 읽기와 그 서사 - 學而篇 ‘有子曰’의 사례 -	대동문화연구 117	대동문화연구원
31	류영하	『논어』 ‘직(直)’ 사상을 통해 본 복수의 정당성 연구	한국철학논집 74	한국철학사연구회
32	박성규	주자의 『논어』 일관충서(一貫忠恕) 해설과 염화미소(拈花微笑) 구도	태동고전연구 49	태동고전연구소
33	권준섭 유흔우	孔자의 君子小人之辨에 관한 연구	율곡학연구 49	율곡학회
34	김혜수	맹자의 ‘권(權)’ 개념에 대한 도덕 철학적 분석	양명학 67	한국양명학회
35	송윤우	맹자 본성론에서 도덕적 동기와 책임의 문제	철학사상 84	철학사상연구소
36	이장희	임눅문과 맹자	한국철학논집 73	한국철학사연구회
37	정우엽	시비지침의 이성적 성격에 대하여 - 지(知)개념을 중심으로 -	철학탐구 67	중앙철학연구소
38	김기주	諸子百家에 대한 비판에서 본 孟子의 좌표	동아인문학 61	동아인문학회
39	안유경	맹자의 기론(氣論)과 율곡 성리학의 연관성 고찰	한국학 45	한국학중앙연구원
40	김선희	『맹자』의 부동심 논의에서 도덕성의 신체화와 정약옹의 재해석	다산학 41	다산학술문화재단
41	김 희	『주역』의 형세론에 기초한 맹자와 율곡의 역사인식 연구	율곡학연구 49	율곡학회
42	김백녕	맹자의 성선(性善)과 순자의 위선(僞善)에 대한	동서철학연구 106	한국동서철학회

	이경무	다원주의적 통합		
43	이경무	類개념에 대한 荀子の 인식과 활용	동방문화와 사상 12	동양학연구소
44	배다빈	중국 유학사 속 순자 철학의 변증법적 역할과 특징	철학논총 107	새한철학회
45	배다빈	荀子 인성론과 도덕 기원론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양철학연구 109	동양철학연구회
46	김여진	순자가 이질적인 것을 다루는 방식 - 「成相」과 「賦」를 사례로 들어 -	유교사상문화연구 87	한국유교학회
47	김종희	董仲舒의 『論語』 활용과 그 의미 - 天人三策 분석을 중심으로 -	중국고중세사연구 65	중국고중세사학회
48	조원일	王充의 형신사상 대한 연구	중국학논총 74	한국중국문화학회
49	석미현	『논형』의 천인불감응론(天人不感應論)에 대한 고찰	동양학 89	동양학연구원

2022년도 철학연구 분야는 모두 49편이다. 2020년도 46편, 2021년도 41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0년도에는 『주역』 관련 논문이 6편, 2021년도 10편, 2022년에도 13편이나 많은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철학사상 분야의 박사논문이 6편인데 『주역』 관련 논문이 2편, 일반논문은 11편이 나와서 향후 『주역』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나머지 논문은 공자 · 맹자 · 순자와 관련된 논문 등과 동중서 · 왕충의 유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포함되어, 논의의 내용이 전년에 비교해 확대된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희영의 박사논문에서는 『주역』이 함축하고 있는 심오하고도 핵심적인 지혜인 시중(時中)을 리더십 측면에서 고찰했다. 이 논문은 『주역』의 시중을 리더십 측면에서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나 정합성을 입증함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시중 리더십 측면에서 다루는 연구에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논문 중에서 김연재의 논문은 패효사의 내용을 서사주의의 역사 콘텐츠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패효사의 내용에 담긴 성인의 역사적 기억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성인이 인식과 실천의 지속 가능한 과정에서 살아가는 역사적 서사의 이야기를 연구했다. 필자는 『주역』의 역사적 서사의 이야기

속에서 성인 정신의 경계를 이해하고 자아실현의 이정표를 밝히고 있다.

임헌규의 논문은 “ ‘사서(四書)’ 란 문명사적으로 볼 때, 어떤 성격의 책이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때, 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 하나의 제안을 했다. 필자는 “ ‘사서’ 란 인간에 근본을 두고, 금수와 구별되는 인간의 본성을 정립하여, 인간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인문사회를 구현할 방도를 제안한 체계이며, 따라서 ‘사서’ 란 심성론(인성론)으로 접근할 때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 라는 점을 제시했다. 임병식의 논문은 『예기』에 나타난 생사관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매개로 삶과 죽음에 대한 유학의 근본적인 세계관과 견해를 살펴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의 현재적 삶의 자세와 태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하가영	儒家 禮樂思想의 도덕교육적 의미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오 빈	순자교육철학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3	임병학	『周易』 蠱卦의 인문적 해석과 교육적 의미	용봉인문논총 61	인문학연구소

2022년 교육 분야의 연구는 3편으로, 2020년 7편, 2021년도 5편 보다는 소폭 줄었다. 2021년도에는 순자 악론(樂論)의 교육적 함의, 공자와 목자 사상의 도덕교육, 『맹자』의 교육관, 동중서(董仲舒)의 교육사상을 다룬 논문들이었다. 금년에는 유가 예악사상의 도덕 교육과 순자 교육철학에 관한 박사논문 2편과 『주역』과 관련된 논문들이다.

하가영의 박사논문은 거시적인 문화 발전의 차원에서 예악 문화의 맥락을 고찰하고 그것을 통해 미시적 관점에서 공자의 예악 교육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공자가 예(禮)와 악(樂)을 결합시켜 시행한 자연도덕정감의 교육은 예술의 형식을 통해 순수한 도덕적 정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며, 자연도덕행위의 교육은 인(仁)을 기반으로 하여 서(恕), 신(信)의 방식을 통해 행실을 수양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오빈의 박사논문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순자의 교육철학에 접근하여 모색했다. 첫째, 의리(義理)의 측면이다. 둘째, 교화(敎化)의 측면이다. 셋째, 비판적 측면이다. 넷째, 가치의 측면이다. 이 논문은 교육철학을 접점으로 하여 순자와 그의 사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여, 현재 학계의 연구에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참고적 가치를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다.

#### 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홍 린	현대 한국인의 “예의(禮儀)” 인식과 선진시기 예(禮)의 정치적 함의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2	강강현	조선시대 경연에서 『서경』 「우공」 편 강독의 의미	孔子學 48	한국공자학회
3	김성실	유교 고대 성왕론에 대한 재해석	퇴계학논집 31	영남퇴계학연구원
4	이경구	정조의 『춘추』 이해와 정치적 활용	태동고전연구48	태동고전연구소
5	이승률	아누스의 얼굴을 지닌 최초의 유가 - 마왕퇴백서 『주역』 「목화」 편의 정치철학 -	철학연구 163	대한철학회
6	황인지	보편적 복지와 공자의 정치관 - 대동사회론을 중심으로 In -	유학연구 58	유학연구소
7	이진영	『주역』 수지 비괘(水地比卦 比)와 맹자 왕도 정치론의 관련성 연구 -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 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8	이광혁	『맹자』 민본(民本)사상과 현대적 의미	중국학 81	대한중국학회
9	이순미	『맹자』 의 의전(義戰)과 무의전(無義戰) 연구	동양철학연구 110	동양철학연구회
10	이순미	『맹자』 의 리민(利民)과 여민(與民), 독락(獨樂)과 동락(同樂) 연구	동양철학연구 109	동양철학연구회
11	이해임	영조대 『맹자』 경연의 정황과 맹자에 대한 인식 고찰	동양철학 58	한국동양철학회
12	정희철	고대 유가(儒家)의 형정론(刑政論)에서 ‘수치심(恥)’의 의미	유학연구 59	유학연구소
13	김동민	『공양전(公羊傳)』 화이관(華夷觀)의 이중적 구조와 그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87	한국유교학회

2022년도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연구는 모두 13편으로, 2020년도의 17편, 2021년도 12편과 비슷한 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2022년도에도 경제 분야가 1편도 없어 균형을 맞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

김동민의 논문은 화이관에 포함된 두 가지 입장, 즉 대일통을 위해 이적

을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적을 배척의 대상으로 삼는 양이(攘夷)도 화이관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방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이론 구조를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공양전』 화이관의 독창적인 성격과 그 특징을 밝힌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평가한다.

이승률의 논문에서는 ‘종도(從道)이면서 ‘종군(從君)’이라는 『주역』 「목화」 편의 야누스적인 특징을 ‘정치의 요체’, ‘정치의 주체’, ‘군신관계’ 라는 관점에서 살피고, 유가 내부에서 이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순자 정치철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목화」 편이 유가 정치철학과 다른 특징은 무엇이고 독창적인 주장은 무엇인지, 그런 특징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 5) 기타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경애	『周易』 과 自己治癒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2	니종석	유가의 인(仁) 개념과 돌봄의 자유관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3	윤석민	주역의 효체와 효위에 대한 新釋 - 이동성과 부동성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 58	한국동양철학회
4	장준영	『논어(論語)』 의 ‘내러티브’ 구조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67	동아시아고대학회
5	문순표	순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지(知)’의 중의적 사용에 대한 한 해석 -	孔子學 48	한국공자학회
6	김용희	『논어』 속 향원(嚮原)에 대한 이상심리학적 해석 - 내현적자기애(covert narcissism)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3	한국동서철학회
7	박진우	우정의 역설에 빠진 고독한 현자 구하기 - 『논어』 가 제시하는 친구 사귄 원칙의 재해석 -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8	김용훈 최영진	‘求放心’에서 ‘心要放’으로 - 孟子 ‘求放心’의 일본적 변용	을곡학연구 48	을곡학회
9	탁희진	내면 표현을 위한 맹자 지언(知言)의 치유적 모색 - 선택적 함구증을 대상으로	인문과학 87	인문학연구원
10	최승현	『주역』 철학사상과 양자역학 철학적개념의 유사성 고찰 - 『주역』 철학사상의 과학성 傍證 -	동아인문학 59	동아인문학회

2022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10편으로, 2020년도 9편, 2021년도 6편보다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박사논문 1편이 발표되어 주목할 만하다.

박경애의 박사논문은 『주역』이 지닌 자기치유적 의미를 고찰했다. 필자는 『주역』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자기치유에 적용하고, 쾌효사와 자기치유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주역』의 자기 치유적 의의를 탐구했다. 기존 『주역』의 치유적 의의에 관한 연구는 ‘우환의식’과 ‘『주역』의 인간관’과의 관계에서 도출하는 단면적 연구였으나, 이 논문은 『주역』과 자기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구체적으로 쾌사와 효사의 예를 다양하게 분석했다.

나중석의 논문은 유가의 인(仁) 이론이 돌봄의 자유론이자 돌봄의 자유주의로 재해석될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이 논문은 돌봄의 관점에서 재해석된 유학적인 인(仁) 이론이 새로운 형태의 자유론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논문으로 유교 경전 연구의 외연 확장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기록된 82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중한 소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의 업적이며 동시에 한국 학술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논문 2편을 선별하여 그 논문에 대한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박사논문 중에서 이정석의 논문은 『주역』 덕 사상과 삼진구덕괘(三陳九德卦)를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 『주역』에서 말하는 자기완성, 즉 덕을 닦고 함양함으로써 인간 자신의 존재 원리를 구현하는 데 이르는 논리와 구조, 방법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주역』 덕 사상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삼진구덕괘라고 보고, 그것이 우환의식(憂患意識)을 바탕으로 한 덕을 이루는 ‘성덕체계(成德體系)’임을 논증하고, 나아가 『주역』의 ‘덕을 완성하는 방법론[成德論]’을 탐구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성덕론은 모두 3단계인데, 진덕론(進德論)은 덕의 기본적 자질을 쌓는 단계에 대한 논의로, 예절과 겸손, 그리고 반본(反本)의 괘인 이괘(履卦), 겸괘(謙卦) 및 복괘(復卦)를 다루었다. 육덕론(育德論)은 기초적인 덕성을 바탕으로 계속하여 덕을 닦고 확충하는 단계에 관하여, 항괘(恒卦), 손괘(損卦), 익괘(益卦)의 덕목과 성질, 쓰임 등을 검토했다. 덕을 완성하는 데 유효한 괘인 곤괘(困卦), 정괘(井卦), 손괘(巽卦)는 참된 덕을 변별하고, 작위(作爲)하지 않고도 덕화(德化)하며, 만사에 시중(時中)할 수 있는 덕성을 지녔으므로 성덕의 관건이 되는 괘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주역』의 덕 사상은 “천지의 덕을 본받아 성덕(盛德)을 이루고, 천지와 그 덕을 합하여 만물 화육에 동참하는 것”이며, ‘생명 제일’인 『주역』의 덕 사상을 통해, 개인의 자아 완성과 더불어 사회와 국가, 나아가 우주 만물이 함께 ‘생생(生生)’하는 공동체 건설이 인류의 이상이 되어야 함을 고찰했다.

필자도 지적한 이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주역』의 ‘덕’에 대해 그 정초 과정과 연원을 밝히고, 삼진구덕괘의 구조와 의미 분석을 통해서 『주역』 덕 사상의 전모를 살폈으나, 『주역』의 수양론(修養論) 전반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구덕괘에 대한 이해도 문면(文面) 분석에만 그쳤을 뿐, 심층 분석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감이 있다.

둘째, 본 논문은 시기적으로 선진(先秦)시대에 한정된 논의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덕’의 개념은 그 뒤 계속 확장 심화하였고, 현재에도 널리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 공간적으로도 다루고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당초에 『주역』의 덕으로 범위를 한정하긴 했으나, 덕 윤리 논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주역』의 덕 사상을 응용,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치유하고, 인류 장애

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로 삼을 보편윤리의 수립이 긴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지금, ‘생명철학’ 으로서의 『주역』 덕 사상이 기여할 공간이 분명 있을 법하다. “생명 중심적 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아실현의 방향을 자연 만물의 존재적 일체감에서 찾는 근본 생태주의의 관점” 에서 보더라도, 『주역』 덕 사상의 역할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주역』 수양론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한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데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일반 논문은 김혜수의 「맹자의 ‘권(權)’ 개념에 대한 도덕 철학적 분석」이다. 이 논문은 맹자의 도덕철학에서 ‘권(權)’ 개념이 제기된 배경과 그 맥락을 통해 기존의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권’의 도덕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맹자의 ‘권’을 일반적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의 상법(常法)으로서 ‘예(禮)’ 또는 ‘경(經)’과 대비되고, 특수적 상황에서 임기응변할 수 있는 변칙적인 편법의 수단 및 방법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행위 결정의 도구적(수단적) 가치로 여겼다. 하지만 필자는 맹자의 도덕 이론과 ‘권’ 개념이 언급된 배경 및 그 맥락을 파악하면, ‘권’ 개념은 그 자체로 도덕적 마음이 항상 그 당면한 상황에 부합하게 발휘된 도덕의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도(道)’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필자는 도덕 실천 주체인 마음이 자기의 도덕 명령에 따라 자발적이면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도덕 자율성을 갖추면서 현실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 및 대처하는 수단적 가치로서 도덕 행위의 규칙을 창조해낸다고 이해했다. 아울러 필자는 맹자의 ‘권’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일반인의 도덕적 판단 및 행위 결정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도덕 인격자에게 갖추어진 도덕 실현의 능력이라고 파악했다. 일반인은 ‘도’의 정신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서 ‘권’을 자신과 집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적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권’의 본질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도덕 인격자, 즉 성인이야말로 진정한 본질적 가치의 ‘권’을 실현할 수 있는데, 도덕적 딜레마와 같은 특수 또는 특정 상황에서도 도덕적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고 그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성인의 도덕 실현 능력인 ‘권’의 작동이라고 제시했다.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권’ 개념의 본질적 가치 및 그 실현 의미라는 소제목에서 맹자의 ‘수닉원지이수(嫂溺援之以手)’라는 언급은 두 부분에 방점을 둘 수 있는데, 하나는 ‘수닉(嫂溺)’이고, 다른 하나는 ‘원지이수(援之以手)’라고 언급했다. 전자는 ‘권’의 본질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후자는 ‘권’의 도구적 가치 또는 수단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맹자는 전자, ‘수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맹자의 도덕 이론, 이른바 성선설(性善說)과 직접 연계되는 부분으로, ‘유자입정(孺子入井)’ 고사의 상황과 같은 맥락이다. 필자는 사람이면 누구나 ‘불인인지심’을 갖춘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맹자가 제시한 ‘권’은 수단과 방법을 위한 도구적 가치가 아닌 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필자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그 특수한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 또는 대처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으로써 ‘권’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으며, ‘권’의 논리는 사용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자체로 도덕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맹자가 제시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은 『맹자』 「공손추상」 ‘유자입정(孺子入井)’과 「양혜왕상」 ‘곡속장(穀棘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인인지심’은 나와 이해관계가 없지만, 생명이 손상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는 선협적인 도덕심이다. 그러므로 주희는 “불인지심이 곧 측은지심이다.”라고 규정했다. 필자는 『맹자』 「공손추상」 17장에서 형수가 물에 빠진 ‘수닉(嫂溺)’의 상황 역시 ‘유자입정(孺子入井)’의 상황과 똑같다는 점을 제시하고, ‘수닉(嫂溺)’에 초점을 두고 ‘권’의 본질적 가치라고 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어가는 형수는 당연히 손을 내밀어 구해야 하지만 이 경우 불가피하게 ‘남녀수수불친’이라는 상례(常禮)를 범하게 되는 것과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모두 깜짝 놀라 측은지심을 갖게 되는 상황과 과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맹자는 남녀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이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구제하는 것은 권(權)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맹자는 물에 빠진 형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권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천하를 구제할 정당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도가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필자가 ‘권’ 개념은 그 자체로 도덕적 마음이 항상 그 당면한 상황에 부합하게 발휘된 도덕의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도(道)’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제시한 점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논문은 맹자의 ‘권’ 개념에 관한 연구 성과를 통하여,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향후 한대의 유학자들이 제시했던 ‘경’에는 반하지만 ‘도’에 합치한다는 ‘반경합도(反經合道)’의 ‘권’과 정이가 주장했던 ‘권’은 단지 ‘경’일 뿐이라는 ‘권지시경(權只是經)’, 그리고 주희의 ‘권’에 대한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 성과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맹자 ‘권’ 개념의 도덕 철학적 의미를 분석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5. 평가와 전망

2022년도의 선진시대부터 한당 시대까지 국내의 유학 및 유교 관련 논문 편수는 모두 82편이다. 2020년도 95편, 2021년도 72편과 비교해보면 2020년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년도 보다는 소폭 늘었다. 시대별로는 전체 82편 중 선진시기가 총 78편, 진한시기 4편이다.

2022년도의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전체 논문의 수가 82편으로 전년도 보다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자와 맹자 관련 논문 그리고 철학 분야, 정치 분야, 기타 분야가 소폭 늘어 중진 학자들은 물론 신진 역할과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선진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 순자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물별 연구 특징은 2022년에는 공자에 관한 연구가 18편으로 꾸준히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18편 중 1편이 박사 논문이지만, 일반 논문은 공자의 도덕철학, ‘직(直)’ 사상을 통해 본 복수의 정당성, ‘내러티브’ 관점에서 『논어』 등을 다루고 있어서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맹자 관련 논문은 2022년도 18편으로 2021년도 17편과 비슷한 편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박사 논문이 3편이 발표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박사 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일반 논문의 내용은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대한 비판에서 본 맹자의 좌표와 맹자의 ‘정치’와 관련된 논문 5편이 발표되었다. 순자에 관한 연구가 2022년에 7편으로 전년도 7편과 동일하다. 2021년에는 박사 논문이 1편 발표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2편이 발표되어 향후 순자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일반논문의 내용은 순자 인성론과 도덕 기원론, 순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지(知)’에 관한 해석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비록 적은 편수이지만, 동중서, 왕충, 정현의 한대 유학사상가들의 연구 등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당시기 연구 분야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2022년도 철학사상, 정치 및 경제, 기타 분야는 전년도보다 소폭 늘었고, 경학 사상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교육은 소폭 줄어들었다. 2022년도 주목할 점은 『주역』 관련 박사 논문이 총 3편이고 일반논문이 16편이나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제도 『주역』의 괘효나 수양론, 우환의 서사, 정치, 『주역』과 자기치유를 분석한 연구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철학연구 분야는 모두 49편으로 전년도에 비교하면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주역』 관련 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공자 · 맹자 · 순자와 관련된 논문 등과 동중서 · 왕충의 유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포함되어, 논의의 내용이 전년에 비교해 확대된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교육 연구 분야에서는 순자 교육철학에 관한 박사 논문이 2편이나 발표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금년도 정치 분야 연구에서 『서경』, 『주역』, 『춘추』, 『공양전』 등의 정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이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선진 유학의 경전 등과 인공지능의 접목을 통하여 융복합적 지식 축적과 내외 조화의 인격 형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확장되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학 사상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2장

## 송대 유학 연구

박지훈(서영대학교)

##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 한국유교 레포트-한국 학계의 유교연구 성과 분석 및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 송대 유학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22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석사·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국내 석·박사논문,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 후보지를 살펴본 결과 2022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원대(元代) 유학 관련 논문 1편을 포함하여 총 50편이다. 2019년 21편, 20년 10편, 21년 43편과 비교했을 때 편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전에 없던 진단, 양만리, 유자휘, 위료용에 관한 논문이 새롭게 나왔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다. 북송시대 유학자인 소옹(강절, 1011-1077), 주돈이(염계, 1017-1073), 장재(횡거, 1020-1077), 정호(명도, 1032-1085), 정이(이천, 1033-1107), 소식(동파, 1036-1101), 소철(난성, 1039-1112), 사랑좌(상채, 1050-1103), 남송시대 유학자인 유자휘(병산, 1101-1147), 호굉(오봉, 1105-1161), 양만리(성재, 1124-1206), 주희(회암, 1130-1200), 육구연(상산, 1139-1192), 진량(용천, 1143-1194), 위료용(학산, 1178-1237), 오징(초로, 1249-1333)에 관한 논문 등 총 16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과 어떠한 특정 인물에도 속하지 않는 논문을 기타로 설정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논문이 복수의 인물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된 목록을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여 1)경학, 2)이기론, 3)심성론, 4)수양론, 5)인식론, 6)비교, 7)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논문이 복수의 주제와 관

런된 경우에도 관련된 목록을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분석·비평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았다.

##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는 총 50편의 논문 중 경전과 개념을 주제로 한 논문 2편을 제외한 48편으로 일반논문 39편과 학위논문 11편이다. 따라서 48편의 논문을 소옹,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 소식, 소철, 사랑좌, 유자휘, 호굉, 양만리, 주희, 육구연, 진량, 위룡용, 오징 등 16명의 송대 유학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북송의 소옹 1편, 주돈이 5편, 장재 2편, 정호 2편, 정이 1편, 소식 1편, 소철 1편, 사랑좌 1편의 논문이 있으며 남송의 유자휘 1편, 호굉 1편, 양만리 2편, 주희 28편, 육구연 1편, 진량 1편, 위룡용 1편이 있고, 원대의 오징 1편의 논문이 있다. 그 중 주돈이에 관한 논문 3편, 정호와 정이에 관한 논문 1편과 주희에 관한 논문 4편은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리고 사랑좌에 관한 논문 1편과 주희에 관한 논문 1편, 진량에 관한 논문 1편은 석사학위 논문이다.

### 1) 소옹(강절, 1011-1077)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미숙	邵雍《皇極經世》의 體用論的 數理體系와 陰陽論的 解析	동아인문학 제60집	동아인문학회

소옹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소옹 철학을 ‘체용일원’의 관점에서, 수리(數理)에 근거한 ‘체’와 ‘용’은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 실제적 작용 관계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이전 소옹에 관한 논문은 2019년



일반논문1편이 발표되었고 2020년에는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2021년에 석사논문 1편이 발표되었다.

## 2) 주돈이(염계, 1017-1073)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王晚霞	周敦颐《太极图》道教解探析	울곡학연구 제50집	(사)울곡학회
2	최정목	주돈이의 세계와 인간 이해	유학연구 제59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이천수	주렴계 사상의 연구 - 「太極圖說」을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익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4	피재우	周敦頤의 修養論에 관한 研究	학위논문(박사)	대구: 대구한의대 학교 일반대학원
5	송 미	주돈이 이학(理學)사상이 아동 심미교육에 미친 영향 연구	학위논문(박사)	서울: 동방문화 대학원대학교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모두 5편으로 일반논문 2편과 박사 학위논문 3편으로 「태극도」, 주돈이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 수양론, 이학 사상과 아동 심미 교육의 연관성 등에 관한 논문이다. 이전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2019년 일반논문 1편이 발표되었고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4편이 발표되었다.

## 3) 장재(횡거, 1020-1077)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종원	장재 지식론의 특징과 그 모호성 — 건문지와 덕성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제110 집	동양철학연구회
2	황종원	장재의 도가 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 및 그 생태 철학적 의미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장재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2편으로 주 내용은 각각 장재 지식론의 특징과 장재의 도가 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핵심 내용을 천도론, 인성론, 수양론의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이전 장재에 관한 논문은 2019년에 1편 발표되었고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1년에 2편 발표되었다.

#### 4) 정호(명도, 1032-1085)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광민	인간 본성과 교육: 마리땡과 정호(程顥)	도덕교육연구 제34권 2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	김수길	이정의 경설과 도학체계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호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2편으로 한 편은 본성과 교육과의 관계를 마리땡과 정호의 이론으로 설명한 논문이고, 다른 한 편은 정호와 정이의 경설(敬說)에 관한 논문이다. 이전 정호에 관한 논문은 2019년에 일반논문 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 5) 정이(이천, 1033-1107)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수길	이정의 경설과 도학체계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이에 관한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1편으로 정호와 정이의 경설에 관한 논문이다. 이전 정이에 관한 논문은 2019년 일반논문 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2021년에 2편이 발표되었다.

#### 6) 소식(동파, 1036-1101)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진종원	소식·소철과 호상학 사이의 본성론에 관한 유사성 검토	퇴계학보 제152집	퇴계학연구원

소식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소식, 소철로 대표되는 축학(蜀學)과 호굉(胡宏)으로 대표되는 호상학(湖湘學) 사이의 본성론에 대한 유사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전 소식에 관한 논문은 2019년에는 발표되지 않았고 2020년에 소식의 인성론에 관한 논문 1편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에도 1편이 발표되었다.

### 7) 소철(난성, 1039-1112)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진종원	소식·소철과 호상학 사이의 본성론에 관한 유사성 검토	퇴계학보 제152집	퇴계학연구원

소철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소식, 소철로 대표되는 촉학(蜀學)과 호굉(胡宏)으로 대표되는 호상학(湖湘學) 사이의 본성론에 대한 유사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전 소철에 관한 논문은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 8) 사랑좌(상채, 1050-1103)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지현	사랑좌(謝良佐)의 본체론과 수양론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안동: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랑좌에 관한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1편으로 『상채어록(上蔡語錄)』을 중심으로 사랑좌의 본체론, 심성론, 수양론 등의 철학적 구조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논문이다. 이전 사랑좌에 관한 논문은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 9) 유자휘(병산, 1101-1147)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원석	유자휘에게 끼친 대혜 종고의 영향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유자휘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대혜 종고의 유자휘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철학사상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분석하였다. 이전 유자휘에 관한 논문은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 10) 호굉(오봉, 1105-1161)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형석	호굉 철학의 경학 기초 - 『지언』의 춘추학과 역학-	유학연구 제61집	충남대학교 유학 연구소

호굉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호굉 철학 체계가 가학(家學)인 춘추학의 성취를 포괄하며 「건괘」 「단전」의 4가지 명제로 통합, 귀결되고 있음을 제시하여 기존의 심성론 위주의 호굉 철학연구와 다르게 서술하였다. 이전 호굉에 관한 논문은 2019년에 1편 발표되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 11) 양만리(성재, 1124-1206)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연재	楊萬里的 義理易學과 明易達史의 방법론 - 역사콘텐츠적 접근	공자학 제48호	한국공자학회
2	정소영	성인사관에서 본 양만리의 사사역학(史事易學)과 역사의식의 세계	유학연구 제60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양만리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2편으로 한편은 역학의 응용 분야에서 역사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양만리의 의리 역학과 사사 역학의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한편은 양만리의 역사의식의 세계를 성인 사관으로 서술하였다. 이전 양만리에 관한 논문은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 12) 주희(회암, 1130-1200)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나운	리인(利仁)과 안인(安仁) - 윤리적 태도와 이념에 관한 주자의 인식전환 고찰 -	동방학 제47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	김나운	주자 도덕론에서 意와 誠의 함축 - 知와 意의 상보를 통한 도덕실천의 완성 -	양명학 제65호	한국양명학회
3	김나운	주자학의 意 개념에 관한 윤리학적 연구 - 도덕실천을 위한 동력의 탐색 -	학위논문(박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4	김동현	朱子易學의 先代易學 受容樣相 研究 - 朱子易學의 先代易學 受容樣相 研究 -	학위논문(박사)	대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5	김정각	『太極圖說』의 宇宙論과 朱熹 理本體論의 관계	동양철학 제58집	한국동양철학회
6	김중용	지논과 주희의 윤리사상 비교와 현대적 의의	학위논문(박사)	서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7	김철호	주희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악론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제90집	한국유교학회
8	박길수	주희의 몸과 체인 이론	양명학 제66호	한국양명학회
9	박성규	주자의 『논어』 일관충서(一貫忠恕) 해설과 염화미소(拈花微笑) 구도	태동고전연구 제49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0	방현주	주희 철학에 있어 사단 부중절 문제에 대한 小考	중국학보 제99집	한국중국학회
11	서강휘	『중용장구』 20장 해석에 대한 비교 고찰 - 주희와 왕부지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 제58집	한국동양철학회
12	서근식	『중용』의 귀신론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 주희, 왕부지, 이토 진사이, 정약용을 중심으로 -	우계학보 제43호	(재)우계문화재단
13	손미애	주희의 미발이발설 연구 - 인심도심과 중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전주: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14	승봉구	주희와 손병희의 심상·수양론 비교연구	동양문화연구 제36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5	왕소유	朱熹 理本論의 서어관 적용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제56호	한국동양예술학회
16	유 영	주자학 심성론과 예학의 관계 고찰 I - 심의 주재작용과 분화의 측면에서의 예학 회귀 사조 발생원인 분석 -	퇴계학보 제151집	퇴계학 연구원
17	유현주	朱熹의 『太極圖說』해설의 관점으로 본 21세기 생명가치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109집	동양철학연구회
18	이석원	朱熹 생태미학에 관한 연구(석사)	학위논문(석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19	이연정	주희 수양체계 고찰 - 치중화(致中和)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20	이연정	주자학의 순자적 음영陰影 - 수양공부 방법을 중심으로 -	중국학논총 제73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1	이종우	주희와 왕수인의 미발과 靜의 관계 및 그 공부설 비교	퇴계학논총 제40집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2	이종우	주희의 미발의 부중과 이발의 부중절	울곡학연주 제47집	(사)울곡연구원
23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 및 그것에 관한 호락학자들의 논쟁	열상고전연구 제76집	열상고전연구회
24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의 미발과 정(靜)의 관계 및 그 공부	온지논총 제73집	온지논총
25	임병식	주희 사생관의 인문적 함의 고찰	동양철학 제57집	한국동양철학회
26	정상봉	주희가 본 육구연 심학과 선(禪)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27	진종원	주희의 격의불교 이해 - 승조, 소식, 호상학의	태동고전연구 제	한림대학교 태

		'동중정(動中靜)'을 중심으로-	49집	동고전연구소
28	한지운	주자(朱子) 「대학장구」 「격물보전장」 학문 체계의 근거에 대한 교육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제35권 제4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주희에 관한 논문은 모두 28편으로 일반논문 23편, 박사학위논문 4편과 석사학위논문 1편이다. 2022년 발표된 송대 유학관련 전체논문 중 56%를 차지하고 있다. 논문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등 주제도 다양하다. 특히 주희와 서양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와의 선악론 비교와 朱熹의 「太極圖說」 해설의 관점으로 본 21세기 생명 가치 연구는 매우 새롭다. 이전 주희에 관한 논문은 매년 다른 인물들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9년에는 21편 중 8편을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10편 중 7편을 차지하였으며 2021년에는 43편 중 22편을 차지하였다.

### 13) 육구연(상산, 1139-1192)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진무	『육조단경』 과 육왕(陸王) 심학(心學)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불경인 『육조단경』 과 육구연의 심학(心學)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전 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2019년 1편이 발표되었고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2021년에는 1편이 발표되었다.

### 14) 진량(용천, 1143-1194)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인태	陳亮 정치철학의 실용주의적 성격 - 군주론을 중심으로 -	학위논문(석사)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진량에 관한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1편으로 진량의 군주론을 가지고 그의 정치철학의 실용주의적 성격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전 진량에 관한 논문

은 2019년과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고 2021년에는 1편이 발표되었다.

### 15) 위료옹(자호, 1141-1226)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장상량	위료옹(魏了翁)의 춘추학(春秋學) 사상 특징에 관한 고찰 - 춘추좌전요의(春秋左傳要義)를 중심으로 -	인문연구 제101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위료옹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위료옹의 저서 『춘추좌전요의』를 가지고 그의 춘추학 사상의 특징을 고찰한 논문이다. 이전 위료옹에 관한 논문은 국내에서 1편도 발표되지 않았고 2022년 처음 발표 되었다.

### 16) 오징(초로, 1249-1333)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홍 린	오징(吳澄) 도통관과 존덕성 공부론의 정주학적 특성	대동철학 제98집	대동철학회

오징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오징의 도통관과 존덕성 공부론이 정주이학의 주경공부론과 도통론의 특징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힌 논문이다. 이전의 오징에 관한 논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편도 없었으나 2021년에 2편이 발표되었다.

### 17)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제균	『대학연의(大學衍義)』 체제의 특징 - 이강령(二綱領)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제 88집	동양고전학회
2	신창호 린자바오 예철해	유교의 성현기상(聖賢氣象)에 드러난 교육적 의미 - 근사록(近思錄)의 인물명을 중심으로 -	종교교육학연구 제70집	한국종교교육학회

기타 논문은 2편으로 주로 송대의 저서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한 논문들이다. 한편은 『대학연의』 체제에 관한 논문이고, 다른 한편은 『근사록』

의 인물평을 가지고 유교의 성현기상(聖賢氣象)에 드러난 교육적 의미를 고찰한 논문이다.

###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총 50편의 논문 중 기타 11편을 제외한 39편으로 일반논문 30편과 9편의 학위논문이 있다. 따라서 39편의 논문을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등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각 주제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 10편, 이기론 4편, 심성론 5편, 수양론 19편, 인식론 1편, 비교 6편이다.

#### 1) 경학(10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현	朱子易學의 先代易學 受容樣相 研究	학위논문(박사)	대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2	김연재	楊萬里的 義理易學과 明易達史의 방법론 - 역사콘텐츠적 접근 -	공자학 제48호	한국공자학회
3	박성규	주자의 『논어』 일관총서(一貫忠恕) 해설과 염화미소(拈花微笑) 구도	태동고전연구 제 49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박제균	『대학연의(大學衍義)』 체제의 특징 - 이강령(二綱領)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제 88집	동양고전학회
5	서강휘	『중용장구』 20장 해석에 대한 비교 고찰 - 주희와 왕부지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 제58집	한국동양철학회
6	서근식	『중용』의 귀신론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 주희, 왕부지, 이토 진사이, 정약옹을 중심으로-	우계학보 제43호	(재)우계문화재단(등재후보)
7	임형석	호굉 철학의 경학 기초 - 『지언』의 춘추학과역학-	유학연구 제6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장상량	위료옹(魏了翁)의 춘추학(春秋學) 사상 특징에 관한 고찰 - 『춘추좌전오의(春秋左傳要義)』를 중심으로 -	인문연구 제101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9	정소영	성인사관에서 본 양반리의 사사역학(史事易學) 과 역사인식의 세계	유학연구 제60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한지윤	주자(朱子) 「대학장구」 「격물보전장」 학문체 계의 근거에 대한 교육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제35권 제4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경학에 관한 논문은 주로 『주역』, 『춘추』, 『대학』, 『중용』, 『논



어』 등을 연구한 논문으로 『주역』 4편, 『춘추』 2편, 『대학』 2편, 『중용』 2편, 『논어』 1편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주역』 관련 논문이 4편으로 가장 많고 『춘추』, 『대학』, 『중용』 관련 논문이 각각 2편으로 그 뒤를 따른다. 이전에 발표된 경학 관련 논문은 2019년 3편, 2020년 3편, 2021년 11편이 있다.

### 2) 이기론(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정각	『太極圖說』의 宇宙論과 朱熹 理本體論의 관계	동양철학 제58집	한국동양철학회
2	박지현	시량좌(謝良佐)의 본체론과 수양론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3	이천수	주렴계 사상의 연구 - 『太極圖說』 을 중심으로 -	학위논문(박사)	익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4	최미숙	邵雍 <皇極經世>의 體用論的 數理體系와 陰陽論的 解析	동아인문학 제60집	동아인문학회

이기론에 관한 논문은 주로 음양, 태극, 이기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이전에 발표된 이기론 관련 논문은 2019년 4편, 2020년 1편, 2021년 4편이 있다.

### 3) 심성론(5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나운	주자학의 意 개념에 관한 윤리학적 연구 - 도덕실천을 위한 동력의 탐색 -	학위논문(박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2	손미애	주희 미발이발설 연구 - 인심도심과 중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	학위논문(박사)	전주: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3	송봉구	주희와 손병희의 심성·수양론 비교연구	동양문화연구 제36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4	유영	주자학 심성론과 예학의 관계 고찰 I - 심의 주재작용과 분화의 측면에서의 예학 회귀 사조 발생원인 분석 -	퇴계학보 제151집	퇴계학연구원
5	진종원	소식·소철과 호상학 사이의 본성론에 관한 유사성 검토	퇴계학보 제152집	퇴계학연구원

심성론에 관한 논문은 심성론(心性論), 인심도심(人心道心), 의(意), 성(性)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심성(心性) 2편, 심(心) 1편, 의(意) 1편, 성(性)

1편이 발표되었다. 이전에 발표된 심성론 관련 논문은 2019년 3편, 2020년 3편, 2021년 7편이 있다.

#### 4) 수양론(19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나운	리인(禮仁)과 안인(安仁) - 윤리적 태도와 이념에 관한 주자의 인식전환 고찰 -	동방학 제47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	김나운	주자 도덕론에서 意와 誠의 함축 - 知와 意의 상보를 통한 도덕실천의 완성 -	양명학 제65호	한국양명학회
3	김나운	주자학의 意 개념에 관한 윤리학적 연구 - 도덕실천을 위한 동력의 탐색 -	학위논문(박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4	김수길	이정의 경설(敬說)과 도학체계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5	김진무	『육조단경』 과 육왕(陸王) 심학(心學)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6	박길수	주희의 몸과 체인 이론	양명학 제66호	한국양명학회
7	박지연	시량좌(謝良佐)의 본체론과 수양론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안동: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8	방현주	주희 철학에 있어 사단 부중절 문제에 대한 小考	중국학보 제99집	한국중국학회
9	송 미	주돈이 이학(理學)사상이 아동 심미교육에 미친 영향 연구	학위논문(박사)	서울: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10	송봉구	주희와 손병희의 심성-수양론 비교연구	동양문화연구 제 36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1	이연정	주자학의 순자적 음영陰影 - 수양공부 방법을 중심으로 -	중국학논총 제73집	한국중국문화학회
12	이연정	주희 수양체계 고찰 - 치중화(致中和)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13	이종우	주희와 왕수인의 미발과 靜의 관계 및 그 공부설 비교	퇴계학논총 제40집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4	이종우	주희의 미발의 부중과 이발의 부중절	을곡학연구 제47집	(사)을곡연구원
15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 및 그것에 관한 호락학자들의 논쟁	열상고전연구 제 76집	열상고전연구회
16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의 미발과 靜(靜)의 관계 및 그 공부	온지논총 제73집	온지학회
17	정상봉	주희가 본 육구연 심학과 선(禪)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18	피재우	周敦頤의 修養論에 관한 研究	학위논문(박사)	경산: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19	홍린	오징(吳澄) 도통관과 존덕성 공부론의 정주학적 특성	대동철학 제98집	대동철학회

수양론에 관한 논문은 수양·수양론, 심학(心學), 존덕성(尊德性), 미발 공부, 경(敬)공부, 체인(體仁), 중화(中和) 도덕실천, 교육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수양·수양론 6편, 심학 2편, 존덕성 1편, 미발 공부 4편, 경공부 1편, 중화 2편, 도덕실천 3편, 교육 1편이 발표되었다. 그중 수양·수양론 관련 논문이 6편으로 가장 많고 미발 공부 관련 논문이 4편으로 그 뒤를 따른다. 이전에 발표된 수양론 관련 논문은 2019년 3편, 2020년 2편, 2021년 10편이 있다.

### 5) 인식론(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종원	장재 지식론의 특징과 그 모호성 — 견문지와 덕성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제 110집	동양철학연구회

인식론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견문지(見聞知)와 덕성지(德性知)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 지식론의 특징과 그것이 정주리학에 일으킨 여파를 밝히려고 연구한 논문이다. 이전에 발표된 인식론 관련 논문은 2019년 3편, 2021년 1편이 있다.

### 6) 비교(6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광민	인간 본성과 교육: 마리땡과 정호(程顥)	도덕교육연구 제 34권 2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	김종용	지논과 주희의 윤리사상 비교와 현대적 의의	학위논문(박사)	서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3	김철호	주희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악론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제90집	한국유교학회
4	서강휘	『중용장구』 20장 해석에 대한 비교 고찰 — 주희와 왕부지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 제58집	한국동양철학회
5	서근식	중용의 귀신론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 주희, 왕부지, 이토 진사이, 정약옹을 중심으로 —	우계학보 제53호	(재)우계문화재단(등재후보)
6	송봉구	주희와 손병희의 심성·수양론 비교연구	동양문화연구 제 36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비교에 관한 논문은 모두 6편으로 모두 인물과 인물의 사상을 비교하고 있다. 동양 사상가와 서양 사상가의 비교가 2편, 승려와의 비교가 1편, 한·중·일 사상가의 비교가 1편, 경전주석의 비교가 1편, 중세 사상가와 근대사상가의 비교가 1편이다. 그중 동양 사상가와 서양 사상가의 비교가 2편으로 가장 많다. 이전에 발표된 비교 관련 논문은 2019년과 2020년에는 1편도 없었으며 2021년 8편이 있다.

### 7) 기타(1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인태	陳亮 정치철학의 실용주의적 성격 : 군주론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2	신창호 린자바오 예철해	유교의 성현기상(聖賢氣象)에 드러난 교육적 의미 : 근사록(近思錄)의 인물평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70집	한국종교교육학회
3	왕소유	朱熹 理本論의 서예관 적용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제56호	한국동양예술학회
4	王曉霞	周敦頤《太極圖》道敎解探析	울곡학연구 제50집	(사)울곡학회
5	유현주	朱熹의 「太極圖說」 해설의 관점으로 본 21세기 생명가치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109집	동양철학연구회
6	이석원	朱熹 생태미학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7	이원석	유자휘에게 끼친 대혜 종교의 영향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8	임병식	주희 사생관의 인륜적 함의 고찰	동양철학 제57집	한국동양철학회
9	진종원	주희의 격의불교 이해 -승조, 소식, 호상학의 '동중정(動中靜)'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제49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0	최정묵	주돈이의 세계와 인간 이해	유학연구 제59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1	황종원	장재의 도가 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 및 그 생태 철학적 의미	한국철학논집 제7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위에 제시한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등 여섯 가지 주제에 포함되지 않은 논문을 기타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이전에 발표된 기타 논문은 2019년 5편, 2020년 1편, 2021년 8편이 있다.

##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2022년에는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총 50편이 발표되었다. 그중 김나운의 「주자 도덕론에서 意와 誠意의 함축 - 知와 意의 상보를 통한 도덕실천의 완성 -」 과 이종우의 「주희의 미발의 부중과 이발의 부중절」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 1) 김나운의 「주자 도덕론에서 意와 誠意의 함축 - 知와 意의 상보를 통한 도덕실천의 완성 -」

이 논문은 주자학의 현대적 연구 과정에서 몇몇 학자들은 知(知)를 강조하는 주자의 이론 체계가 도덕실천을 이끄는 동력에 관하여 선명한 설명을 보여줄 수 없고, 또 그 이론 체계 내에서는 주체 내부의 도덕의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검토하고, 심(心)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작용과 기능 가운데 특히 ‘심이 발한 것(心之所發)’으로서의 의(意)개념에 주목하여 의(意)와 지(知)의 관계 및 ‘성의(誠意)’의 공부론을 재검토함으로써 주자의 도덕실천론에서 의(意) 개념이 동력으로서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에서는 도덕실천동력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는 주자의 이론 체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성적 인식’ 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행위에 이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주자학의 知(知)에 해당하는 심(心)의 작용 이외에도 실천과 관련된 작용인 의(意)가 있어 知(知)과 함께 인간의 도덕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의(意)는 의념(意念)이 아니라 실천과 관계를 맺는 동력인 ‘의지’ 이고 이것은 이성과 감정의 작용을 바탕으로 합목적적이고 장기적인 행위를 추동하도록 하는 또 다른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의’ 의 ‘의지’ 라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제3장에서는 주자에게서의 의(意)는 심의 작용으로서 활동성을 지니는 동시에 또 다른 기능인 지(知)의 능력에 더해 실천력을 부여하여 인간의 굳건한 도덕적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구체적인 역할은 바로 인간의 행위, 특히 도덕실천으로의 이행을 추동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의(意)’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계교상량(計較商量)이고 다른 하나는 호오(好惡)에 대한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意)’가 항상 도덕적 완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제4장에서는 성의(誠意)라는 공부론을 가지고 도덕적 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성의(誠意)공부에 대해 “성의(誠意)하면 ‘아름다운 모습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듯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게 된다.’ 고 하였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도덕실천 문제에서 동력을 해명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모습과 악취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고 의욕해 나가게 하는 것이 성의(誠意) 공부의 내용이다. …… 즉 마음의 본래적 능력인 의(意)를 본성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성의(誠意)이다.” 라고 하면서 성의(誠意)가 “의(意)와 리(理)의 합일이고, 곧 심여리일(心與理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주자의 도덕론의 체계가 “절대적 도덕성인 리(理)와 주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성립된 도덕실천론의 한 형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을 통해 주자학의 도덕론은 지(知)와 의(意)가 상보(相補)하여 리(理)를 실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논지가 명확하고 원문의 인용과 해석이 정확하다. 특히 주자의 ‘의(意)’와 ‘성의(誠意)’ 개념에 대해 기존과 다르게 접근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종삼(牟宗三)이 제기했던 “정주계열이 초월적인 리(理)와 후천적인 심(心)의 대립 구도 하에서 리(理)를 경험의 대상으로 삼아, 심(心)이 리(理)를 인지하고 리가 심을 초월적으로 이끄는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타율 도덕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 주자의 이론이 진정한 도덕 행위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동력을 설명할 수 없다.” 라는 평가에 대해 합당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보인다.

## 2) 이종우의 「주희의 미발의 부중과 이발의 부중절」

이 논문은 주희가 미발(未發)시의 중(中) 뿐만 아니라 부중(不中)도 있고, 이발(已發)시에도 중절(中節) 뿐만 아니라 부중절(不中節)도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아, 이것이 『중용』에 미발의 중과 이발의 중절에 대한 확장이라면서 주희의 “미발의 부중”과 “이발의 부중절”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제2장과 제3장에 잘 드러난다. 먼저 제2장인 “미발시 부중”의 서술 내용이다. 첫째, “미발”과 “중”에 대해 주자의 글을 인용하여 “중”은 불편불의(不偏不倚)하고 과불급(過不及)이며 “미발”은 정(靜)이고 지각불매(知覺未昧)와 사려미맹(思慮未萌)이다. 둘째, 주희의 미발시의 중(中) 뿐만 아니라 기질(氣質)의 어둡고 탁함으로 인해 미발시의 부중(不中)이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중용』에서 미발(未發)의 중(中)의 확장이며, 이러한 주희의 미발시 부중은 『중용』 1장의 미발시의 중을 주석한 이후에 쓴 글로서 그것을 보완한 것이다. 셋째, 미발시 부중의 상태에서의 공부는 존양(存養)과 계신공구(戒愼恐懼)인데 이러한 미발시 공부를 통하여 중인(衆人)도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바꿀 수 있고, 이 때문에 미발시에도 혼탁하지 않게 되고 편(偏)을 정(正)으로 바꿀 수 있다. 넷째, 부중은 『맹자』에서 미발에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라 활쓰기에도 해당되는 용어이기도 한 것으로 보아 활을 쏘서 가운데 맞히지 못한 부중(不中)을 인간의 마음에 적용한다면 이발에 해당되고 이발의 부중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필자는 미발시에도 부중이 있는데, 이는 기질의 탁함으로 인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음은 제3장인 “이발시 부중절”의 서술 내용이다. 첫째, 이발시의 중절과 부중절에 대해 주희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발현되어 중절한 것은 선(善)이고 부중절한 것은 악(惡)이며 중절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올바름[正]을 얻은 것으로 화(和)이고 부중절은 부정(不正)이므로 불화(不和)이다.”라는 글을 인용하고 있다. 둘째, 주희가 부중절의 이발을 말한 것은 『중용』에서 중절의 이발을 확장 시킨 것이다. 셋째, 이발시의 중절은 시중이고, 이러한 시중(時中)은 하나의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며, 희노애락이 균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넷째, 시중(時中)은 맹자에 나오는 권도(權道)과 같다. 다섯째, 사단(四端)에는 중절과 부중절이 있다. 여섯째, 미발시의 공부

인 존양(存養)과 이발시의 공부인 성찰(省察)은 모두 “경(敬)” 공부를 통해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聖人)은 미발시 중이기 때문에 이발시에도 중절이 되지만 중인(衆人)은 미발시에 중(中)뿐만 아니라 부중(不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발시에 화(和)가 되기도 하고 부중절이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주희의 미발시의 부중과 이발시의 부중절에 대하여 자세히 논했으며 더 나아가 미발시의 중과 부중을 성인·중인과 연결하여 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술된 논문의 내용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보인다. 첫째, 논문의 제목과 각 장의 제목이 다르다. 논문의 제목은 “주희의 미발의 부중과 이발의 부중절” 인데 2장과 3장의 제목은 각각 “미발시 부중” 과 “이발시 부중절” 로 되어 있다. 둘째, 필자는 위 논문에서 “미발의 부중”, “미발시의 부중”, 혹은 “부중의 미발” 을 같은 의미로 판단하여 혼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미발시의 부중” 혹은 “미발시 부중” 이다. 여기에서 “부중의 미발” 은 잘못된 표현이다. “미발” 이란 아직 마음이 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마음이 아직 발하지 않았는데 “부중” 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미발” 의 상태에서는 “중” 인지 “부중” 인지 알 수 없고 “이발(已發)” 의 상태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필자는 주희의 “측은(惻隱)과 수오(羞惡)는 중절과 부중절이 있다. 측은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측은해하고, 수오하지 말아야 하는데 수오하면 부중절하다.” 라는 말에 대해 “사단(四端)이라고 해서 ‘중절’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단(四端)이라고 해서 반드시 순전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중절(中節)은 선(善)이고 부중절(不中節)은 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사단(四端)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의 단서가 되는 네 가지 마음이다. 주자학에서 사단(四端)은 순선(純善)하고 칠정(七情)은 유선유악(有善有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사단(四端)이 정(情)으로 드러날 때, 어떤 때는 선(善)이 되고 어떤 때는 악(惡)이 된다. 즉, 사단을 유선유악(有善有惡)으로 파악한 것은 주희의 사단(四端說)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넷째, 필자는 본 논문에서 많은 주희의 말을 들어 자신의 논지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인용한 원문 중 원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맥락과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주희가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그 예로 주자의 “미발시 스스로 하는 공부를 얻지 못한다[若未發時, 自著不得工夫].”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성인이 미발시에 이미 공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래의 내용은 “미발시에는 본래 공부를 붙일 곳이 없다. 미발시에는 요순에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까지 모두 한가지이다[若未發時, 自著不得工夫. 未發之時, 自堯舜至於塗人, 一也].” 라는 것이다.

##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22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세 편의 주요논문을 소개하고 정리하였다. 2022년 발표된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학위논문 11편을 포함하여 총 50편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표된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2019년 21편, 2020년 10편, 2021년 43편으로 논문 편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첫째, 인물별 분류에서는 총 50편의 논문 중 어떤 인물에도 속하지 않은 논문 2편을 제외한 48편의 논문을 소옹,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 소식, 소철, 사랑좌, 유자휘, 호굉, 양만리, 주희, 육구연, 진량, 위룡용, 오징 등 16명의 송대 유학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북송의 소옹 1편, 주돈이 5편, 장재 2편, 정호 2편, 정이 1편, 소식 1편, 소철 1편, 사랑좌 1편의 논문이 있으며 남송의 유자휘 1편, 호굉 1편, 양만리 2편, 주희 28편, 육구연 1편, 진량 1편, 위룡용 1편이 있고, 원대의 오징 1편의 논문이 있다. 그 중 주돈이에 관한 논문 3편, 정호와 정이에 관한 논문 1편과 주희에 관한 논문 4편은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리고 사랑좌에 관한 논문 1편과 주희에 관한 논문 1편, 진량에 관한 논문 1편은 석사학위 논문이다. 이전과 다름없이 주희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2년도의 아주 고무적

인 일은 이전에 비교적 연구가 적었던 사랑좌, 유자위, 양만리, 진량, 위료용 등과 같은 인물들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주제별 분류에서는 총 50편의 논문을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기타 등 7가지의 주제로 정리하였다. 많은 논문이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웠고, 또한 주제별로 중복 되는 부분도 많아 특정 범주로 분류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는 논문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주제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 10편, 이기론 4편, 심성론 5편, 수양론 19편, 인식론 1편, 비교 6편, 기타 11편이다. 위에서 제시한 논문 편수를 보면 수양론의 논문이 가장 많고 이기론과 인식론의 논문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주제별 분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경학 3편, 이기론 4편, 심성론 3편, 수양론 3편, 인식론 3편, 기타 5편으로 비교 관련 논문이 없었으며, 2020년에는 발표된 논문 편수가 10편으로 경학 3편, 이기론 1편, 심성론 3편, 수양론 2편, 기타 1편이며 인식론과 비교 논문은 없었다. 2021년 발표된 논문 편수는 43편으로 경학 11편, 이기론 4편, 심성론 7편, 수양론 10편, 인식론 1편, 비교 8편이며 경학과 수양론의 논문이 많다. 2021년도와 비교해 보니 2022년의 논문 중에 수양론 관련 논문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셋째,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에서는 김나윤과 이종우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50편이 발표되었다. 2019년 21편, 2020년 10편, 2021년 43편과 비교하면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고무적인 일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송대 학자들의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인물에 관한 연구 성과가 더욱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3장

## 명대 주자학과 양명학 연구

선병삼(승실대학교)

## 1. 머리말

본 내용은 2022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명대 주자학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해당 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관 학회(연구소)의 논문(KCI)을 중심으로 삼았다.

한국연구재단 수록 논문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 26종, 유교학 4종, 인문학 4종, 중국어와문학 1종이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명대 주자학양명학> 주제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7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주제별로 구분하여 논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논문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겠다.

## 2. 주제별 분류

### 1) 양명학(양명후학) 관련 논문(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재목	마음 체화의 장으로서 ‘몸’ - 왕양명의 ‘신심지학(身心之學)’ 이론을 중심으로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2	박성호	왕양명의 양지와 정산의 공적영지 개념 비교 - 마음공부의 주체와 방법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김세정	왕수인의 양지철학과 함석헌의 씨알사상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이상훈	왕문 태주철학의 의미와 성격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최재목의 「마음 체화의 장으로서 ‘몸’ - 왕양명의 ‘신심지학(身心之學)’ 이론을 중심으로-」는 서론에서 체화된 인지와 관련된 최근의 업적들을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서양의 전통 철학과 초창기 인지과학에서

는 몸의 역할을 간과한 채 몸이란 뇌의 주변장치 정도로 이해했었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 이를 반대하며 몸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몸을 마음 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입장은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몸의 인지과학』을 통해 한국 학계에 널리 알려졌다.

최근 정제두 양명 심학을 신체관, 의학적 심 등으로 풀어가는 논문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게다가 정제두 학설의 중심으로 평가되는 생리(生理)는 그 신체적인 요소가 많아 상당히 매력적인 접합점을 보인다.

이제 최재목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양명은 ‘신심(身心)’ 이라 하여 ‘몸과 마음’ 을 분리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을 합체하여 그냥 ‘뉘’ 이라는 한 글자로 축약 표현해도 될듯하다. 몸-마음으로 하는 ‘뉘[身心]의 학문’ 을 양명은 ‘신심지학’ 이라 규정한 것이다. ……왕양명이 말하는 ‘몸’ 이란 ‘마음이 체화된 것’ 이고, ‘마음’ 이란 ‘몸의 자각점’ 이다. 다시 말해서 ‘몸’ 은 ‘마음의 형체=형식=물리화 또는 운용성=표현’ 이었다. 그리고 ‘마음’ 이란 ‘몸의 자각점=탁월한 인지 활동 또는 주재성=중심’ 이었다. ……몸은 이러한 개체성과 초월성의 원한 구조 속에서 각각 향상성을 유지한다. 그것은 몸의 개별-초월의 모듈을 운영하는 주체인 ‘영명(靈明) = 양지’ 에 의한 것이다. 양지는 개체성의 중심을 만드는 동시에 세계와 하나를 이루는 가운데 또 다른 중심을 만드는 원리이자 힘이다. 양지는 이 두 중심을 넘나든다. 몸은 이런 마음을 체화해 있는 것이다.”

새로운 표현을 잘 만들어내는 논자의 능력을 본 논문에서도 발휘하고 있다. 다만 논의는 새로울 것이 없다.

박성호의 「왕양명의 양지와 정산의 공적영지 개념 비교-마음공부의 주체와 방법을 중심으로 -」는 양명학과 원불교를 비교한 논문이다. 정산(鼎山, 1900-1962)은 원불교(圓佛敎)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小太山 朴重彬, 1891-1943)의 수제자로 소태산을 보필하여 원불교의 교리를 제정하고 기반을 닦는 데 공헌을 했다. 소태산 사망 후에는 2대 종법사가 되었다. 여담으로 송실대 고 안병욱 교수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가장 아름다운 얼굴'에서

정산을 두고 한 말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본 한국인의 얼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익산 원불교 총부에서 본 송정산 선생의 얼굴이었다.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닳고 닳았으면 지혜와 자비로움이 넘치는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에 감동했다.”

박성호 이야기를 들어보자. “본 논문은 왕양명(王陽明)의 양지(良知)개념과 정산(鼎山)의 공적영지(空寂靈知) 개념을 마음공부의 주체와 방법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이를 통해 두 개념 간의 내재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음공부의 관점에서 보면 양지와 공적영지는 모두 마음공부의 주체로서 그 텅 빈 가운데 영명한 감응의 작용을 따라 갖가지 의념과 분별을 나타나게 하는 동시에 그 의념의 선악과 분별의 시비를 판단하고 취사선택하게 하게 한다. 한편 마음공부의 방법에서 있어서도 사욕과 무명은 양지와 공적영지의 본체를 가려서 왜곡된 인식을 야기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외경에 끌리거나 사욕에 가리지 않게 함으로써 본연을 회복하여 그 작용의 온전함을 담보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김세정의 「왕수인의 양지철학과 함석헌의 씨알 사상」은 양지와 함석헌의 씨알 사상을 비교한 글이다. “필자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성 속에서 유기철학을 중심으로 생명 살림의 길을 모색해 왔다. 특히 왕수인(王守仁, 호는 陽明, 1472 ~ 1528)의 철학사상 속에서 유기체적 세계관, 생태론적 세계관, 돌봄과 공생의 길 등을 모색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탐구의 연장선상에서 탐색의 범위를 함석헌(咸錫憲, 1901 ~ 1989)의 ‘씨알사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왕수인이 비록 백성들을 삶과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였지만, 역사적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백성들은 삶과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지 못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석헌을 기다려야만 했다. ……씨알이 주체가 되어 씨알들이 서로 손잡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간 사회의 경쟁과 갈등과 소외와 지배의 문제, 그리고 자연과 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탈과 양지에 근거한 돌봄과 공생의 생명 살림의 길, 그것이 왕수인과 함석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한다.”

이상훈은 매년 양명후학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그의 「왕문 태주철학의 의미와 성격」 또한 연속선상의 논문이다. 태주철학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당시 양명후학 중에서 현학의 위치를 접하기도 했거니와 양명학에서 근대적 맹아를 발견하고자 했던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학파가 바로 태주학파이다.

이상훈은 이렇게 말한다. “태주학자들은 당시의 유학적 관점을 뛰어넘어 각 개체의 주체성과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욕망을 긍정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존재가 하나(만물일체)로서 동등함을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평등의 이상사회를 구현하려고 하였다. ……이들 태주학자들은 현성양지와 영명한 양지심체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리고 백성일용과 만물일체, 평등, 욕망 및 이상사회 등의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실험방법을 논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태주학자들은 기존의 교조적인 유학이 지녔던 형식적인 요소를 벗어나서 보다 자유로운 유학정신과 세계관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태주학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유교가 지배하던 당시의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고, 그 결과 그들의 주장은 그저 맹목적인 자유나 공허한 주체의식의 고양 정도로 치부되거나, 광기(狂氣), 의욕(意欲), 재기(才氣) 등의 발산으로 간주되어 그 가치가 폄하되거나 혹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정적현실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논리 정도로 평가되고 말았다.”

이상훈의 글은 기존에 나온 많은 연구 성과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 2) 양명학의 실천 관련 논문(5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민호	양명심학 관점에서 바라본 리더십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김민호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치양지의 생(生)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3	한정길	양명학에서 제시하는 쟁탈 해법과 지도자의 덕목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4	조지선	한국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왕양명 철학의 고통 감정 이해와 공감교육 방법 모색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5	김세정	유교의 양지주체, 그리고 타자와 한 몸 짜기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2년도에는 양명학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 별도로 정리한다. 사실 명대에 양명학이 현학(顯學)으로 올라서는데 강학활동을 통한 대중화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다. 양명학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적용 활용하는 접근법은 하등 특별할 것이 없다.

김민호의 「양명심학 관점에서 바라본 리더십」은 양명학을 리더십 분야로 응용한 글이다. 사실 리더십을 논하자면 굳이 양명학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기치인을 표방한 유학은 그 자체가 훌륭한 리더십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명학을 선택한 저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김민호는 이렇게 말한다. “기존 리더십 연구에서 비롯된 다양한 리더십 개념의 공통 본질을 토대로 양명심학 근거를 확인한 결과, ‘리더와 구성원 간 상호 작용’ 측면에서는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 관계가 쌍방적 친(親)의 관계이고, 리더십의 대상이 애물(愛物)까지 확장되며, 리더와 구성원을 일체(一體)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정으로서의 속성’ 측면에서는 리더십은 리더로서의 자기완성이자 치양지로서 사상마련(事上磨鍊)을 통해 길러가는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공동의 목표’ 측면에서는 천지만물 일체의 자각으로 시작되는 ‘생명성의 부여’와 유기체적 대동사회라는 ‘완전한 생명의 구현’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화에의 대응’ 측면에서는 리더의 임무는 변화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양지에 비추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는 것이며, 양지가 변화에 있어 시비판단의 준칙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양명심학 관점에서의 리더십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구성원을 한 몸(一體)처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어서 김민호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치양지의 생(生)」 논문에서 사회갈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주제를 다룬다.

치양지의 생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인지 그의 말을 들어보자. “본 연구는 양지의 실현이 주체와 대상을 성장시키는 생(生)의 작용으로서 사회갈등 해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천지의 큰 덕은 생(天地之大德曰生)’이라는 주역 계사

천의 명제가 음양(陰陽), 사시(四時), 오행(五行), 사단(四端)과 사덕(四德)을 거쳐 양지(良知)까지 생(生)의 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하였다. ……치양지의 생(生)은 재(才)·덕(德)·체(體)의 통합 성장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본 논문은 천지만물일체 관점에서 생명의 온전성을 ‘오행의 생명 순환 위에서 생명의 재(才)·덕(德)·체(體)가 온전하게 보전되고 성장하는 상태’ 라고 정의하고, 치양지가 주체와 대상에 있어 생명의 온전성을 동시에 확충하게 하는 생(生)의 작용이므로, 충분히 사회갈등 해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치양지를 갈등 해소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을 뿐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한정길도 갈등과 투쟁이 만연한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방안을 양명학에서 찾아본다.

한정길의 「양명학에서 제시하는 쟁탈 해법과 지도자의 덕목」에서 논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왕양명은 당시의 현실을 공리의 독성이 습성을 이루어 서로 다투으로써 죽음을 눈앞에 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는 쟁탈 원인을 ‘자사(自私)’ 와 ‘물욕(物欲)’ 에서 찾는다. 그것들이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본심을 가려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반구(反求)’ 와 ‘극기(克己)’ , 양지에 대한 자각과 치양지를 쟁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양명학에서는 양지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양명에 따르면 지도자는 민중을 사랑하고 민생을 보살피야 하고, 시대정신을 분명히 인식하여 자신이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자각해야 하고, 자신이 이끄는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또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실천 역량과 실천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덕목으로는 도덕성과 실행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민심을 반영한 정책 시행, 민중의 각성과 참여 의지 고취가 그 실천 방법으로 제시된다.”

조지선은 「한국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왕양명 철학의 고통 감정 이해

와 공감교육 방법 모색」에 강한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조지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구성원 간의 공감 형성과 갈등의 해소는 절실하며, 이를 위해 공감 능력을 기르는 공감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행복에 공감하는 것보다 타인의 슬픔이나 고통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공감한다. ……양명철학에서 고통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양지(良知)의 자각(自覺)과 실현에 민감하고 강력하게 작용하며, 심즉리(心卽理)부터 치양지(致良知)에 이르기까지 양명의 모든 공부에 연결된 중요한 감정이다. ……중전의 연구들은 양명철학에서 즐거움이 지닌 의미와 가치에 집중해 다룬 반면 고통의 역할과 의의를 다루는 데는 소홀하였다. 이에 …… 양명의 3대 학설에서 고통 감정이 갖는 역할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양명이 제시한 진성즉달 하는 양지 능력을 고통에 대한 민감성으로 이해하고, 공감 교육적 측면에서 진성즉달 하는 양지의 실현이야 말로 고통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는 방법이자 이에 바탕한 공감의 실천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김세정의 「유교의 양지 주체, 그리고 타자와 한 몸 짜기」는 소비사회와 갈등사회에서 양지 주체의 기능을 탐색한다. “ ‘주체’ , ‘타자’ , 그리고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 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학사상 가운데 하나인 양명학에서 ‘주체’ 와 ‘타자’ , 그리고 ‘주체와 타자의 관계’ 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 5장 ‘양지주체의 실현, 타자와 한 몸 짜기’ 에서는 참된 주체가 되기 위한 양지 주체의 실현 방안으로 치양지(致良知)와 친민(親民)에 대해 고찰하고, 타자(萬物)와의 한 몸 짜기(一體)와 더불어 양지 실현의 귀결처에 대해 고찰한다.”

이상 김민호, 한정길, 조지선, 김세정의 논문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논문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들이 밝힌 내용은 양명학에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식의 일반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2) 명대 학술 일반 논문(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오결	성 일원론[性一元論]의 재건 - 陳確 인성론의 사상적 함의 및 본보기의 의미-	퇴계학보	퇴계학연구원
2	선병삼	명대 유학의 정초자, 조단 학술사상의 종합적 고찰	한국 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3	선병삼	월천 조단의 이학사상 연구 - 「태극도설술해」와 「통서술해」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4	조남호	니훤순의 비판을 통해 본 담약수 철학의 질증적 성격	태동고전연구	태동고전연구소

진확(陳確, 1604-1677)은 한국 학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명말 청초 중요한 실학자이다. 오결은 「성 일원론[性一元論]의 재건 - 陳確 인성론의 사상적 함의 및 본보기의 의미」에서 진확 사상의 의의를 이렇게 정리한다. “진확은 맹자의 性善論을 견지하는 전제하에 송대의 유학자가 인성을 천명의 성[天命之性]과 기질의 성[氣質之性]으로 나누는 성 이원론의 방식에 반대하였으며, 氣·情·才는 모두 성의 내용이고 옳은 후천적 습관에서 비롯되며 ‘확증하여 재질을 다함[擴充盡才]’을 통해 선의 필연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논증에 있어서 비교적 엄밀한 논리적 구조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그의 사상사적 위상을 이렇게 말한다. “진확이 재건한 일원적 인성론은 위에서부터 陽明과 蕺山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顏元과 戴震의 길을 터주었으며, ‘천리를 지키고 인욕을 없앴[存理滅欲]’이라는 도덕적 엄격주의를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욕망을 성취한다. [達情遂欲]’라는 시대적 발전 조류도 구현하여 명청 즈음의 학술 사조에서 아주 중요한 본보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병삼은 명대 유학의 정초자로 평가받는 조단 연구 성과를 2편으로 발표했다. 먼저 「명대 유학의 정초자, 조단 학술사상의 종합적 고찰」은 조단을 명대 유학의 정초자로 매김하는 그 근거를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선병삼은 이렇게 말한다. “월천(月川) 조단(曹端, 1376-1434)은 한국 학계

에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조단은 명대 전기 유학사를 다룬 저서들이나 개괄적인 논문들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학자이다. 역대의 평가가 말하듯 조단은 명대 유학의 정초자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조단의 이학사상을 실천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첫째, 실천적 고찰은 조단의 생애와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단의 생애를 살필 적에 그가 활동한 명대 건국 초기 상황과 평생 유학학정으로 봉직하면서 유생들을 교육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둘째, 이론적 고찰은 주돈이 이학사상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조단은 「태극도설술해(太極圖說述解)」와 「통서술해(通書述解)」를 지어 주돈이 사상을 명대에 본격적으로 현창한 첫 번째 인물이다. 본 논문은 명대 유학의 정초자라는 평가를 중심에 두고, 조단 이학사상의 주자학적 본질과 심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명대 이학 특히 명대 심학의 시대정신과 방향성과의 연속성 위에서 고찰한 본 연구가 향후 소위 창신(創新)보다는 법고(法古)의 흔적이 농후한 조단 이학사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어서 조단 학술사상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는 「태극도설술해(太極圖說述解)」와 「통서술해(通書述解)」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역대로 조단은 명대 이학의 종장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명대의 주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 논문은 조단의 이학사상을 「태극도설술해」와 「통서술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태극도설」과 「통서」가 주돈이 이학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처럼, 「태극도설술해」와 「통서술해」는 조단 이학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저작이다. 첫째로 「태극도설술해」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태극도 그림과 태극도설 문자의 술해이다. ‘도(圖)’ 술해는 주자의 태극도 해설 원문을 그대로 차용하고, 조단 자신의 생각을 소주로 밝혔다. ‘설(說)’ 술해는 주자의 주해를 부분적으로 차용하면서 조단 자신의 견해를 기술했다. ‘태극은 리’ 라는 입장과 ‘태극은 활리(活理)’ 라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했다. 둘째로 「통서술해」는 ‘통서총론’, 「통서」에 대한 술해, ‘통서후록’ 으로 이루어져있다. ‘통서총론’ 은 「통서」와 「태극도설」에 대한 전현들의 평을 전체

하여, 조단 자신이 「태극도설」과 「통서」를 이해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밝힌다. ‘통서후록’에서 조단은 이정이 주돈이의 이학을 계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한다. 이는 송대 이학의 종장으로 주돈이를 확립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성(誠), 천도와 인도의 일관’에 관한 입장과 ‘주정(主靜) 공부’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논했다.”

선병삼의 상기 두 논문은 한국 학계에 조단 학술사상의 특징과 그 사상사적 위상을 비교적 명확하게 소개해 주었다.

나흠순은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명대 주자학자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학자다. 잘 알려진 것처럼 퇴계는 나흠순의 이기론을 이기 일물론이라고 배척했고, 율곡은 학문적 참신성이 퇴계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나흠순은 주자학을 신봉하면서도 수정을 가한다. 리(理)는 기(氣)의 조리(條理)이다 하여 리를 실체(實體)로 상정하는 이기이원(理氣二元)의 관점을 비판한다. 도심인심(道心人心) 체용성정(體用性情)을 주장하여 도심과 인심의 관계를 체와 용, 성과 정의 관계로 상정한다. 이는 주자의 입장과 확연히 다르다.

조남호는 「나흠순의 비판을 통해 본 담약수 철학의 절충적 성격」에서 나흠순이 왕양명과 더불어 명대 심학의 진영을 차지했던 담약수를 비판한 내용을 다룬다. 담약수는 수처체인천리(隨處體認天理)를 주장하며 스승인 진백사의 주정공부와 왕양명의 치양지를 종합하고자 했다.

조남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흠순은 담약수의 철학 태도를 한마디로 양용과 유사하고 학술 수준이 양용보다 못하다고 폄하하였다. ……담약수 철학의 절충적 태도를 정리하면 나의 마음을 크게 확대하여[大心] 천하 만물 어느 것에서나 천리를 체인해야 한다[隨處體認天理]고 주장하였다. 커다란 마음에 이르려면 마음이 중정(中正)함에 이르고, 중정하면 마음이 저절로 발동하여 대응하는 자연(自然)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수처체인천리 중지가 정호(程顥)와 이통(李侗)의 체인천리를 계승하였고 진현장의 인가를 받았기에 송명 학술의 정통이라고 자처하였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마음의 본체를 깨닫는 심학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만물의 천리를 격물치지하는 정이와 주희의 학술 경향을 따랐다. 주자학 관점에서 보면 담약수의 리기학

일론은 합이란 글자에서 이미 리기를 둘로 나눈 사고가 있고, 중정론은 중정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문제가 남는다. 인물성론에서도 천지지성과 기질지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이 점을 나흠순은 지적한다. 심학 관점에서 보면 진현장의 본체에 관하여서도 담약수는 논의를 회피하였고, 담약수의 수처체인천리도 궁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물망물조장도 허위체험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이 점을 나흠순은 문제 삼는다. 주자학 측면에서 분석적이지 못하고 심학 측면에서도 심체의 개오를 설명하지 못한 점에서 담약수 철학의 절충적인 경향이 가져온 문제를 노출하였다.”

#### 4) 명대 유학과 조선유학 비교 논문(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용태	명말청초 고증학의 경세치용과 18세기 조선 실학의 형성 -기호남인 성호학과와 노론 북학과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2	정종모	퇴계(退溪)와 감천(甘泉)의 리(理)에 대한 해석 비교 -16세기 동아시아 심학의 지평에서-	철학탐구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3	단윤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	동양고전연구	동양고전학회

박용태의 「명말청초 고증학의 경세치용과 18세기 조선 실학의 형성 - 기호남인 성호학과와 노론 북학과를 중심으로」는 실학 연구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다.

박용태의 말을 들어보자. “청대 고증학은 고전과 경전의 복원(復原)을 통한 법고창신(法古創新)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방법론을 주창한 고전주의 학파이다. 하지만 18세기 고증학을 수용하였던 조선의 유학계는 협소한 자구(字句) 해석과 문자학적 훈고(訓詁)에 집중하는 고증학의 경전 고변 이 학문적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또 하나의 지적 유희에 젖어 들어 훈고적학 공리공론으로 고증학이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명청 교체기 초기 고증학의 명대 3대 유로(遺老)

인 고염무, 황중희 왕부지 등에 대해서 조선의 유학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들이 자주 나타난다. 이들의 특징은 경제치용의 실용적 경제론을 주창하는 학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왜 이들이 받아들였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명말청초 경제치용의 고증학은 근본적으로 공사 사를 대립적 개념으로 상정했던 송대 성리학파 다르다.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수용은 기호 남인계 성호학파에서부터 제기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론계 북학파에서는 사욕과 탐욕을 위한 근대 자본주의 욕망구조의 승인이 아닌 국가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즉 공적 영역에서의 사리(私利)의 수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화와 욕망의 공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유교주의적 경제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용후생학파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한다.”

박용태의 상기 연구는 당파적 대결이 치열했던 기호남인과 노론이지만 실학이라는 공통적인 담론의 장 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를 탐색한 글이다. 그는 명말청초의 소위 유로들과의 연관성을 통해 이를 논한다.

퇴계 이황은 사칠논쟁을 전개하면서 이발(理發)을 주장한다. 후에 율곡 이이는 이발을 이동(理動)으로 풀고, 퇴계의 호발론(互發論)은 주자학 공리를 위반했다고 비판한다. 감천 담약수는 명대 학술계를 풍미한 양명심학과 더불어 명대 심학을 양분했던 감천학파를 창시한 인물이다. 진백사의 수제자이고, 속학(俗學)으로 전락한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왕양명과는 지기(知己)의 교분을 나누었다.

정종모의 「퇴계(退溪)와 감천(甘泉)의 리(理)에 대한 해석 비교 —16세기 동아시아 심학의 지평에서」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모종의 사상사적 연결 구도를 찾고자 한다.

정종모는 이렇게 말한다. “본 논문은 16세기 동아시아 유학의 중요 인물에 속하는 담감천(澹甘泉)과 이퇴계(李退溪)의 리(理)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철학을 심학(心學)의 지평에서 비교한다.”

퇴계심학과 양명심학 비교가 한때 한국 학계의 뜨거운 주제였다. 이제 정종모는 퇴계심학과 감천심학의 조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16



세기 중국 유학에서 심학 전통은 양명의 심학과 감천의 심학으로 분화했으며, 동시대 조선에서는 퇴계가 주자학의 심학적 경향을 드러내었다. 한편, 기존의 여러 연구는 퇴계 심학과 양명 심학 간의 동이(同異)를 논의하기도 했는데, 본 논문은 퇴계의 철학을 ‘심학’으로 규정하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이 양명 심학보다 오히려 감천 심학과 비교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단윤진의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는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실학자로 평가받는 두 인물을 비교한 글이다. 이를 위해 그는 『중용』 수장의 천명지위성을 고찰한다.

단윤진은 그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중용』 1장 ‘천명지위성’에 대한 왕부지와 정약용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째, ‘천’에 대한 관점에서 왕부지에게 ‘천’은 기가 쌓인 것으로 ‘천’은 비인격적이고 비주체적인 자연천이다. 정약용에게 ‘천’은 영명무형한 주재천으로 인격적인 상제천이다. 음양오행에 있어서 왕부지에게 ‘천’은 음양오행의 운동이며 음양오행은 본체인 동시에 작용이다. 정약용은 음양오행은 헛살이 비치거나 가릴 때 비롯되는 것으로 체질은 없고 명암만 있을 뿐이라고 역설한다. 둘째, 왕부지는 ‘명은 법령’임을 강조한다. 정약용에게 ‘명은 도심’의 소리이다. 셋째, ‘성’에 있어서 왕부지는 성은 ‘생의 리’로 성즉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리’는 기의 리라는 점에서 주자와 차이가 있다. 정약용은 ‘성은 기호’라 강조한다. 왕부지와 정약용은 ‘천명지위성’이라는 같은 문장에서 각각 왕부지는 ‘명’에 정약용은 ‘성’에 중점을 둔 것은 서로간의 관점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命’과 ‘性’을 인간에게만 한정시켜 인간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것은 왕부지와 정약용의 공통된 견해이다. 넷째, 글을 서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왕부지와 정약용은 모두 선대의 고증을 자신의 이론적 근거로 삼으며 선대 유학자를 비판하고 인용한다.”

『중용』 1장 비교 분석을 통해 왕부지와 정약용의 견해를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윤진이 애초에 밝힌 왕부지와 정약용 사상, 혹은 중국사상과

한국사상의 비교 고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시를 제시해야 할 것 같다.

## 2) 경학연구 관련 논문(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희정	계본의 『대학사존(大學私存)』 연구 - 양명학적 경학의 한 예시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경학사에서는 명대를 일종의 암흑기로 평한다. 양명학자들이 심즉리를 제창하면서 주자의 즉물궁리(卽物窮理)를 외부의 정리(定理)를 추구하는 지식 위주의 학문이라고 공격했다. 또한 오경은 내 마음의 각주(脚註)라는 구호가 양명심학 내에 널리 퍼졌다. 어찌되었든 경학 연구는 경전을 높이고 객관주의를 지향하는데 반하여 심학은 경전의 권위에 도전하고 주관주의를 표방했기에 경학 연구 성과가 많지 않았다.

조희정의 「계본의 『대학사존(大學私存)』 연구-양명학적 경학의 한 예시-」는 양명학자의 경학 연구를 소개한다. 계본은 한국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양명후학 연구사에서 계본은 왕용계와의 논변 당사자로 많이 등장한다. 계본은 용척설(龍惕說)을 주장하면서 왕용계 등이 주장하는 현성양지(現成良知)를 비판했다.

조희정은 먼저 계본을 소개한다. “계본(季本:1485-1563)은 왕양명의 직전 제자로 절중왕문(浙中王門)으로 분류된다. 그는 양명좌파의 자유분방함을 좋아하여 욕망에 빠지는 것을 비판하고 마음 본체의 주재(主宰)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 기존의 설명을 부정하고 생동성이 있고 두려움의 대상인 용(龍)으로 설명하는 ‘용척설(龍惕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자들이 경전을 탐구하지 않고 공허하고 소략하게 강설만 일삼는 것을 걱정하여 경전을 궁구하는 것에 힘썼는데, 20여 년 동안 120권의 저서를 저술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양명학적 경학에 관한 연구가 미비했던 원인은 문자에 구속됨을 경계하고 실천과 마음을 통한 체득을 중시한 내부

적 요인과 연구 자료의 부족이라는 외부적 요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계본의 『사서사존(四書私存)』은 양명학적 경학을 연구함에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사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대학사존』은 서문-본문-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원문을 먼저 제시하고 계본이 자신의 의견을 주석으로 제시하는 형식으로 주희의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 『대학장구』- 『혹문(或問)』의 형식과 흡사하다. 『대학사존』의 주석도 대부분 주희의 주장을 비판하거나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양명학적 경학을 주자학의 경학적 위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본의 『대학사존』은 왕양명이 주장한 『고본대학(古本大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7장의 체제로 분장 되어 있다. 이는 계본이 왕양명의 중지를 따라서 성의(誠意)를 중시하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경전의 뜻을 찾으려고 궁리하여 얻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본은 『대학』과 『중용』의 관계성을 중시하는데, 성(誠)을 통해서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고 그 공부로 근독(謹獨)을 강조하였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계본의 대학관은 격물(格物)의 물(物)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와 근독(謹獨)을 통한 공부법과 ‘지지(知止)-성의(誠意)-무자기(毋自欺)-근독(謹獨)-격물(格物)-지행합일의 공부’로 연결되는 구도를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대학사존』에 대한 연구는 계본의 경학과 사상적 체계를 연구하는 시작으로 앞으로 『사서사존』과 『설리회편(說理會編)』 등의 저서들을 통해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명대 경학 연구는 간헐적이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곡 정제두가 경학을 중시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남겨두었는데, 이를 중국 양명학과 구분되는 한국적 양명심학 특징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 따라서 계본 등 중국 양명학자들의 경학 연구성과와 비교 고찰한다면 기존 한국 학계의 논의를 심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명대 사상사에서 대종(大宗)은 양명학이다. 이른바 심학이다. 그렇다면 양명학이 명대 사상계의 현학으로 등장하기 이전의 명대 전기 학술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선병삼의 「명대 유학의 정초자, 조단 학술사상의 종합적 고찰」은 이 문제에 착안한 논문이다.

선병삼의 말을 들어보자. “명대(1368-1644) 전체의 유학사를 통관하여 볼 때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시기를 꼽자면 단연 명대 전기 유학사상이다. ……명대 유학사에서 양명학(심학)을 중심에 두었을 때 주자학을 계승한 명대 전기 유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이 시기의 전체적인 경향은 과거로부터 전수된 학문(정주이학)을 갈고 닦으면서 내면화(실천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따라서 정덕 연간 이후 펼쳐지는 양명심학의 약진에 비하자면 학술적으로 단조로운 것도 사실이다.”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현재 학계에서 명대 전기 유학사를 평가하는 관점은 두 가지 입장이 상호 보완하는 형국이다. 편의상 ‘전통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으로 지칭하겠다. ‘전통적 관점’은 황중희가 『명유학안(明儒學案)』에서 지적하듯이 명대 전기의 성리학자들은 여기서도 주자, 저기도 주자로 주자학을 묵수하기만 했을 뿐 새로운 창신을 일구지 못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한편, ‘현대적 관점’은 명대 중기 이후 만개하는 새로운 사상적 전환, 특히 양명심학이 외부의 이식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명대 전기는 도리어 명대 중기 이후 유학사상을 키워낸 배태기로서 주의 깊게 조망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이다.”

선병삼의 입장은 이른바 현대적 관점을 받아들인다. 조단을 명대 유학의 정초자로 보는 입장이다. “명대 유학의 정초자로 평가받는 조단 이학사상 탐구는 명대 전기 유학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바로 조단 이학사상에서 주자학적 본질과 심학적 특색을 동시에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호 대립과 충돌을 일으켰던 주자학과 심학적 요소의 결합이 어떻게 조단에게 가능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상호 충돌적일 수 있는 조단 이학사상의 주자학적 본질과 심학적 특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유종주가 ‘선생을 오늘날의 염계라고 해도 가하다.’는 말에 착안하여 조단 이학사상의 주자학적 본질과 심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조단이 주돈이 학술의 계승자라는 점에 주목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주자학과와 양명학과 모두 주돈이 학술사상을 각 학파의 사상적 근원으로 삼는다. 이는 주돈이 학술사상에서 주자학적 요소와 양명학적 요소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동일한 논리로 조단의 이학사상에도 주자학적 요소와 양명학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돈이가 송대 초기에 이학의 본질인 천명심성(天命心性)의 일관(一貫)에 기반을 두고 천인성성(踐仁成聖)의 토대를 세운 것처럼, 조단 역시 천명심성(天命心性)의 일관(一貫)과 천인성성(踐仁成聖)에 기반을 두고 원나라 이민족 통치를 거치면서 이단사설로 훼손되었던 이학(유학)의 본령을 재확립하고자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선병삼의 「월천 조단의 이학사상 연구: 「태극도설술해」와 「통서술해」를 중심으로」는 본인이 주장한 이상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밝힌 글이다.

조단과 주돈이의 상관성은 조단의 「태극도설술해」와 「통서술해」 분석을 통해 잘 드러난다. 「태극도설」과 「통서」가 주돈이 이학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처럼, 「태극도설술해」와 「통서술해」는 조단 이학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저작이기 때문이다. “유종주는 조단 이학사상의 본령을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 1017-1073)와 연결 짓는다. 유종주의 견해는 조단의 「연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보」 56세 조를 보면 ‘조단이 「태극도」의 깊은 의미를 「월천교휘도(川月交輝圖)」와 자작시로 표현하면서 자신을 월천자(月天子)라고 자호했다. 이에 학자들이 월천선생이라고 칭했다.’ 하는 기록이 나온다. 사실 조단은 「태극도설술해(太極圖說述解)」와 「통서술해(通書述解)」를 지어 주돈이 사상을 명대에 본격적으로 현창한 첫 번째 인물이다.”

첫 번째, 「태극도설술해」에서 선병삼은 ‘태극은 리’라는 입장과 ‘태극은 활리(活理)’라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했다.

“조단의 「태극도설술해」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태극도 그림과 태극도설 문자의 술해이다. ‘도(圖)’ 술해는 주자의 태극도 해설 원문을 그대로 차용하고, 조단 자신의 생각을 소주로 밝혔다. ‘설(說)’ 술해는 주자의 주를 부분적으로 차용하면서 조단 자신의 견해를 기술했다. 본론에서는 2가지를 주요 논제로 다뤘다. 첫째는 ‘태극은 리’ 라는 입장이고, 둘째는 ‘태극은 활리(活理)’ 라는 입장이다. ‘태극이 리’ 라는 입장은 태극(리)을 만유의 주재로서 확립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는 주돈이가 천도와 인도를 관통하는 태극을 통해 천인성성(踐仁成聖)을 추구하는 성학(聖學)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동일하다. ‘태극은 활리(活理)’ 라는 입장은 조단이 태극의 주재성을 강조하면서 주자가 태극의 동정을 부정한 듯한 표현을 문제 삼아 지은 「변려」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월인만천(月印萬川)에서 따온 월천(月川)이라는 호도 태극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조단의 이학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 「통서술해」에서 선병삼은 ‘성(誠), 천도와 인도의 일관’ 에 관한 입장과 ‘주정(主靜) 공부’ 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논했다.

“조단의 「통서술해」는 ‘통서총론’, 「통서」에 대한 술해, ‘통서후록’ 으로 이루어져있다. ‘통서총론’ 은 「통서」와 「태극도설」에 대한 전현들의 평을 전제하여, 조단 자신이 「태극도설」과 「통서」를 이해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밝힌다. ‘통서후록’ 에서 조단은 이정이 주돈이의 이학을 계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한다. 이는 송대 이학의 종장으로 주돈이를 확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자료다. 본론에서는 2가지를 주요 논제로 다뤘다. 첫째는 ‘성(誠), 천도와 인도의 일관’ 에 관한 입장이고, 둘째는 ‘주정(主靜) 공부’ 에 관한 입장이다. ‘성(誠), 천도와 인도의 일관’ 이라는 입장은 ‘성상(誠上)’ 1장과 ‘성하(誠下)’ 2장을 통해 천도와 인도의 일관을 설명하는 데서 드러난다. ‘성상’ 은 태극이 체와 용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성하’ 는 태극이 사람에게 내재함을 설명한다. ‘주정(主靜) 공부’ 에 관한 입장은 정고정(靜固靜)과 동역정(動亦靜)의 주정 공부론에 잘 드러난다.”

퇴계학의 성격을 밝히는 논의는 한국 학계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영역 중 하나다. 한때 한국 학계에서 퇴계 심학 성격 논쟁이 뜨거웠다. 퇴계 이황이 주자학자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적 성리학의 정초자로 퇴계를 자리 매김하고자 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중국 주자학과 다른 퇴계 성리학의 특징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심학이 부상했는데, 사실 심학은 양명학과 친연성을 보인다.

정종모의 「퇴계(退溪)와 감천(甘泉)의 리(理)에 대한 해석 비교 —16세기 동아시아 심학의 지평에서」는 양명심학 대신에 감천심학을 그 자리에 넣으려는 시도이다. “주지하듯이 16세기 중국 유학에서 심학 전통은 양명의 심학과 감천의 심학으로 분화했으며, 동시대 조선에서는 퇴계가 주자학의 심학적 경향을 드러내었다. 한편, 기존의 여러 연구는 퇴계 심학과 양명 심학 간의 동이(同異)를 논의하기도 했는데, 본 논문은 퇴계의 철학을 ‘심학’으로 규정하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이 양명 심학보다 오히려 감천 심학과 비교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종모가 감천에 주목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양명 심학은 심(心)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긍정하는 내향주의, 주관주의 형태의 심학이다. 반면에 감천 심학은 천리나 도체의 보편성과 객관성 및 능동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심(心)과 물(物)을 관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감천이 보기에 심체(心體)는 개인의 주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지만물을 포괄, 관통하고 있는 우주심(宇宙心)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감천의 철학을 심물합일(心物合一)의 학문 또는 혼일지학(混一之學)이라 부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천리와 심체 및 객관 세계의 합일에 대해 퇴계 역시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감천의 공부론은 수처체인천리(隨處體認天理)가 핵심이고, 나아가 성경(誠敬)의 수양을 강조한다. 이는 천리나 도체가 주관과 객관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공부론 차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퇴계도 천리가 인간과 세계를 두루 관통하고 있으며, 이를 언제나 성경의 마음으로 자각하고 체인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

처럼 본체론과 공부론 차원에서 감천과 퇴계의 철학은 서로 조응하는 바가 많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진실보한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퇴계심학을 양명심학이 아닌 감천심학과 연결 짓는 시도는 신선하다. 그러나 애초에 퇴계학을 통해 한국적 주자학을 정초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퇴계 심학에 주목했고, 이 과정에서 양명심학과 상관성을 주목했음을 상기한다면, 본 연구는 이미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 4. 평가와 전망

총 17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로는 양명학(양명심학과의 비교 등) 관련 연구가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한국학계에서 명대 유학사 연구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명·청대 유학 관련 논문으로 20년도 18편, 19년도 24편, 18년도 17편, 17년도 26편이었고, 올해 명대 유학사(주자학 양명학 분야) 총 17편 중에서 양명학(심학)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군이 다양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한국 내 연구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거니와 연구자 층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제4장

## 청대 유학 연구

류희성(서강대학교)

#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에서 유학 연구와 관련된 중국의 청대 시기에 발표된 성과를 파악하고 분석·평가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중국 청대 유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 우선, 명대 말기와 청대 초기의 전환기에 활동한 학자들을 어느 시기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1840년 아편전쟁을 분기점으로 그 이후를 중국 근대로 본다. 그러므로 청대 유학의 범위는 청나라 건국(1616년)부터 아편전쟁까지로 보았으며, 명말·청초의 유학자도 청대 유학으로 포함하였다.

청대 유학의 연구는 시기의 제한 때문인지 연구 성과가 그리 많지 않다. 2022년도의 학위논문은 없고, 연구 논문도 13편에 불과하지만, 2021년 10편, 2020년 3편보다는 많다. 13편의 논문 중에서 철학에 관련된 논문이 2021년 5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12편으로 대부분 철학 영역에 속하는 연구들이다. 또한 옹방강과 진학 등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연구가 있다.

13편의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진근	왕부지의 困卦 『大象傳』 풀이와 그 君子觀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40호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2	김홍매	옹방강(翁方綱)과의 비교를 통해 본 김정희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의 학문적 경향	『국문학연구』 제46호	국문학회
3	김희영	『논어』 경문의 제주석(諸注釋)을 통해 본 '군자'에 관한 해석 양상 -정수덕의 『논어집석』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제61집	충남대 유학연구소
4	단운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	『東洋古典研究』 제88집	동양고전학회
5	박용태	명말청초 고증학의 경세치용과 18세기 조선 실학의 형성 -기호남인 성호학파와 노론 북학파를 중심으로-	『大同哲學』 제99집	大同哲學會

6	서강휘	『중용장구』 20장 해석에 대한 비교 고찰 -주희와 왕부지를 중심으로-	『東洋哲學』 58집	한국동양철학회
7	서근식	『중용』의 귀신론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주희, 왕부지, 이토 진사이, 정약옹을 중심으로-	『우계학보』 제43호	우계문화재단
8	양충열	왕부지의 시가 해석학	『중국학연구』 제99호	중국학연구회
9	오걸	성 일원론[性一元論]의 재건 - 陳確 인성론의 사상적 함의 및 본보기의 의미	『퇴계학보』 제152집	퇴계학연구원
10	정빈나	18세기 청대 학술의 기원과 사상적 경향에 관한 고찰 -당대 유학의 내적 변화와 서학 의 도전을 중심으로-	『철학과 문화』 제46집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11	정빈나	대진의 '감정'과 체험주의와의 접속에 관한 연구	『인문과 예술』 제13호	인문예술학회
12	정빈나	청대 학술사에 나타난 유교 지식론의 사상 적 전환 -유학사상의 내적 자기운동의 측면 에서-	『태동고전연구』 제49 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3	진보성	유가에서 도덕적인 공적 행위의 주체, 군자에 대한 소고	『철학논총』 제108집 제2권	새한철학회

위의 논문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구 인물과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주제별 분류를 생략하고, 인물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 2. 인물별 분류

2022년도 발표된 청대 유학의 논문을 인물별로 분류하면, 왕부지 5편, 옹방강 1편, 대진 1편, 진학 1편, 기타 5편이다.

### 1) 왕부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진근	왕부지의 困卦『大象傳』 풀이와 그 君子觀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40 호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2	단운진	王夫之和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 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	『東洋古典研究』 제88 집	동양고전학회
3	서강휘	『중용장구』 20장 해석에 대한 비교 고찰 -주희와 왕부지를 중심으로-	『東洋哲學』 58집	한국동양철학회

4	서근식	『중용』의 귀신론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 주희, 왕부지, 이토 진사이, 정약용을 중심으로	『우계학보』 제43호	우계문화재단
5	양종열	왕부지의 시가 해석학	『중국학연구』 제99호	중국학연구회

다른 시기에 비해 연구성과가 적은 청대 유학 연구의 성과는 명말·청초의 왕부지·황종희·고염무 세 학자에게 편중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왕부지에 관한 연구가 많다. 왕부지와 관련된 논문은 2018년 4편, 2019년 5편, 2020년 2편, 2022년 5편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왕부지에 관한 2022년도 연구성과를 보면, 철학에 해당되는 것이 4편, 문학 1편이 있다. 특이한 것은 왕부지의 『중용』해석과 관련된 논문이 2편이라는 점이다. 김진근 선생은 주역 연구자, 특히 왕부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로서 연속해서 『주역』에 관련된 왕부지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용』해석에 관한 비교 연구인 단윤진 선생의 논문도 주목을 끈다.

## 2) 옹방강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홍매	옹방강(翁方綱)과의 비교를 통해 본 김정희<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의 학문적 경향	『국문학연구』제46호	국문학회

옹방강(1733-1818)은 중국 청대의 유명한 서예와 문학에 조예가 깊은 금석학자이다. 우리에게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스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옹방강은 탁월한 감식력을 가진 당대 최고의 금석학자였다. 김정희의 박식함에 놀란 옹방강은 자신의 서고를 보여주고 아들을 소개했다고 한다. 옹방강은 김정희에게 귀중한 탁본과 책 등을 선물로 주었으며, 추사의 생부인 김노경의 당호 ‘유당(酉堂)’을 친필로 써주기까지 하였다. 이후 옹방강과 김정희는 사승관계를 맺고 계속 교류하였다. 이런 점에서 김홍매 선생의 논문은 매우 흥미 있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여겨진다.

### 3) 대진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빈나	대진의 '감정'과 체험주의와의 접속에 관한 연구	『인문과 예술』 제13호	인문예술학회

이른바 ‘청대철학’ 이라면, 먼저 떠오르는 학자로 명말·청초의 세 선생(왕부지·황종희·고염무)을 제외하고, 실용주의로 유명한 안이학파의 안원과 이공, 그리고 대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원과 이공의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대진에 관한 연구도 그다지 많지 않다. 대진에 관한 논문은 2021년 2편 이외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 동양철학계의 성찰이 필요하다. 그나마 2021년에 이어서 계속 대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 정빈나 선생의 연구는 순수한 대진에 관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위안이 된다.

### 4) 진확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오걸	성 일원론[性一元論]의 재건 -陳確 인성론의 사상적 함의 및 본보기의 의미-	『퇴계학보』 제152집	퇴계학연구원

진확(1604-1677)은 명말청초의 철학자로서 명말의 위대한 유학자인 유종주(劉宗周)에게 사사받은 적이 있다. 그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학자로서 『대학』을 부정하고 『중용』을 의심하였으며, 송명유학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인성론에도 드러난다. 진확의 진보적인 철학은 이후 발전하는 청대의 실학을 이해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학술계에선 중시되어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학자이지만, 실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진확의 철학을 고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4)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희영	『논어』 경문의 제주석(諸注釋)을 통해 본 '군자'에 관한 해석 양상 -정수덕의 『논어 집석』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제61집	충남대 유학연구소
2	박용태	명말청초 고증학의 경세치용과 18세기 조선 실학의 형성-기호남인 성호학파와 노론 북학파를 중심으로	『大同哲學』 제99집	大同哲學會
3	정빈나	18세기 청대 학술의 기원과 사상적 경향에 관한 고찰: 당대 유학의 내적 변화와 서학의 도전을 중심으로	『철학과 문화』 제46집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4	정빈나	청대 학술사에 나타난 유교 지식론의 사상적 전환 -유학사상의 내적 자기운동의 측면에서-	『태동고전연구』 제49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5	진보성	유가에서 도덕적인 공적 행위의 주체, 군자에 대한 소고	『철학논총』 제108집 제2권	새한철학회

기타에 속하는 연구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문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논문들이다. 위에 나열한 5편의 논문은 나름대로 모두 의미 있는 연구라고 여겨진다. 김희영 선생의 연구는 『논어』에 관한 여러 주석에 나타난 ‘군자’라는 개념을 살펴본 것이다. 박용태 선생의 논문은 명말 청초의 고증학과 조선 실학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로서 그다지 생소한 연구 분야는 아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정빈나 선생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청대 관련 논문을 대진 논문을 포함해 3편 발표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기타에 속하는 2편의 논문은 특정 인물이 아닌 청대 학풍 및 학술사에 관련된 것이다. 이런 연구는 사실상 그리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정빈나 선생의 계속된 연구성과를 기대해 본다.

###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22년도 청대 유학과 관련된 국내 연구성과는 모두 13편이며, 그 가운데 철학연구에 속하는 것은 12편이다. 따라서 철학적

의미가 많은 논문을 선별해 분석하고 비평하고자 한다.

## 1) 김진근, 「왕부지의 困卦 『大象傳』 풀이와 그 君子觀 고찰」

필자는 이 논문의 목적을 “왕부지의 困卦 『대상전』 풀이에 드러난 독특하고 독창적인 면과 거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君子觀의 현재적 의의를 고찰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왕부지는 곤괘 『대상전』 풀이에서 역대 제가의 풀이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풀이를 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그의 풀이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고, 이러한 풀이를 낳은 배경이 무엇이며, 그것에 드러난 군자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필자는 먼저 왕부지의 풀이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역대 제가의 『대상전』 풀이를 고찰하였고, 그 다음에 『주역내전』 『주역대상해』의 풀이를 차례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澤无水’는 ‘연못이 물을 없애버렸다’라고 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군자에게 적용해 보면 이 곤괘가 상징하는 곤궁한 상황이 군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결단에 따라 초래된 것이라 하는 점이다. 둘째, 군자는 이 곤궁한 상황을 감내해야 하고, 오히려 이 곤궁한 상황이 그의 뜻함을 이루게 하는 조건이라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음의 세력들이 양이 상징하는 군자를 가리고 발호하는 세상에의 出仕와 이들에 대한 협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논문은 왕부지가 왜 곤괘 『대상전』을 이렇게 풀이하는지 그 배경을 추적해 보았고, 아울러 이 풀이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의 군자관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 의의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 2) 김홍매, 「옹방강(翁方綱)과의 비교를 통해 본 김정희<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의 학문적 경향」

필자는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를 다음처럼 밝히고 있다. “김정희가 살



있던 19세기의 청나라는 고증학이 전성기에 처해 있던 시점이었다. 김정희는 청나라를 방문하고 당시 유명한 학자였던 옹방강(翁方綱), 완원(阮元)과 사승관계를 맺었고, 청대의 학술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은 김정희의 학문적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청대 학술과의 영향관계가 제대로 구명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까닭에 이 논문에서는 위에 언급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정희의 고증학 경향을 보여주는 글로 평가되는 <실사구시설>을 중심으로 고증학에 대한 김정희의 관점을 옹방강과의 비교 및 청대 학술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옹방강은 청대 고증학이 전성기에 처한 시기에 생활하였던 사람으로, 고증학의 영향을 깊이 받기는 하였지만 청대 학술에서 그의 위치는 고증학 학자가 아니라 이학자이며, 고증학을 의리지학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에서 고증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비판하고 배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희는 고증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훈고와 의리에 대한 그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옹방강과 다르지 않다. 그의 <실사구시설>은 훈고를 중시하되 그것은 의리를 밝히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글이다. 또한 사승과 가학을 강조하면서 경전과 한대 학자인 정현(鄭玄)의 주석의 정통적 지위를 수호하려는 태도는 진정한 실사구시적 태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고증학보다는 성리학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준다.

### 3) 김희영, 「『논어』 경문의 제주석(諸注釋)을 통해 본 ‘군자’에 관한 해석 양상-정수덕의 『논어집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청말민초에 살았던 정수덕의 『논어집석』에 근거해 유학의 이상적 인간이 ‘군자’ 개념을 고찰해 본 것이다. 우선, 필자는 『논어』 경문 가운데 ‘군자’가 출현한 문장을 발췌하여 그 가운데 정수덕의 『논어집석』에 수록된 한학의 대표인 『논어집해』, 송학의 대표인 『논어집주』, 명청대의

주석 가운데 참신한 내용을 소개하며, 이 주석들을 통해 ‘군자’의 의미에 대해 해석학적 측면에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논어』는 짧고 간결한 문장인 데 비하여, 비유와 상징이 많고, 또 역사적 배경이나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고급 이래로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논어』의 주석서가 출현하였다. 각 시대를 대표할 만한 다양한 『논어』 주석서 가운데, 중화민국 시기 출판된 정수덕의 『논어집석』은 서명(書名)처럼 ‘여러 학자들의 설을 분류·채집’하여 많은 주석을 모아놓은 책이다. 정수덕의 『논어집석』은 여러 학파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학문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주의적 관점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개방적 태도를 갖고 학문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할 학문적 태도이다. 전(前) 시대의 연구를 다양한 형태로 축적하였고, 풍부한 주석으로 훈고와 의리를 모두 밝혔다는 데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논어』 경문 가운데 ‘군자’가 출현한 문장을 살펴보고 86개의 문장 가운데 정치적 위정자로 쓰인 문장과 도덕적 이상향으로 쓰인 문장으로 분류하였다. 그 가운데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몇 개의 경문을 발췌하여 해당 경문의 고주와 신주 외에, 명청대 주석가의 주해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군자가 정치적 위정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 것과 도덕적 의미가 추가되거나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쓰인 주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고주나 신주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펴본 명청대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자의 이러한 연구는 매우 꼼꼼하고 각 시대별 해석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이라 평가할 수 있다.

#### 4) 단윤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

이 논문의 목적은 『中庸』 1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왕부지와 정약용의 주석을 고찰하고 비교하여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한·중 유학을

비교·고찰하는데 있다.

중용 1장에 있어서 첫째, ‘천’에 대한 관점에서 왕부지에게 ‘천’은 기가 쌓인 것으로 ‘천’은 비인격적이고 비주체적인 자연천이다. 정약용에게 ‘천’은 영명무형한 주재천으로 인격적인 상제천이다. 음양오행에 있어서 왕부지에게 ‘천’은 음양오행의 운동이며 음양오행은 본체인 동시에 작용이다. 정약용은 음양오행은 햇살이 비치거나 가릴 때 비릇되는 것으로 체질은 없고 명암만 있을 뿐이라고 역설한다. 둘째, 왕부지는 ‘명은 법령’임을 강조한다. 정약용에게 ‘명은 도심’의 소리이다. 셋째, ‘성’에 있어서 왕부지는 성은 ‘생의 리’로 성즉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리’는 기의 리라는 점에서 주자와 차이가 있다. 정약용은 ‘성은 기호’라 강조한다. 왕부지와 정약용은 ‘천명지위성’이라는 같은 문장에서 각각 왕부지는 ‘명’에 정약용은 ‘성’에 중점을 둔 것은 서로 간의 관점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命’과 ‘性’을 인간에게만 한정시켜 인간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것은 왕부지와 정약용의 공통된 견해이다. 넷째, 글을 서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왕부지와 정약용은 모두 선대의 고증을 자신의 이론적 근거로 삼으며 선대 유학자를 비판하고 인용한다.

왕부지는 송대 성리학과는 구별되는 실천적인 중용 철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조선성리학과는 구별되는 정약용의 중용 해석도 역시 실천적인 입장에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왕부지와 맥을 같이한다.

##### 5) 오결, 「성 일원론[性一元論]의 재건-陳確 인성론의 사상적 함의 및 본보기의 의미」

필자는 국내에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명말 청초의 중요한 실학자로서 인성론 방면에 뛰어난 성취를 이룬 陳確(1604~1677)의 인간본성론에 관해 연구하였다. 진확은 맹자의 성선설을 견지하는 전제하에 송대의 유학자가 인성을 천명의 성과 기질의 성 이원론의 방식에 반대하였으며 氣·情·才는

모두 성의 내용이고 악은 후천적 습관에서 비롯되며 ‘확충하여 재질을 다 함[擴充盡才]’ 을 통해 선의 필연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논증에 있어서도 비교적 엄밀한 논리적 구조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진확이 재건한 일원적 인성론은 위에서부터 陽明과 戴山 이어받고 아래로는 顏元和 戴震의 길을 터주었으며, ‘천리를 지키고 인욕을 없앤다[存理滅欲]’ 라는 도덕적 엄격주의를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욕망을 성취한다[達情遂欲]’ 라는 시대적 발전 조류도 구현하여 명청 시대의 학술 사조에서 매우 중요한 본보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진확의 인성론은 맹자보다 순자에 가깝다고 여겨지기 때문인지 순자 연구자들은 매우 중시한다. 그리 많이 다루지 않는 학자에 대한 연구는 학문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

## 6) 정빈나, 「대진의 ‘감정’과 체험주의와의 접속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의 목표는 대진(戴震)의 기철학적 사유체계에서 논의되는 욕구[欲], 감정[情], 지성[知] 3자의 관계를 해명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감정(情感, Emotion)의 의미와 역할을 체험주의의 관점과 방법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대진의 ‘감정’ 을 체험주의의 시각으로 분석하려면 ‘감정’ 과 더불어 그의 상위개념인 혈기와 심지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대진의 ‘정’ 을 ‘실정’ 과 ‘감정’ 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정’ 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하는 감정에 닿아 있다고 보았다. 뒤이어 혈기와 심지의 의미를 규명한 뒤 혈기와 심지를 구성하는 욕구와 감정과 지성 3자와 신체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는 욕구, 감정, 지성의 기반은 음양의 운동과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신체이며, 신체가 없이는 혈기와 심지 모두 존립할 수 없다는 대진의 전제에 기초한다. 혈기(신체적 성격)와 심지(지성적 성격)는 체험주의에서 말하는 물리적/신체적 층위의 경험과 추상적/정신적 층위의 경험과 연결될 수 있으며, 혈기라는 신체성으로부터 창발(emergence)된 결과물이 심지의 도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진의 기철

학적 사유에서 신체적 활동, 심리적 반응, 지성적 작용은 중첩적이고 연속적이며 이는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철학’ 을 표방하는 체험주의적 사유와 친연성을 가진다.

필자 정빈나 선생은 아마도 청대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인 듯하다. 2021년에도 대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2022년에는 무려 청대에 관한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청대철학에 대해 그리 많이 연구되지 않는 국내 학술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 7) 진보성, 「유가에서 도덕적인 공적 행위의 주체, 군자에 대한 소고」

이 논문의 목적은 유가 사상에서 공적 행위의 주체를 군자로 보고 공자 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군자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논문의 제목처럼 큰 사상의 궤적을 살피기보다는 고대의 공자와 성리학 성립기의 주희, 전통이 변혁되던 명말 청초 시기의 황종희, 한국에서는 근대 시기의 신채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도덕적인 공적 책무의 주체였다. 군자는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전범으로 비도덕적인 소인과 구분되는 인간상이다. 송대에 오면 주희는 현실적 의미의 표상으로서 군자에 인간과 자연을 설명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결합한다. 모든 만물과 공생과 조화를 꾀하는 태도를 궁극적으로 공이라고 할 수 있다. 명말청초 시기의 황종희는 기존의 도덕을 비판하며 새로운 공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근대 한국의 신채호는 황종희와 유사한 맥락에서 새로운 도덕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군자를 대신하여 새로운 공적 주체로 신국민과 민중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갖는 새로운 군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고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4. 평가와 전망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청대 유학 혹은 청대 철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 범위가 좁다. 이런 까닭에 청대 유학에 관한 국내 연구성과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원인은 국내의 청대철학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아마도 연구대상과 주제가 어떤 특정한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근 10여년 동안 국내의 청대유학 또는 청대철학에 연구성과는 그리 커다란 변화가 없다. 이런 까닭에 새로운 평가나 전망을 내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이전의 말을 다시금 강조한다는 의미로 증언부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국내 동양철학의 연구 경향을 개괄해 보면, 7·80년대는 선진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고, 90년부터 송·명대 철학의 연구자들이 증가한 것 같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양명학 연구가 성행하여 국제양명학 학술대회도 매년 거행되고 그에 따라 양명학 연구자도 증가한 것 같다. 그리고 10여년 전부터는 현대 신유학이 유행해서인지 근현대 중국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청대는 송명과 근현대에 끼인 시기라 그런지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행히 명말·청초의 왕부지·황종희·고염무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청대의 철학이 이론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것이 다른 시기보다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고증학적 사유·실사구시적 학문경향 등을 이끈 건가(乾嘉)학과와 안이(顏李)학과의 철학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동·서 학문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천주실의·영언여작 등의 서학(西學)에 관한 연구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청대에도 연구할 만한 다양한 사조들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학계의 청대 철학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나 철학에 단절된 것이 없다면, 근대나 현대의 삶이나 생각을 연구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전의 것에 대한 다양한 탐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제5장

## 근현대 중국유학 연구

류희성(서강대학교)



##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일반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의 근·현대 시기에 발표된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 분석·평가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근·현대 중국 유학의 시대적 범위에 관해 약간의 의견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대 중국철학은 본격적인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시작된 1840년의 아편전쟁 이후부터 1919년 5·4 신문화 운동까지를 가리킨다. 현대 중국철학은 1923년 과학논전(科玄論戰)부터 현재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아편전쟁부터 현재에 이르는 국내의 중국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중심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는 동서문화의 교류가 빈번하고 여러 철학이 공존한 까닭에 유학을 포함한 다양한 철학적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학의 범위를 넘어서 연구 성과를 포함하기도 했다.

국내의 2022년도 근·현대 중국 유학과 관련된 연구성과는 29편으로 학위 논문은 없고, 모두 연구 논문들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2021년의 32편보다는 다소 적지만, 2020년 16편, 2019년 10편, 2018년 4편에 비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우리 학계가 점점 근현대 철학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 특히 현대 한국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문제를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2022년도 근현대 중국철학의 연구 성과를 보면, 지난해와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강유위·호적 그리고 웅십력·모종삼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새로운 인물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주검지, 탕용동, 장신부 및 한성구의 ‘효’, 정종모의 ‘극기복례’와 같은 신선한 연구주제를 볼 수 있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2022년도의 성과를 보기 위해 저자별로 연구성과를 나열하겠다. 29편의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지연	장태엽의 공교(孔敎)론 비판	『인문사회21』 제13권6호	인문사회21
2	강지연	조자신(趙紫宸) 사상의 근대 정신적 특성 연구	『인문사회21』 제13권5호	인문사회21
3	김 결	당대신유가 당군의 유가 인문주의 윤리관 연구	『철학탐구』제68집	중앙대 철학연구소
4	김연재	문화철학의 차원에서 본 朱謙之의 唯情철학과 文化空間說 - 민족주의적 발전사관에 착안하여-	『中國學報』제99집	한국중국학회
5	김연재	중국 근대의 진화론적 시계(視界)에서 본 대승 현생적(大乘現生的) 세계와 인간정토(人間淨土)의 경계	『불교학및교학연구』 제1호	한국밀교학회
6	김영진	湯用彤의 위진학학 연구에서 보이는 체용론 사유와 스피노자 內在因 개념의 상관성에 관한 試論	『중국학보』 제101집	한국중국학회
7	김제란	현대신유학(現代新儒學)에 나타난 유학 불교 융합의 방식들 -옹십력·당군의 모종삼 3인의 철학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8	김주성	牟宗三의 중국 근대성 논의에 대한 고찰 -良知自我坎陷論을 통한 도덕주체의 과학적 인식은 가능한 것인가?-	『哲學論考』 제5집	단국대 철학연구소
9	김현주	신문화운동의 공자 혐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문사회21』 제13권1호	인문사회21
10	김현주	양계초 사회진화론과 니체사상	『니체연구』 제41집	한국니체학회
11	박진우	괘말약의 목자관 비판-괘말약의 『십비판서』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100집	대동철학회
12	윤지원	지식과 예술의 文化哲學-朱謙之의 지식문화철학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7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13	윤지원	胡適의 문화철학연구-동·서문화관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65집	단국대 일본연구소
14	이남주	쑨원 민생주의에 대한 일고찰 -공상인가, 중국식 사회주의인가-	『분석과 대안』 제6집 3호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15	이병인	장지동(張之洞)의 국가 중간 구상과 문화 전환 -『권학편』을 중심으로-	『청람사학』 제36집	청람사학회
16	이연도	강유위의 순자학: '소강' 단계의 도덕과 욕망	『중국학논총』 제73집	한국중국문화학회
17	이영란	량치차오(梁啓超) 도덕적 상상과 근대 담론	『한중인문학연구』 76	한중인문학회
18	이진명	미일부(馬一浮) 유학사상에서 이기론과 수양론의 상호관계성 문제	『中國研究』 제92권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19	이진명	오우(吳宓)의 반공비유(反孔非儒) 사상이 지닌 득실 분석	『한국철학논집』 제7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	이한결	두아천(杜亞泉)과 진독수(陳獨秀) 논쟁의 검토	『中國近現代史研究』 제96집	중국근현대사학회
21	전홍석	장선푸(張申府)의 철학사상: '변증종합문화관-삼류하일사상-중국발화의 원천과 트랜스모던 지식모델	『한중관계연구』 제8권 1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22	전홍석	주첸즈(周謙之)의 생명주의형 문화학에 관한 소고	『양명학』 제64호	한국양명학회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문화학적 재창안		
23	정상봉	모우중싼의 양지감함론에 대한 논고	『중국학보』 제101집	한국중국학회
24	정종모	현대유학에서 ‘극기복례(克己復禮)’ 해석논쟁과 그 의미 - 하병체와 두유명의 논쟁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65집	중앙대 철학연구소
25	지관순	5·4 新文化運動期 『亞洲學術』派의 再儒化 시도	『중국학보』 제102집	한국중국학회
26	한성구	중국 근대시기 효 비판담론의 전개와 사상적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7집	한국유교학회
27	한성구	중국 근대 불학 부흥의 원인과 철학사적 의의	『중국학논총』 제7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8	한지연	1940년대 말 胡適 자유주의의 실천적 함의	『한국어문논역총간』 제5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9	한지연	후스(胡適) 사상의 실천 전략 및 그 한계 -‘전반서화’와 ‘관용’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100집	중국학연구회

위의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구 대상인 인물과 주제들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다채로운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특정한 주제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주제별 분류를 생략하고, 인물별로 분류해서 살펴보겠다.

##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는 16명의 학자와 기타 주제를 포함해 모두 17개로 구성된다. 인물별 분류는 연구성과의 다소(多少)에 따라 배열했다.

### 1) 호적(胡適: 1891-1962)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지원	胡適의 문화철학연구-동·서문화관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65집	단국대 일본연구소
2	한지연	1940년대 말 胡適 자유주의의 실천적 함의	『한국어문논역총간』 제5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3	한지연	후스(胡適) 사상의 실천 전략 및 그 한계 -‘전반서화’와 ‘관용’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100집	중국학연구회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호적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존 듀이에게 실

용주의를 사사(師事)하였고, 이후에 젊은 나이로 북경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당시 문과대학장인 진독수와 『신청년』 잡지에 참여하며 백화운동 등 계몽운동에 힘쓴다. 아울러 진독수와 함께 과현논전의 과학주의 노선에 서서 서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전반서화파의 선구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실용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통문화를 정리하고 새로운 글쓰기 방법으로 『중국철학사대강(中國哲學史大綱)』(1919)을 서술했다.

호적은 중국 최초의 ‘자유주의자’ 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륙과 대만의 장개석 정부에서도 끝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했다. 북경 대학교 총장과 대만의 중앙연구원 원장을 맡을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다.

국내에 일찍이 호적의 철학사가 『중국고대철학사』(1962)라는 이름으로 번역·출간되어 많이 알려졌으며, 민두기 교수의 『중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실험-호적의 사상과 활동-』(1996)이라는 저술이 출판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이처럼 호적은 국내 학술계에 매우 익숙한 인물로서 그에 관한 연구도 매년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2021년 3편, 2020년 2편, 2019년 4편, 1918년 2편, 2017년 1편 등의 연구성과가 있다.

## 2) 주겸지(周謙之: 1899-1972)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연재	문화철학의 차원에서 본 朱謙之의 唯情철학과 文化空間說 - 민족주의적 발전사관에 착안하여-	『中國學報』 제99집	한국중국학회
2	윤지원	지식과 예술의 文化哲學 -朱謙之의 지식문화철학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7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3	전홍석	주첸즈(周謙之)의 생명주의형 문화학에 관한 소고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문화학적 재창안-	『양명학』 제64호	한국양명학회

주겸지는 우리에게 그리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을 통해 철학을 공부했고, 아울러 역사학자로도 이름을 날리는 학자이다. 그는 중산대학교를 거쳐 북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주겸지 선생을 소개한 사람은 전홍석 선생이다. 전홍석 선생은 특별히 문화

철학에 정통한 주검지의 주저 『문화철학』을 번역 출간했고(2007년), 아울러 주검지의 매우 흥미로운 저작인 『중국사상이 유럽문화에 끼친 영향』을 번역 출간(2019년)하기도 했다. 더구나 전 선생은 주검지 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주검지의 문화철학 연구』(2006)와 『주첸즈의 문화사상』(2019)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전 선생은 그야말로 국내 학계에 주검지 철학을 알린 일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헌으로 우리 학계의 동양철학 연구 지평을 도덕철학 중심에서 문화철학으로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2022년에는 3편의 주검지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3) 모종삼(牟宗三: 1909-1995)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제란	현대신유학(現代新儒學)에 나타난 유학·불교 융합의 방식들-웅십력·당군의·모종삼 3인의 철학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2	김주성	牟宗三의 중국 근대성 논의에 대한 고찰 -良知自我坎陷論을 통한 도덕주체의 과학적 인식은 가능한 것인가?-	『哲學論考』 제5집	단국대 철학연구소
3	정상봉	모우쥔싼의 양자감함론에 대한 논고	『중국학보』 제101집	한국중국학회

모종삼은 명실상부한 현대 신유학의 대표 학자이다. 그는 웅십력의 애제자로서 스승의 학문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웅십력은 그의 저명한 세 제자(당군의·서복관·모종삼)의 활약으로 인해 ‘현대 신유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운동이 일어나고, 그 명성이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모종삼은 칸트를 중심으로 삼아 유학을 재해석함으로써 중국 유학의 ‘철학성’을 제고하였다.

국내의 모종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80여 편에 이르며, 근래에는 이전보다 그다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021년 2편, 2020년에는 1편, 2019년 1편, 2018년 1편, 2017년 2편이 있다. 그의 저작은 모종삼 자신의 키보다 높게 쌓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작으로 뽑을

수 있는 『심체와 성체』가 국내에 완역되어 출간되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책들이 번역·출간되었다.

#### 4) 양계초(梁啓超: 1873-1929)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현주	양계초 사회진화론과 니체사상	『니체연구』 제41집	한국니체학회
2	이영란	량치차오(梁啓超) 도덕적 상상과 근대 담론	『한중인문학연구』 76	한중인문학회

근대 중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양계초는 강유위의 제자로서 변법자강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 명성과 영향이 컸던 정치혁명가이자 철학자이다. 그의 스승인 강유위의 ‘세계주의’와 달리 ‘국가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이 낙후된 원인은 혈연에 의한 ‘부민(部民)’ 단계에 머물러 국가의식이 없기 때문이며, “국민(國民) ‘으로 거듭나야 근대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신민(新民) ‘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신민설(新民說)』뿐만 아니라, 근대 중국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이 있다.

또한 양계초는 박은식 등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가 서술한 『조선망국사략(朝鮮亡國史略)』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대학술개론』·『중국근삼백년학술사』 등은 청대 철학을 연구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공헌과 영향에 비해 국내의 연구성과는 그다지 많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국내 성과에는 2021년 2편, 2020년 4편, 2019년 2편, 2018년 2편, 2017년 6편이 있다.

#### 5) 장태염(章太炎: 1868-1936)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지연	장태염의 공교(孔敎) 비판	『인문사회21』 제13권6호	인문사회21

장태염은 청말 민초의 학자이자 혁명가이다. 그는 강유위·양계초 등의 개혁 운동에 참가했으며, 손문과 함께 혁명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에 정치 활동을 그만두고 국학의 연구와 계승에 전념하여 학문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노신과 전현동(錢玄同) 등이 그의 제자들이다. 장자의 『제물론』 해석 및 유학·불교 방면의 여러 연구 업적이 있다. 국내에서 그다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1편, 2018년 1편, 2017년 1편의 성과가 있을 뿐이다. 근래에 장태염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강지연 선생이 주목을 끈다.

### 6) 조자신(趙紫宸: 1888-1978)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지연	조자신(趙紫宸) 사상의 근대 정신적 특성 연구	『인문사회21』 제13권5호	인문사회21

조자신은 우리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학자이다. 중국에서는 드물게 그는 세례를 받은 기독교 신도인 동시에 저명한 종교학자이다. 1914년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동오대학과 연경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쳤다. 기독교와 관련된 많은 저작이 있고, 문화대혁명 기간에 가혹한 박해를 받아 1978년에 별세했다. 아마도 국내의 철학 분야에서 조자신에 관한 연구 논문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여겨진다. 앞으로 좀 더 새로운 인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연구 지평을 넓히기를 기대한다.

### 7) 두아천(杜亞泉: 1873-1933)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한걸	두아천(杜亞泉)과 진독수(陳獨秀) 논쟁의 검토	『中國近現代史研究』 제96집	중국근현대사학회

위의 논문은 두아천과 진독수의 동서문화논쟁에 관한 연구이다. 진독수는 잘 알려진 인물로서 이대조와 함께 1921년 중국공산당을 창립한 맑시스트이다. 그러나 맑시스트 이전에 진독수는 서구 문명에 대한 전반서화파(全

盤西化派)로서 과학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북경대학교 문과대학장으로 초빙되어 5·4 신문화운동을 주도했으며, 호적(胡適)과 함께 『신청년』 잡지를 통해 백화운동 등 계몽운동에 온 몸을 던진 지식인이며, 이후 자유주의로 나간 호적과는 길을 달리해 사회주의로 나갔다. 또한 과현논전에서 호적과 함께 과학주의를 대표하였다. 진독수는 아마도 중국 근대화 혁명에 참가한 인물 중에서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모택동 등 사회주의자들에게 수정주의라고 탄압을 받았지만, 두 아들도 사회주의 혁명에 희생됐듯이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는데 일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근래에 복권되어 중국에서도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의 저작은 여러 연설문과 잡지에 실은 글들을 모은 『독수문존(獨秀文存)』이 있다. 중국에는 진독수에 관한 연구가 매우 성행하고 있다.

반면에 두아전은 국내에 그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수학·화학·동식물학 등 과학연구에 전념한 학자로서 많은 과학서적을 번역 소개하였다. 신문화운동 이후에 진독수 등 전반서화론자에 반대하여 동서문화의 조화를 강조하여 동서문화의 차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성질을 문제라고 주장하여 진독수와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 이한결 선생의 이 연구도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여는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여겨진다.

## 8) 마일부(馬一浮: 1883-1967)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진명	마일부(馬一浮) 유학사상에서 이기론과 수양론의 상호관계성 문제	『中國研究』 제92권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마일부는 철학과 문학에 정통한 학자이며 시인이고 서예가이다. 영어·불어·독어·일본어·스페인어·라틴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으며, 20세 되던 해에 미국을 방문해 세인트루이스에 머물며 도서관과 서점을 학교 삼아 아리스토텔레스·헤겔·다윈 등 서구의 사상과 문학에 심취했다. 이후 독일 문학에 매료돼 독일로 갔으며 거기서 칼 맑스의 『자본론』을 일고 탄복했다고 한다. 1905년 귀국하며 가져온 『자본론』을 중국에 처음 소개했다.



마일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며 학문 연구에 전념했다.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현대신유학을 양수명·옹신평과 함께 창립한 인물로 전해진다. 그는 중국문화의 근본정신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맹자·유왕심학을 중시하는 양수명·옹신평과 같은 입장으로서 현대신유학의 근본정신이 되었다. 하지만 양수명과 옹신평에 비해 국내에는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다만 요즘 천병돈 선생 등에 의해 국내에 소개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의 저서로는 『복성서원강록(復性書院講錄)』이 있다.

### 9) 강유위(康有爲: 1858-1927)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연도	강유위의 순자학: '소강' 단계의 도덕과 욕망	『중국학논총』 제73집	한국중국문화학회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대동서』라는 이상 사회론을 제기한 강유위는 철학과 정치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중국의 선각자이다.

강유위에 관한 연구 업적은 2021년의 4편을 포함해 2020년 6편, 2019년 6편, 2018년 4편, 2017년 10편으로 매우 많다. 이러한 많은 연구는 아마도 그의 저작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과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10) 장지동(張之洞: 1837-1909)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병인	장지동(張之洞)의 국가 종건 구상과 문화 전환 - 『권학편』을 중심으로 -	『청람사학』 제36집	청람사학회

장지동은 아편전쟁 이후 첫 번째 개혁 운동인 양무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중국문화를 중심으로 삼고 서양문화의 우수한 점을 수용해야 한다는 ‘중체서용’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다. 이 주장은 이후에 커다

란 영향을 끼쳤고 전반서화과와 대립하는 동방문화과와 현대 신유학의 기본 입장이 되었다. 국내에는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 11) 당군의(唐君毅: 1909-1978)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결	당대신유학 당군의의 유가 인문주의 윤리관 연구	『철학탐구』 제68집	중앙대철학연구소

당군의는 모종삼·서복관과 함께 현대 신유학의 개창자인 웅십력의 3대 제자이다. 그들은 홍콩과 대만에서 활동하여 웅십력의 학문을 전파하였으며 현대신유학이 세계적인 학문이 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당군의는 중국문화의 정신은 인문정신이 이것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현대신유학의 임무라고 여겼다. 모종삼과 서복관에 비해 학문적 성과가 빨라 이미 40대에 중국철학 전반에 관한 저술과 연구를 종결지었다고 하듯이 연구성과가 엄청 많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모종삼이 중국철학 방면의 학문성공을 이루는데 당군의의 영향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당군의 선생이 이미 이루어 놓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심화된 연구성과를 낸 것이 모종삼의 업적이라고 말 할 수 있을 듯 하다. 그에 대해 국내 연구는 간간히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

### 12) 탕용동(湯用彤: 1893-1964)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영진	湯用彤의 위진 현학 연구에서 보이는 체용론 사유와 스피노자 內在因 개념의 상관성에 관한 試論	『중국학보』 제101집	한국중국학회

탕용동은 일찍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 공부를 하였으며, 현대중국학술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중·서·인 철학을 융합한 학자라고 평가된다. 그는 특히 중국의 위진현학과 중국불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

할을 했으며, 커다란 업적도 이루었다. 즉, 『漢魏兩晉南北朝佛敎史』·『印度哲學史略』·『魏晉玄學論考』가 바로 그것이다. 그의 학문을 계승해 연구한 전 북경대 철학과 교수인 탕일개(湯一介)가 아들이다. 국내에는 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 13) 장신부(張申府: 1893-1986)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전홍석	장신부(張申府)의 철학사상: '변증종합문화관-삼류하일사상-중국발화의 원천과 트랜스모던 지식모델	『한중관계연구』 제8권 1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장신부는 학자이자 진독수와 함께 중국공산당을 창립한 인물이다. 그의 학문은 매우 드물게 수리철학에 심취하여 러셀의 철학을 연구하고 소개했다. 아울러 비트겐슈타인의 저작을 번역해 중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학문 경향은 풍우란·김악림과 같은 부류로 나뉜다. 모종삼 선생이 북경대 철학과 학부 시절에 장신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국내에는 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

### 14) 손문(孫文: 1866-1925)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남주	쑨원 민생주의에 대한 일고찰 : 공상인가, 중국식 사회주의인가	『분석과 대안』 제6집 3호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1911년 신해혁명을 주도하고 중화민국을 창설한 손문은 삼민주의로 유명하고 대만과 중국에서 모두 존중받는 혁명가이다.

국내에선 위의 논문과 같이 조소앙 선생의 삼군주의를 삼민주의와 비교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근래에는 2021년 1편, 2018년에만 4편의 연구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15) 곽말약(郭沫若: 1892-1978)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진우	곽말약의 목자관 비판 -곽말약의 『십비판서』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100집	대동철학회

곽말약의 학문은 역사학·고고학·문학·철학 등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고고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으며, 문학 방면에서는 노신과의 논쟁이 유명하다. 철학에 있어서는 『십비판서』가 유명하다. 곽말약은 일본 유학 중에 사회주의 이론에 접하게 되고 결국 중국공산당의 중추인물 겸 이론가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자유주의 중국권에선 매우 기피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문학이나 역사학에서는 간혹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철학에서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16) 오우(吳虞: 1872-1949)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진명	오우(吳虞)의 반공비유(反孔非儒) 사상이 지닌 특실 분석	『한국철학논집』 제7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오우는 일찍이 중국전통학문을 익히다가 무술병법 이후에 서양의 사회정치이론에 매료되어 일본의 법정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했다. 그는 신문화운동 기간에 유교를 비판하는 여러 글을 써서 반전통주의자가 되었다. 즉 『가족제도는 전제주의의 근원이다』, 『사람 잡는 유교』 등을 발표했다. 이런 까닭에 호적은 그를 “쌍수를 들어 공자의 유교를 때려잡는 영웅이다.” 라고 일컬었다. 이러한 오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7) 기타 : 6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연재	중국 근대의 진화론적 시계(視界)에서 본 대승 현생적(大乘現生的) 세계와 인간정토(人間淨土) 의 경계	『불교학밀교학연구』 제1호	한국밀교학회

2	김현주	신문화운동의 공자 혐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문사회21』 제13권1호	인문사회21
3	정종모	현대유학에서 ‘극기복례(克己復禮)’ 해석논쟁과 그 의미 - 허병체와 두유명의 논쟁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65집	중앙대철학연구소
4	지관순	5·4 新文化運動期 『亞洲學術』派의 再儒化 시도	『중국학보』 제102집	한국중국학회
5	한성구	중국 근대시기 효 비판담론의 전개와 사상적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7집	한국유교학회
6	한성구	중국 근대 불학 부흥의 원인과 철학사적 의의	『중국학논총』 제7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2년도의 연구성과에서 주목을 끄는 논문이 있다. 예컨대, ‘효’ 담론과 근대에서 불교가 부흥한 원인, 즉 신학(新學)의 부흥, 그리고 공자의 ‘극기복례’에 관해서 벌어진 논쟁에 관한 논문들이다. 사실, 어떤 특정 인물에 관한 연구보다 특정한 이론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이 좀 더 어렵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과거의 특정 이론이나 주장을 현대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2022년에 발표된 근·현대 중국 유학에 관련된 29편의 논문을 인물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29편의 논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선택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겠다.

### 3.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29편의 연구성과 중에서 철학적으로 이론적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지는 논문을 선별해서 살펴보겠다.

#### 1) 정상봉, 「모우쥙싼의 양지감함론에 대한 논고」

이 논문은 모중삼의 철학 체계인 도덕형이상학에서 그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인 양지자아감함론(良知自我坎陷論)에 대해 연구한 글이다. 국내

및 국외에서도 이 주제로 쓴 논문들이 비교적 많다. 왜냐하면 이 자아감합론이 모종삼 도덕형이상학 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문의 특징은 양지감합론의 구조를 독일관념론으로 설명하는데 있다. 사실, 모종삼은 칸트철학에 의해 중국철학을 해석하고 또 그것에 의해 자신의 이론체계를 형성했지만, 칸트 이후의 관념론, 특히 피히테나 헤겔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이를 간과하고 칸트에 의해서만 모종삼의 체계를 해석하려 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자신의 논문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모우쑹싼은 유학이 민주와 과학의 지평을 열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양지감합론을 제기하였다. 양지감합론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동안의 독일철학에 그 이론적 연원이 닿아 있다. 독일 관념 철학을 대표하던 피히테 셸링 헤겔은 각각 삼위일체(三位一體)를 논하였는데, 모우쑹싼은 그 가운데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계시종교(啓示宗教)를 논하면서 성부에서 성자로의 육화(肉化)는 다름 아닌 성부의 육화(肉化)이며 성자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성령에로의 복귀라고 한데서 착안하여 양지감합론을 제기하였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위격이 일체됨을 설명하면서 특히 성부에서 성자로 스스로를 떨어뜨리는, 즉 자기감합의 결단을 내리는 점에 주목하여 양지감합론을 정립하였다. 이것은 도덕이성이 이론이성으로 전화하는 것이며, 도덕심(道德心)이 인식심(認識心)으로 바뀌는 것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또다시 감합의 자기부정을 통하여 자신에게로 회귀를 한다. 실제 모우쑹싼의 중국철학에 대한 설명은 전체적으로 그 분석틀이 주관적이다. 그러다 보니 학계의 반응도 다양하다. 아마 앞으로도 모우쑹싼의 학문세계에 대한 이해, 특히 그의 양지감합론과 그에 대한 평가는 지속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우선 모우쑹싼의 학문세계에 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를 한 뒤 그다음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물론 전통 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다각적인 접근도 새롭게 시도해야 한다.” 이 논문은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에 있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완성된 연구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 2) 이진명, 「마일부(馬一浮) 유학사상에서 이기론과 수양론의 상호관계성 문제」

마일부는 중국의 정신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의리를 드러내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듯이 맹자나 육왕심학(心學)을 계승·발전시킨 현대신유학의 개창자이다. 그는 양수명·옹십력과 함께 전통에 근거해 서양의 우수한 점을 수용하자는 입장을 견지한다. 우리 학계는 양수명과 옹십력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마일부에 대해선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논문의 목적이 마일부(馬一浮, 1883-1967)의 철학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마일부가 중국 근대 신유학의 국사(國師)로 알려져 있고, 그의 사상은 이기론(理氣論)과 수양론(修養論)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그 특색이 있다. 즉, 그는 역대 유가 사상을 하나씩 검토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경계를 구조화시켰다. 나아가 육예(六藝)를 통해서 유불선을 회통시키며, 지식과 수양,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마일부의 의론은 깊이가 있으며, 현대 유학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국내에는 마일부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다. 그 이유로, 첫째 마일부 사상이 난해성을 손꼽을 수 있다. 둘째, 동시대 사상가인 옹십력이나 양수명에 비해, 마일부는 은둔자의 삶을 살았고, 중국에서도 연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마일부는 중국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마일부 사상의 전반적 내용을 검토한 후 이기론과 수양론의 종합되어 가는 논리적 구조의 모습을 조망하였다.

필자도 밝혔듯이, 중요한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가 미진하다. 이 방면의 연구는 아마도 천병돈 선생이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필자의 연구를 시발점으로 앞으로 마일부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 3) 이남주, 「쑨원 민생주의에 대한 일고찰: 공상인가, 중국식 사회주의인가」

이 논문의 목적은 손문 삼민주의에 있어서 민생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제조명하고, 그것이 사회주의적 실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민생주의 형성과정 및 그 핵심 강령, 평균지권과 절제자본의 내용을 분석했다. 중국에서 민생주의는 오랫동안 주관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로 폄하되어 왔다. 그러나 민생주의는 사회주의의 중국화의 가장 선구적이고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자본주의적 방법을 사회주의 건설에 활용한다는 접근법은 개혁개방 시기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핵심 내용을 앞서서 포착한 것이다. 그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도 민생주의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 이론과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민생주의를 평가하는 방식은 이론적 사유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필자는 근대, 즉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적응과 극복의 두 과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이중과제론의 문제의식이 민생주의의 현재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나 인류사회의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 논문은 손문 삼민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민생주의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오늘날 대만이나 중국에서 모두 손문을 국부로 삼고, 그의 삼민주의를 계승한다고 하는데, 이 논문은 어느 것이 손문의 본뜻인지 다시 한번 음미해 볼 기회를 주고 있다.

### 4) 정종모, 「현대유학에서 ‘극기복례(克己復禮)’ 해석논쟁과 그 의미-하병체와 두유명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초반 중화권에서 전개된 ‘극기복례(克己復禮)’ 해석논쟁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피는데 있다. 이 논쟁은 저명한 역사학자 하병체(何炳棣)가 현대신유가 진영에 속하는 두유명(杜維明)의 극기복례 해석을 비판하면서 촉발되었다. 두유명은 수신(修身)과 자아 완성의 각도에서 공자의 극기 개념을 이해한다. 반면에 하병체는 주체의 억압이나 통제 의미의 농후한 금욕주의의 맥락에서 극기를 해석하고, 또한 복례 역시 전장제도로서의 주례(周禮) 회복이 핵심이라고 판단한다. 하병체의 비판에 대해 유술선(劉述先)이 두유명을 옹호하며 반론을 펼쳤으며, 훗날 두유명이 자신의 관점을 정리한 저술을 출간함으로써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이 논쟁은 마치 대리전을 방불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철학, 특히 주자철학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 논쟁과 유사하게 역사학자인 전목과 모종삼의 갈등이 있다. 공교롭게도 하병체는 전목 계통의 학자이고, 두유명과 유술선은 모종삼의 애제자들이다.

무엇보다 이 논쟁은 『논어』의 훈고학적 해석 문제를 넘어서 있다. 다시 말해, 유학의 핵심인 인(仁)과 예(禮)의 의미 및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을 둘러싸고 역사학자와 철학자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이는 실증주의 방법론과 해석학적 방법론의 충돌을 함축하는데, 특히 홍콩과 대만의 현대 신유가 노선이 중시하는 창조적 해석학 방법론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하병체의 비판에 대한 두유명과 유술선의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현대신유학 진영의 유학 이해와 연구방법론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살피고, 이를 통해 최근 중화권에서 대두하고 있는 유가의 인학(仁學) 연구의 배경과 맥락에 접근하는 실마리로 삼고자 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아마도 유학의 현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전적 유학의 핵심 문제를 현재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동양철학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철학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 삶을 위한 것이듯, 철학뿐만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는 데도 항상 ‘현재’ 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4.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2022년도 국내에서 발표된 근·현대 중국 유학에 관련된 29편의 논문을 인물별로 정리하고 4편의 논문을 선택해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특기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근래에 근·현대 중국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다양한 대상과 주제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동양철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2022년도 연구에 있어서도 조자신·주검지·탕용동·장신부·곽말약·오우·두아천 등 새로운 인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근·현대 연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가 많은 부분 비철학전공자, 즉 문학이나 역사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중국학에 있어서 문·사·철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철학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철학의 영역에 가까운 것은 철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보다 많은 철학 연구자들의 근·현대 중국 철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해 본다.

제6장

**한국성리학 연구**

배제성(성균관대학교) · 유한성(성균관대학교)

##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유교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 검토 범위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한국성리학 관련 학술지 논문으로 총 77편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연구 현황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다음, 몇 편의 주요 논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동일한 논문이 복수(複數)의 인물이나 주제에 관련될 경우에는 관련된 목록 모두에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이황(李滉, 退溪 1501-1570)에 관한 논문이 13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논문의 약 16.9%에 해당한다. 그 뒤를 이어서 율곡 이이(李珣, 栗谷 1536-1584)에 관한 논문은 8편으로 전체 논문의 10.4%를 차지하였다. 둘을 합친 비중은 약 27%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년도의 32% 보다는 조금 작았다. 이처럼 이이와 이황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양상은 본 레포트 분석이 동일한 규모로 처음 시행된 2016년 이래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양상들도 발견된다. 먼저 2017년까지 이황에 관한 연구는 이이에 비해서도 두 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황과 이이 사이의 차이는 2018년부터 감소하여 2019년에는 오히려 이이가 근소하게 앞서고, 2020년에는 오히려 이이가 크게 앞서는 결과(17 대 6)가 나왔다. 그와 동시에 전체 목록에서 이황과 이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26%까지 감소하였다. 뒤이은 2021년 조사에서는 다시 이황의 연구 비중이 상승하면서 동수를 이루었으며, 이황·이이 연구 비율도 약 32%로 다소 상승하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다시 이황에 관한 연구가 이이에 관한 연구보다 상당히 더 많은 결과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올해 인물별 분류에서 보인 특징적인 경향

은 이황과 이이를 제외하면 눈에 띄 정도로 여러 편이 발표된 학자들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의 보고에서는 매년 그 면면은 달라졌을 지라도 5-7편 정도로 많이 연구된 인물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중에서도 전우나 한원진과 같은 인물은 비교적 자주 포함되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런 경우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한원진과 전우가 각각 3편으로 비교적 많았고, 김창협, 임성주 등이 각각 2편씩 연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성리학 연구가 조선 후기로 확장되는 가운데, 이황과 이이와 같은 특정 학자로 연구가 집중되었던 중기 연구와 달리, 후기의 연구는 논의가 심화되고 확장되는 맥락이나 그 쟁점을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부합하는지는 추후의 연구 동향을 계속 살펴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1) 퇴계 이황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상호	주자서절요의 편찬이 퇴계학 성립에 미친 영향	『국학연구』 49	한국국학진흥원
2	김종백	퇴계 이황 신수시에 나타난 기상론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55	한국동양예술학회
3	최다은	퇴계 立人極의 서예미	『동양예술』 57	한국동양예술학회
4	장윤수	『주자서절요』와 퇴계학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5	박근섭	박종홍의 퇴계학 연구 비판 - 양호론과 교육자론의 식민성	『孔子學』 46	한국공자학회
6	안동렬	퇴계의 교육론에서 지식교육의 기능	『교육철학』 96	한국교육철학회
7	조민환	퇴계 이황의 ‘肥遯’ 지향적 삶의 의미	『양명학연구』 67	한국양명학회
8	남경한	『傳習錄論辯』에 담긴 퇴계의 문제의식	『退溪學報』 152	퇴계학 연구원
9	박순남	退溪學派의 『小學釋義』 一考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0	이치역	수신(修身)에서 수신(守身)으로 - 퇴계 수양론에서 지킴[守]의 위상과 그 현대적 의의-	『퇴계학논집』 32	원남퇴계학연구원
11	장윤수	퇴계 이황과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의 『西銘』 담론	『退溪學報』 151	퇴계학 연구원
12	정대진	조선 시대 『심경(心經)』 연구의 흐름과 분기(分岐) - 제왕학적 계기와 심학적 계기의 구별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5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3	정도희	퇴계 이황의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 해석 변천과정 연구	『한국학』 45(4)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년 발표된 퇴계 관련 논문은 13편으로 작년(15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경향은 전통적으로 퇴계 관련 연구의 최대 이슈를 이루었던 사단칠정논쟁이나 이기호발설에 초점을 둔 논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나마 정도희의 「퇴계 이황의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 해석 변천 과정 연구」 정도가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보일 뿐, 나머지 연구들은 미학, 교육, 소학, 수양론, 심경, 서명 등 다양한 주제로 산재되어 있다. 남경한은 조선 성리학의 양명학 비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퇴계 이황의 「전습록논변」을 중심으로 퇴계의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드러내었다. 이치역은 ‘수(守)’ 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퇴계 수양론의 의의를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를 하였다. 정대진은 『심경』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제왕학적 계기’ 와 ‘심학적 계기’ 를 구분하여 조망하는 시도를 하였다. 장운수 역시 「서명」이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황 등 성리학자들의 사상과 관점을 드러내었다.

## 2) 율곡 이이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 혁	왕도정치에 대한 이이와 정약용의 차별적 이해	『율곡학연구』 51	(사)율곡연구원
2	정연수	율곡의 사회정치사상에 관한 북한의 선행연구 비판적 고찰	『율곡학연구』 51	(사)율곡연구원
3	안승우	율곡 이이의 죽음 철학	『유교사상문화연구』 90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4	손흥철 박용석	君子の 길과 栗谷李珥의 삶 - 『戴禮管見』 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51	(사)율곡연구원
5	이영경	율곡의 기질변화 수양법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6	김남균 김신경	율곡의 공부론을 통한 의학교육에서의 프로페셔널리즘 가치에 대한 고찰	『율곡학연구』 52	(사)율곡연구원
7	안유경	맹자의 기론(氣論)과 율곡 성리학의 연관성 고찰	『한국학』 45(4)	한국학중앙연구원
8	정강길	理先氣後와 理生氣에 대한 새로운 해석 - 理의 두 성격과 <시간적 선재설>의 가능성 모색	『율곡학연구』 52	(사)율곡연구원

2016년 이래 모든 조사에서 이이와 이황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편수가 많지만, 그 연구 분포를 보면 일관된 차이점도 있다. 그것은 이이에 관한 논문

가운데에는 유독 경세론 관련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 조사에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8편 가운데 경세론에 해당할 만한 연구는 김혁의 연구와 정연수의 연구 정도이다. 나머지는 수양론, 교육론, 이기론 등 여러 가지 주제가 고루 섞여 있다. 세부 주제로 보면, 율곡에 관한 북한의 선행 연구를 고찰한 정연수의 연구가 이목을 끈다. 이기론에 관한 논의로는, 정강길의 연구가 리의 논리적 선재성이라는 학계의 통설과 달리 시간적 선재설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 연구가 눈에 띈다. 안승우는 율곡 이이의 죽음 철학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주제로 연구를 발표하였다. 김남균과 김선경의 연구는 율곡의 공부론을 의학교육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 3) 남당 한원진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배제성	한원진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통해 본 물(物)의 형이상학과 윤리학	『철학』 152	한국철학회
2	나종현	18세기 초반 호론계 배사론(背師論)의 전개	『韓國思想史學』 70	한국사상사학회
3	홍성민	경위(經緯)의 논리와 리(理)의 실현방식-농암 김창협과 남당 한원진의 리기사찰론(理氣四七論) 재조명	『儒學研究』 6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황과 이이를 제외하면 다수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인물을 찾기 어렵고, 그나마 한원진과 전우가 3편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나종현의 논문은 18세기 초반 호론계 배사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 논문으로 한원진이라는 인물 자체에 집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요하게 다루어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포함시켰다. 배제성의 연구는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에 대해 새로운 각도의 해석을 제안하였고, 홍성민의 연구는 경위의 논리라고 하는 성리학자들의 논의 틀을 중심으로 김창협과 한원진의 이기론과 사찰론을 재조명하였다.

### 4) 간재 전우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재식	艮齋田愚의 『明儒學案』 독해 양상과 그 성향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선연구원
2	주광호	艮齋 太極說의 범주환원적 문제 - 朱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哲學研究』 165	대한철학회
3	김근호	후창 김택술(金澤述)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간재 전우는 조선 말기의 성리학자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인물 중의 하나이며, 2022년에도 3편이 발표되었다. 세 편 모두 각각 특징이 있는데, 신재식의 연구는 『명유학안』이라고 하는 문헌을 중심으로 전우의 독해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고찰하였다. 주광호는 태극에 대한 간재의 관점을 ‘범주환원적 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것이 당대의 성리학계의 쟁점 및 논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김근호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간재의 문인인 후창 김택술에 관한 연구이지만 전우의 성리설과의 연속성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므로 전우에 관련된 연구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그 외 2편씩 연구된 인물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해임	김창협 『논어집주』 해설 특징 연구 - 『동유논어해집평(東儒論語解集評)』을 중심으로-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2	홍성민	경위(經緯)의 논리와 리(理)의 실현방식- 농암 김창협과 남당 한원진의 리기사칠론(理氣四七論) 재조명-	『儒學研究』 6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유지웅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 천설(天說)의 학계 평가와 실천적 해석	『동서철학연구』 106	한국동서철학회
4	이상익	農山 申得求의 『天人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을곡학연구』 51	(사)을곡연구원
5	박제균	영조의 효치사상연구 -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7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6	이해임	영조대 『맹자』 경연의 정황과 맹자에 대한 인식 고찰	『동양철학』 58	한국동양철학회
7	김문준	녹문 임성주의 이기심성론에 대한 도학적 이해	『을곡학연구』 51	(사)을곡연구원
8	안유경	녹문 임성주의 心論 고찰	『퇴계학논집』 32	영남퇴계학연구원



9	송치욱	동계 정온의 정치활동과 의(義)의 정치사상적 의미	『남명학연구』 7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0	구진성	동계 정온의 문인과 남명학맥의 전승	『남명학연구』 7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1	이영숙	晦峯 河謙鑰의 남명학 계승양상	『남명학연구』 7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2	김낙진	河謙 鑰心無對說의 의미	『남명학연구』 7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위에 제시된 것처럼, 김창협, 신득구, 영조, 임성주, 정온, 하겸진 등이 각각 2편의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인물들이다. 김창협에 관해서는 사철론이라는 이론적 쟁점과 더불어 『논어집주』에 관한 해설이라는 경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신득구에 관해서는 ‘천(天)’에 관한 그의 관점을 다룬 연구가 2편 발표되었다. 한편, 조선의 군왕인 영조를 비중 있게 다룬 논문도 박제균과 이해임이 각각 1편씩 발표하였다. 김문준과 안유경은 각각 임성주의 이기심성론을 다룬 논문을 1편씩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동계 정온의 정치사상과 학맥에 관해서, 그리고 하겸진의 심성론과 학맥에 관하여 2편씩 논문이 발표되었다.

### 3. 주제별 분류

이기론과 심성론이 성리학 이론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이에 관한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기·심성론에 대한 논문은 총 34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4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의 57%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2019년(37%)이나 2020년(43%)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 이기심성론은 성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고 여타의 다른 응용이나 실천적 측면 또한 어느 정도는 이에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범주 구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관점 차이나 매년도 별의 연구 동향에 따른 변동은 있을지라도 이기심성론의 높은 비중이 아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은 수양론 및 교육론으로 총 11편으로 14.3% 비중이다. 이는 2021년에 비해서는 수적(16

편)으로나 비중(18%)으로나 조금 감소한 수치이다. 경세론 관련 논문은 10편으로 편수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1편이 늘었고, 비중 또한 13.0%로 조금 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논문들이 22편으로 전년도의 14편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고, 그 비율 또한 28.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기심성론의 고정적인 높은 비율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이기심성론의 높은 비중이 전통적인 연구 범주와 방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기타 비중의 증가는 그에 잘 부합하지 않는 연구 동향의 다변화 또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앞으로 어떤 추이로 변화되어 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이기론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배제성	인물성동이논쟁을 통해 본 노사(蘆沙)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의 쟁점과 함의-	『동양철학』 57	한국동양철학회
2	홍성민	경위(經緯)의 논리와 리(理)의 실현방식-농암 김장협과 남당 한원진의 리기사칠론(理氣四七論) 재조명-	『儒學研究』 6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안유경	맹자의 기론(氣論)과 을곡 성리학의 연관성 고찰	『한국학』 45(4)	한국학중앙연구원
4	정강길	理先氣後와 理生氣에 대한 새로운 해석 - 理의 두 성격과 <시간적선재설>의 가능성 모색-	『을곡학연구』 52	(사)을곡연구원
5	정강길	作用因과 目的因으로서의 理 이해 - 理의 두 원인적 성격의 다스림-	『퇴계학논집』 32	영남퇴계학연구원
6	이종우	각일기성(各一其性)에 관한 을곡 만년정론 논쟁 - 이현의 대 권상하·한원진의 논쟁-	『퇴계학논집』 32	영남퇴계학연구원
7	정도희	퇴계 이황의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해석 변천과정 연구	『한국학』 45(4)	한국학중앙연구원
8	주광호	良齋 太極說의 범주환원적 문제 - 朱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哲學研究』 165	대한철학회
9	김형찬	退溪 李滉의 理自到說에 대한 연구 - 인식과정에서 마음의 역할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152	퇴계학연구원

이기론에 대한 논문은 9편으로 전년도(14편)와 그 이전 해(5편)의 중간 정도의 편수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기론과 심성론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서, 이기론과 심성론을 합한 전체의 편수와 비율이 더 중요하다.

이기론과 심성론을 합한 이기심성론의 편수로 보면 2021년의 51편에 비해서 2022년에는 34편으로 2020년의 39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이황에 대한 연구가 2편인 것을 제외하면 여러 주제와 인물로 분화된 모습이다. 기정진, 김창협, 한원진, 이이, 이현익, 전우 등의 인물이 다루어졌고, 정강길은 이기론 자체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한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이기론 범주에서는 이황과 이이에 대한 연구의 편중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있다.

## 2) 심성론

2022년 목록에 포함된 심성론 관련 논문은 총 25편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편이 줄었다. 그 전체 목록은 아래와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병목	여호 박달주의 인심도심설 고찰 -율곡·포음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儒學研究』6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유지웅	백수(白水) 양응수(楊應秀)의 성리설과 18세기 낙론계에서의 반향(反響)	『儒學研究』6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유지웅	도암 이재의 성리설 연구 -호락논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양명학연구』 67	한국양명학회
4	이종우	미발과 그 공부에 관한 정조와 정약용의 문답 연구-호락논쟁과 관련하여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5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 및 그것에 관한 호락학자들의 논쟁	『열상고전연구』 76	열상고전연구회
6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의 미발과 정(靜)의 관계 및 그 공부	『온지논총』 73	온지학회
7	배제성	한원진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통해 본 물(物)의 형이상학과 윤리학	『철학』 152	한국철학회
8	이상익	조선말기 心說論爭의 성격과 의의	『退溪學報』 151	퇴계학연구원
9	이상익	雪岳權玉鉉의 性理思想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0	김근호	후창 김택술(金澤述)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11	전성건	구봉 송익필 심론의 합리성과 적의성에 대한 연 구	『儒學研究』6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박학래	鳳樓 俞莘煥의 未發論 연구	『율곡학연구』 51	(사)율곡연구원
13	김문준	녹문 임성주의 이기심성론에 대한 도학적 이해	『율곡학연구』 51	(사)율곡연구원
14	안유경	녹문 임성주의 心論 고찰	『퇴계학논집』32	영남퇴계학연구

				원
15	김낙진	河謙 鑛心無對說의 의미	『남명학연구』 7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6	유지웅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 천설(天說)의 학계 평가와 실천적 해석	『동서철학연구』 106	한국동서철학회
17	이상익	農山 申得求의 『天人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을곡학연구』 51	(사)을곡연구원
18	이영호	퇴계학(退溪學) 혹은 학퇴계(學退溪)의 사이	『孔子學』 48	한국공자학회
19	배제성	화서 이항로의 선악관과 역사의식 -역사적 주제 형성의 성리학적 기획-	『철학』150	한국철학회
20	장운수	퇴계 이항과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西銘」 담론	『退溪學報』 151	퇴계학 연구원
21	정대진	조선시대 『심경(心經)』 연구의 흐름과 분기 (分岐)-제왕학적 계기와 심학적 계기의 구별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5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2	김세진	張載의 氣質變化를 통한 天人合一 修養論	『을곡학연구』 51	(사)을곡연구원
23	선병삼	탁사 최병헌의 유교 변증이론 고찰 - 『성산명경』 과 『만중일련』 을 중심으로-	『을곡학연구』 51	(사)을곡연구원
24	유영	주자학심성론과 예학의 관계 고찰Ⅱ -조선전기 및 중기의 심계념논의를 통해 본 예학회귀사조의 원인 분석-	『退溪學報』 152	퇴계학 연구원
25	이재복	성호학파의 공철정담론에 대한 인지주의적 접 근	『철학논집』70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22년 심성론 연구 목록에서 두드러지는 한 가지 특징은 사단칠정·인심도심에 관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호 박필주의 인심도심설을 다룬 김병목의 연구 정도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양상은 이기론까지 범위를 확장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김창협과 한원진의 사칠이기론을 다룬 홍성민의 연구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사단칠정·인심도심에 관한 연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전 조사의 동향을 보면 사단칠정·인심도심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예외 없이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주제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이전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적어졌지만, (심성론 범주 기준으로) 각각 5편과 8편으로 여전히 많은 편이었다. 이는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가 집적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다른 주제로 옮겨 간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런 동향이 이후에도 지속되는지는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서 호락논쟁에 관련된 연구는 전년도의 4편보다 조금 더 많은 6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유지웅은 도암 이재와 백수 양응수를 다루었고, 이종우는 특정 인물보다는 쟁점이나 이슈가 논의

된 맥락과 양상을 다룬 3편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배제성은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런데 호락논쟁의 연구 동향을 보면, 실제의 양상은 상당히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한원진과 이간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것은 배제성 정도이고, 유지웅은 후대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여 사상사적 맥락과 인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종우 또한 지속적으로 당대 학술계의 논의를 폭 넓게 조망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한 연구에서는 정조와 정약용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에 많은 연구가 축적된 한원진과 이간에 관한 연구 동력은 떨어졌지만, 이후의 전개 양상으로 관심이 확장되면서 호락논쟁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심설논쟁에 관한 연구는 이상익의 「조선말기 心說論爭의 성격과 의의」 한 편만이 조사되었다. 심설논쟁에 관한 연구는 2019-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4-6편 정도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에 비해서 2022년에는 상당히 감소한 셈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집중적인 논의로 심설논쟁의 쟁점과 진행 양상 등이 상당히 해명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연구 동향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심성론 연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특정 인물의 성리설을 종합적으로, 혹은 주제적으로 조망하는 논문들이다. 김택술, 신득구, 임성주 등의 면면이 보인다.

### 3) 수양론 및 교육론

2022년에 게재된 수양론 및 교육론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균섭	박종홍의 퇴계학 연구 비판 -양호론과 교육자론의 식민성-	『孔子學』 46	한국공자학회
2	안동렬	퇴계의 교육론에서 지식교육의 기능	『교육철학』 96	한국교육철학회
3	김낙진	남명 조식의 신명사도·명과 심법	『동양고전연구』 74	동양고전학회
4	조민환	퇴계이황의 '肥遯' 지향적 삶의 의미	『양명학연구』 67	한국양명학회
5	이영경	율곡의 기질변화 수양법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6	남경한	『傳習錄論辯』에 담긴 퇴계의 문제의식	『退溪學報』 152	퇴계학 연구원
7	천은복	성리학적 수행론-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9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8	이선경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위공직자로서의 황희	『儒學研究』 6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김남균 김선경	율곡의 공부론을 통한 의학교육에서의 프로페셔널리즘 가치에 대한 고찰	『율곡학연구』 52	(사)율곡연구원
10	박순남	退溪學派의 『小學釋義』 一考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1	이지역	수신(修身)에서 수신(守身)으로 - 퇴계 수양론에서 지킴(守)의 위상과 그 현대적 의의-	『퇴계학논집』 32	영남퇴계학연구원

수양론 및 교육론에서는 총 12편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인물별로 보면 퇴계와 관련된 연구가 총 6편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율곡 관련 연구가 2편이다. 황희와 같이 평소 성리학 관련 논문에서 보기 어려웠던 인물도 눈에 띈다. 해가 지날수록 수양론과 교육론 관련 논문들은 개념적 이해보다는 실제 삶에서의 의미나 교육적 효용성을 주로 다루는 논문들로 비중이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천은복의 「성리학적 수행론: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을 중심으로」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 4) 경세론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경현	조선시대 경연에서 『서경』 「우공」 편강독의 의미	『孔子學』 48	한국공자학회
2	송치욱	동계정온의 정치활동과의(義)의 정치사상적 의미	『남명학연구』 7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	강보승	Land Reform in the Realization of a Confucian Ideal: The Debate among Neo-Confucian Scholars in the Mid-Chosŏn Period	『Acta Koreana』 22(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4	박제균	영조의 효치사상연구 -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7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5	김현우	조선중기유교 “문명”의 세속화정책 - 『신증동국여지승람』 효자·열녀기술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8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6	박제균	정조의 군사론(君師論)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8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7	강경현	조선시대經筵에서 『尙書』 강독의 의미 - 조선전기경연자료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51	퇴계학 연구원

8	나중현	18세기초반 호른계 배사론(背師論)의 전개	『韓國思想史學』 70	한국사상사학회
9	정상봉	정주(程朱)의 충서론(忠恕論)과 당대 신유가의 해석	『태동고전연구』5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0	김혁	왕도정치에 대한 이이와 정약옹의 차별적 이해	『울곡학연구』 51	(사)울곡연구원
11	정연수	울곡의 사회정치사상에 관한 복한의 선행연구 비판적 고찰	『울곡학연구』 51	(사)울곡연구원

경세론 관련 연구는 총 11편으로 인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주제와 인물들이 다뤄지고 있다. 또 경세론이라는 주제를 점차 확장적으로 인식하면서 단순한 정치사상 이외에도 ‘열녀·효자’와 같은 시대상을 반영한 연구까지 시도되면서 탐구의 지평이 점차 더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명응을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정조에 대해 연구한 박제균의 논문은 정조가 어떠한 관점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복고를 실현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연구라서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다.

## 5) 기타

여러 다양한 주제로 엮은 기타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보였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지은	柳健休 『東儒論語解集評』에 나타난 조선유학사의 특징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2	이해임	김창협 『논어집주』 해설 특징 연구-『동유논어해집평(東儒論語解集評)』을 중심으로-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3	전성건	대산 이상정의 『중용』 해석과성리설의 이해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4	이상호	주자서필요의 편찬이 퇴계학 성립에 미친 영향	『국학연구』 49	한국국학진흥원
5	김성희	老柏軒 鄭載圭의 독서법 유형과그 지향	『남명학연구』 73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6	구진성	동계 정온의 문인과 남명 학맥의 전승	『남명학연구』 7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7	이영숙	晦峯 河謙嶺의 남명학 계승 양상	『남명학연구』 7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8	서원혁	조선 중기 금강문화권 예학의 전개와 특징	『동서철학연구』 106	한국동서철학회
9	김종백	퇴계 이항 신수시에 나타난 기상론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55	한국동양예술학회

10	최다은	퇴계 立人極의 서예미	『동양예술』 57	한국동양예술학회
11	박학래	호남유학연구에 대한 검토와 전망	『동양철학』 57	한국동양철학회
12	신혜연	‘유형원의 실리론’ 분석 - 실리의 강조는 ‘주리’적 사유로의 轉回인가-	『동양철학』 57	한국동양철학회
13	이해임	영조대 ‘맹자’ 경연의 정확과 맹자에 대한 인식 고찰	『동양철학』 58	한국동양철학회
14	이원진	농암(龔巖)의 경천(敬天)사상 - 聖俗間 거리두기를 위한 자연의 재발견-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15	김선희	성호학에서 사칠론의 한 분기 - 신후담에서 이병휴까지-	『동양철학연구』 109	동양철학연구회
16	안승우	율곡 이이의 죽음철학	『유교사상문화연구』 90	한국유교학회 (유교문화연구소)
17	김경호	고봉과 퇴계의 교유에 대한 성찰 - 존경과 신뢰의 감성적 기제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52	퇴계학연구원
18	김세리아	조선시대 여성 규훈서의 분노감정 이해 - 『자경편』의 자기배려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38	한국여성철학회
19	손흥철 박용석	君子的 길과 栗谷 李珥의 삶 - 『戴禮管見』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51	(사)율곡연구원
20	유정은	율곡의 「경포대부」에 숨겨진 신사임당의 사상 연구	『율곡학연구』 52	(사)율곡연구원
21	장운수	『주자서절요』와 퇴계학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2	신재식	良齋 田愚의 『明儒學案』 독해양상과 그성향	『退溪學論叢』 41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기타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은 총 22편으로 기존 사단철정과 같은 심성론 관련 논문들만큼 많은 양의 결과물이 산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주제 및 연구 방법론도 상당히 다양하기에 분류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지는 의문이다. 다만 김경호의 「고봉과 퇴계의 교유에 대한성찰- 존경과 신뢰의 감성적 기제를 중심으로-」, 안승우의 「율곡 이이의 죽음철학」과 같은 연구들같이 성리학적 논쟁이나 개념을 넘어서 학자 개인의 관점에서 나눴던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의 접근법은 주목할 만하다. 많은 성리학 논문들이 개념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작 이러한 개념을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학자 본인에게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루는 논문들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 1) 정강길, 「理先氣後와 理生氣에 대한 새로운 해석-理의 두 성격과 ‘시간적 선재설’의 가능성 모색」

이 논문의 목적은 명확하다. 주희가 수립한 성리학 이기론의 이기선후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공유되는 통념과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자학의 이기론은 그것이 성리학 이론에서 가지는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고 원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논의의 축을 이루는 이기관계의 큰 축은 양자는 서로 결코 떨어질 수 없이 붙어있으면서도, 결코 서로 섞이지도 않는다는 ‘이기불리부잡’이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러한 이기론을 실질적인 이원론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리(理)로 귀결되는 일원론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같은 철학적 문제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토론되어 왔다. 아울러, 저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기선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리와 기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를 논할 수는 없지만, 존재론적 위계에서 리가 기보다 더 근본적인 지위에 있음을 뜻하는 논리적 선후로는 해석가능하며, 리가 기에 앞선다는 주자의 언설 또한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sup>1)</sup> 사실 저자도 이러한 해석이 그 자체로 타당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시간적 선재성’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주희의 이기론 체계에서 성립함을 보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설명이 상당히 난해한 편이다.

우선, 저자가 제안하는 설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구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에 의해서 세계 안에 단 한 번이라도 이미 발현된 적이 있었던 理”와 “단 한 번도 아직 발현된 적이 없는 미발현의 理<sup>2)</sup>”라는 구분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는 주자학에서 기(氣)는 장재가 주장

---

1) 저자는 이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를 명시하고 있다. (165쪽)

2) 162쪽.

한 것처럼 영원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기(氣)가 소멸되게 되면, 그렇게 사라지는 기와 달리 그 안에 있던 리(理)는 세계에 하나의 “결”로 남게 된다. 그리고 것처럼 “결”로 남은 리는 더 이상 이 세계의 주체는 아닌, 객체로만 남게 된 “과거로서의 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로서의 “결”인 리는 새롭게 생성되는 기의 원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게 된다. 사실 이 때, 과거로서의 리가 새로운 기를 생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가령, 한 마리의 소가 과거의 어느 때에 살다 죽었다고 하자. 지금 그의 손자뻘 되는 소가 한 마리의 새끼를 또 낳았다. 여기서 새끼를 낳는 소는 지금 살아있는 소인 것 같다. 이미 죽어버린 소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다면 과거에 다른 어떤 사건(이를 테면 지금 새끼를 낳은 소의 어미를 낳음)의 원인이었기 때문이지, 지금에 ‘과거로서의 리’가 되어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과거로서의 리’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저자의 취지를 나름대로 추론해 보자면,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거칠게 말해서 어느 한 사건의 발생은 “직전까지의 총체적인 과거 세계”를 배경으로, 그것을 토대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과거의 총체를 ‘과거로서의 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과거의 총체가 현재의 사건에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곧 ‘리의 선재’로 치환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것이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보면, 그 사건은 리와 기가 결합된 소산이었을 것이다. 한편, 현재의 상황으로 말하면 (저자의 입장을 따르면) 기는 없어졌지만, 리 또한 현재로서 실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의 결로 남아 있다. 그래서 후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혹, 그 과거의 ‘결’이라는 것이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른 추가적인 설명 없이는 이처럼 인식적이고 정신적인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생성이라는 인과적 사건을 곧장 일으킨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 한 가지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느껴지는 점은 ‘리선기후’ 라고 하는 말이 논의되는 맥락과 범위의 문제이다. ‘리선기후’ 가 ‘일원론’ 이나 ‘이원론’ 과 같은 용어와 더불어 논의되는 까닭은 그 검토의 기본적인 동기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가장 궁극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떤 경우라도 기가 없이 홀로 선행하는 리가 결코 없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면, 기존의 설명은 그대로 잘 작동한다. 그런데 저자가 제시하는 설명의 맥락은 이와는 다소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 그것은 거칠게 말하면 가령, 현상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아직 생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내재한 리에 근거하여 그것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여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의 설명이라면 기존의 이해에서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혹은, ‘기의 생성’ 이라고 하는 지점에 초점을 둔다면, 어떤 국면에서는 “리가 기를 생성”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은 전통의 성리학자들도 인정하는 만큼 그 구체적인 의미는 질문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어쨌거나 그 때의 리 역시 결코 기 없이 존재한 적은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에만 초점을 둔다면 기존의 설명과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저자가 해석하고 있는 범위와 맥락으로도 ‘리선기후’ 의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어쩌면 저자의 논의와 기존 학자들의 논의에는 생각보다 차이는 작고 접점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문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기에 의해서 세계 안에 단 한 번이라도 이미 발현된 적이 있었던 理” 와 “단 한 번도 아직 발현된 적이 없는 미발현의 理” 라는 구분이 성리학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저자도 논문의 어느 한 부분에서 순환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지만, 성리학의 리가 우주론적으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방식은 사계절의 순환이다. 그러한 시공간의 일정한 질서 안에서 만물은 그 나름의 리에 따라 태어나고 살아간다. 인간 또한 나름대로 주어진 고정된 본성과 소임이 있기에 일정한 도리인 인의예지신의 오상을 자신의 소명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틀에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미발현의 리” 와

“발현된 적이 한 번 이라도 있는 리” 라는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리 자체가 창조적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정도의 더 역동적인 세계관에 더 적절한 이해 방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이러한 방식으로 리(理)의 의미를 풀어내는 것은 이전의 성리학자들과는 다르게,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적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가장 큰 의문을 느끼게 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

우선, 저자가 현대적인 관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이기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 또는 우주론에 대해 새로운 해석적 지평을 정밀하게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는 일종의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이것은 성리학을 오늘날의 철학으로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부분이 이 논문에 대해서 가장 아쉽고 또 궁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기론을 현대에도 실제로 기능하는 형이상학을 정초하고자 함인가? 그렇다면 그 때의 이기론은 여전히 성리학적 기반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성리학적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현대화 된 형이상학으로서 이기론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건은 무엇인가? 가령, 그것은 현대의 물리학이나 우주론과 양립하면서 여전히 전통적인 수양론이나 본성론과 긴밀하게 결부될 것인가? 요컨대, 그러한 형이상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출발점에 대한 나름의 대답이 전제된다면, 독자의 입장에서조차 저자가 공들여 제시하고 있는 정교한 설명과 재해석을 따라가며 이해하기 위해 애쓰기 위한 동기를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자의 이후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해본다.

## 2) 유지웅, 「백수(白水) 양응수(楊應秀)의 성리설과 18세기 낙론계에서의 반향(反響)」

이 논문은 도암 이재의 대표적인 문인 중 한 명인 백수 양응수의 성리설을 호락논쟁의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도암 이재는 농암 김창협·삼연 김창흡의 뒤를 이어 낙학을 이끈 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의 성리설이나 호락논쟁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에 관해서는 충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서, 백수 양응수의 경우, 그는 당대 도암 문하 및 학계에서 큰 명망을 가졌던 인물이지만 현대 학계에서 양응수에 관한 연구는 도암 이재에 비해서도 훨씬 미비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성리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양응수의 인지도는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선행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백수 양응수의 이론과 당대 학술계 내에서 그의 역할에 관한 설명은 상당한 심도와 풍부함을 겸비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고 논쟁한 이론적 쟁점이 당대의 학술계 정황과 맞물려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호락논쟁이라고 하는 당대의 학술적 지형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부분은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김창협·김창흡-도암 이재-미호 김원행-근재 박윤원-매산 홍직필-고산 임헌희 등으로 이어지는 낙학계 종장의 계보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 과정에서 호락논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도암 이재 학단에서 호락논쟁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역동적인 논쟁의 과정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한 논쟁의 주체가 당대 도암 문하를 함께 대표한 백수 양응수와 겸재 박성원이었고, 그 논쟁의 수준도 매우 격렬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흥미롭다. 낙학계의 이론적 입장이 확립되는 과정이 상당히 역동적이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이론적 쟁점으로 양응수가 주장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심유이기(心有二氣)’, 즉 ‘심에 두 가지 기가 있다 [심은 두 개의 기로 구성된다]’ 라는 키워드는 호락논쟁의 쟁점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한원진과 이간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호락논쟁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 한층 더 넓은 범위와 시각에서 호

락논쟁을 탐구하는 연구가 본격화 되었고, 그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된다.

### 3) 안유경, 「맹자의 기론(氣論)과 율곡 성리학의 연관성 고찰」

이 논문은 “율곡의 성리학에서 기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고, 그것이 맹자의 기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관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맹자와 성리학 사이에는 복합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리학자들 스스로 주장하듯 양자는 어떤 취지에서 대단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가 놓인 긴 시대적 차이만큼이나, 그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으리라는 생각 또한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한편, 조선 성리학은 조선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며 그 나름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만들어 나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 걸음 또 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조선 성리학자들의 주장에 담긴 철학적 함의를 가능한 한 넓고 깊은 범위로 탐구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더 넓은 차원의 유학적 지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맹자와 율곡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이 논문의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구체적인 접점은 기(氣)라는 키워드에 있다. ‘이통기국’ 과 ‘기발리승일도’, ‘리무위, 기유위’ 와 같은 주장으로 대표되는 율곡의 학설에서 기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그는 선(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에 부합하는 기(氣)의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들에 주목하는데,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본연지기’, ‘담일청허지기’, ‘담연청허지기’ 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한편, 맹자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키워지는 ‘호연지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호연지기 또한 우리가 바람직한 기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율곡이 강조하는 내용들과 연결점이 있다. 저자의 표현을 빌면, ‘담일청허지기’는

“ ‘호연지기’ 처럼 맑고 깨끗한 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연결점 안에서 저자가 율곡과 맹자를 비교해 나가는 초점은 이기론·심성론·수양론의 종합적 이해에 기반한 비교이다. 동시에, 『맹자』에서 제시된 기에 대한 다양한 설명 또한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맹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① ‘지(志)’ 에 대비된 ‘기(氣)’, ②밤에 보존되어[ ‘야기’ ] 이른 새벽에 드러난다는 ‘평단지기’, ③ ‘호연지기’ 등이다. 저자는 이 중에서 ①은 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다루고, ②에 대해서는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맑고 깨끗한 기를 잘 길러야 함을 드러내며, ③에 대해서는 호연지기를 잘 길러서 본연의 마음을 회복해야 함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이것들은 모두 맑고 깨끗한 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율곡이 말하는 본연지기·담일청허지기·담연청허지기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한편, 율곡에 대해서 저자는 우선 율곡 이기심성론의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그에 기반하여 리의 실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연지기와 같은 개념이 부각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그 연장선에서 수양론 또한 맑은 기를 중시하게 되며, 그에 따라 호연지기·담일청허지기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해 나간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맹자가 ‘호연지기’ 를 잘 보존하여 본연의 선한 마음을 회복하려 했던 것처럼, 율곡도 호연지기·담일청허지기·담연청허지기를 회복하여 본연의 선한 본성을 온전히 구현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 정리한다.

이러한 일련의 설명에서 저자는 율곡 학설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본연지기의 중요성과 역할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힘입어서 맹자와의 공통점을 추출한 방식 또한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러한 비교의 과정에서 더 탐구될 수 있는 흥미로운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아쉬움은 없지 않다. 가령, 맹자의 논의에서 평단지기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기를 말한다면, 호연지기는 적극적인 도덕적 실천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이다. 그렇다면 이 양자의 의미에는 상당한 차이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양자의 취지와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

의된다면 맹자의 기론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수양론적 함의가 좀 더 풍부해 질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율곡과의 비교점으로서 공통의 준거에 집중한 것은 이 논문의 취지 상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좀 더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는 함의들이 거의 여러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맑음’ 만으로 설명되어 버린 점은 다소 아쉽다. 다른 각도에서, 동일하게 맑은 기로 규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호연지기’ 와 ‘담일청허지기’ 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강조점 또한 조금은 달라 보인다. 그렇다면 그 의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면, 결과적으로 맹자와 율곡 사이의 비교 또한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4) 정연수, 「율곡의 사회정치사상에 관한 북한의 선행연구 비판적 고찰」

이 글은 장기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율곡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상호보완을 이룰지를 모색하고자 쓰여진 글이다. 때문에 저자는 북한학계가 율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을 저술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던 것이며, 이에 글 자체는 연구사 정리의 형식으로 쓰여질 수 밖에 없었다.

먼저 저자는 북한 연구자들에 대한 일반론적인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다. 사실 율곡에 관련된 북한 연구의 이미지라면 대부분 리기론에 대해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물론 저자 또한 그러한 면이 없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율곡의 사회정치사상에 대한 북한의 접근은 이러한 편견과 달리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논증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율곡의 사회정치사상에 대해 북한학계는 ‘정치’ 와 ‘사회’ 라는 두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본(民本)’ 과 ‘인정(仁政)’, ‘왕도정치(王道政治)’ 라는 측면에서 율곡의 정치사상을,



그리고 ‘변법(變法)’ 과 ‘경세(經世)’, ‘교육(教育)’ 이라는 부분에서 사회사상으로 다루고 있음을 주장한다. 먼저 저자는 정치사상에 관련하여 북한학계는 율곡이 백성을 위하고 임금을 비판한다는 점을 높게 사면서도 여전히 지배계급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는 목적으로 귀결되기에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하고 있음을 서술했다. 특히 인정과 민본을 강조한 율곡의 주장에 대해 정치 행위의 목적을 백성의 안위로 상정하면서 계급구조 자체는 건들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받고 있음을 논문에서 보이고 있다.

반면 저자는 ‘변법’ 특히 ‘인재등용’ 루트는 ‘과거(科擧)’ 로 일원화하는 점, 그리고 ‘수미법(收米法)’ 을 통해 조세 납부과정에서 중간착취의 가능성을 차단한 점을 근거로 율곡의 사회 및 경제 사상에 대해서는 호평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재미난 것은 「성학집요」 등의 텍스트를 통해 북한학계가 율곡의 논법을 마치 변증법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율곡이 제도의 개선을 논할 때 먼저 경전을 언급하고 이후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사례를 거론하고 그것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을 비추어본다면, 이를 ‘정반합’ 구조로 인식하는 북한 학계의 특성은 나름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 광복 이전에 교육이란 주제로 율곡의 사상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 논문을 통해 생각해볼 북한 학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치사상을 논할 때 지배계급의 합리화로 사용되는 ‘성인(聖人)’ 이란 개념이 교육학에서는 누구나 수양을 통해 도달해야할 인간상이라는 다른 의미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북한학계를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일방적이고 일원적으로 볼 수 없음을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다양한 학계에서 율곡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각 분야의 연구성과가 지닌 장단점 또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율곡의 ‘성인도통(聖人道統)’ 을 인식하는 북한학계의 정치사상 이해는 율곡의 텍스트가 지니는 수양론적 의미를 간과한 것임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득권 지배구조 유지로 ‘인정’ 과 ‘민본’

을 다루는 것은 조선 사대부들의 시대 인식을 지나치게 현대적 관점으로 편협하게 비판하는 것이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럼에도 저자는 아주 이른 시기인 1960년대 이미 율곡의 경제사상을 북한학계가 일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율곡·우계에서 성호·반계·다산에 이르기까지 사상사적 맥락에 입각해 경제정책을 이해하고 있는 북한 경제학계의 연구방식은 분명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일천즉천(一賤則賤)’ 즉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제도에서 급증한 노비의 수에 관해 율곡은 ‘종모법(從母法)’을 주장하는 점을 북한은 주목했었다. 어머니가 노비일 경우에 노비 신분을 이어받는다는 종모법은 노비와 양인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개혁이기에 율곡의 실천적인 개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꼭지라고 할 수 있다. 또 율곡 교육론이 지나치게 행동 규제적인 면이 강하고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법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는 북한의 시각 또한 지나치게 철학에 경도되어 구체적인 교수법 및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국의 그것과 비교해볼 만한 지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저자가 목표로 한 한국과 북한의 상호보완을 이룰 수 있는 조각들을 위 논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다만 논문 자체가 연구사 정리에 가깝기 때문에 참고한 문헌을 함께 읽어야 하고 직관적으로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임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논문의 접근성이 마냥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주제에 대한 개별 논문이 추가로 나와야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가 명확히 논증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추가 연구로 이 논문의 완성도가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 5) 이영경, 「율곡의 기질변화 수양법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다음은 율곡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를 다뤄보고자 한다. 앞서 정연수의

논문을 통해서 북한 학계는 율곡의 교육사상이 가진 단점 즉 실제적인 교수법의 부재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 글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율곡 교육론이 어느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지 확인해보자 한다.

저자는 율곡의 ‘기질변화(氣質變化)’를 통해 유교윤리가 가진 교육론적 의미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전개했다.

우선 기질이 윤리학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다루며 윤리적 성찰에서 기질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의 탁박(濁駁)·편색(偏塞)이 마음 속 리를 가리고 있음을 설명하고 기질변화가 필요함을 논증했다. 그리고 지통(至通)·지정(至正)한 기를 품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기와 기질변화의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서 기질변화의 목표가 선(善)과 중(中)임을 밝히며 유학이 추구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는 상황에 적절함인 설명했다. 또 기질변화의 실천 방법으로 ‘극기(克己)’와 ‘양기(養氣)’를 제시하고 이것이 가진 교육론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

극기와 양기는 각각 기를 극복하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상반된 두 방향으로서의 수양론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기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를 합리화시키고자 한다. 즉 탁박하고 편벽된 기도 있지만 양심이나 야기(夜氣)라는 측면에서 기를 논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특히 강(剛), 유(柔), 엄(嚴), 급(急)과 같은 성격적인 요소로 기를 파악하고 이를 다스리는 것으로서의 극기를 설명했다. 또 양기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극대화하는 수양으로서 설명하며 호연지기를 기름이 인간에 내재한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명 기질변화를 양기와 극기로 나누고 그것이 인간 도덕성 실현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이 글의 시도는 윤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자가 지식 확장과 해석에 머문다고 비판했던 기존의 연구와 얼마나 많은 차별점을 지니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분명 극기를 기질적 양상으로 인해 형성된 성격적인 특성을

성찰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저자는 나름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려 한 듯하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논의하는 기질적 성향이나 성격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논의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앞서 북한학계가 지적한 것처럼 본 연구 또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그저 ‘울곡 수양론 다시 읽어보기’에 그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힘들 상황이다. 그저 생활 속 지혜의 일종으로 머물고 있는 유교 수양론이 언제까지 교육이론으로 논의되고 발전할 수 있을지 필자는 의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몇몇 텍스트에서 따온 개념적인 서술보다는 생활적 측면에 입각한 울곡의 어록들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한다. 스승으로서, 인간으로서 울곡이 자신이 처한 윤리 및 교육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교육론 연구에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6) 안승우, 「울곡 이이의 죽음 철학」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와 울곡의 사생관을 엮고자 하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신선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기존의 성리학 논문들이 개념적 정의와 분석에 치중한 반면 이 논문은 삶의 문제로서 유학을 받아들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유학이라는 주제는 이러한 실존적 문제에 과연 얼마나 밀접한지를 심도 있게 논증하는 것이 이 논문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살신성인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관점의 서술을 벗어나 ‘죽음 철학’이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는 제목은 그러한 기대감을 상당히 유발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저자의 문제의식은 다른 부분에서 시작된다.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한 인간 울곡이 본인의 이론 체계 속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리와 기, 정기, 혼백과 같은 개념적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이는 본론 첫 부분인 ‘존재의 소멸로서 죽음의 의미와 본질적인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저자는 죽음은 누구나 두려운 것임을 전제로 삼고 율곡은 도체와 의리를 인식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도체와 의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사로움을 극복하면서 당위성을 획득하는 도덕적 행위가 가진 숭고함과 더불어서 그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잘 그려내고 있다.

이어서 리와 기를 영속적인 것과 가변적인 것으로 구분하면서 기의 취산(聚散)을 인간의 비본질적인 죽음으로 그리고 리를 인간의 영원함으로 상정하고 있다. 저자는 율곡이 인간의 죽음을 지각의 소멸이자 기의 흩어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사를 통한 조상과의 감응은 기가 아닌 조상과 자손이 같은 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감응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각의 소멸은 누구나 겪는 것이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실심(實心)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음 목차에서는 기가 비록 비본질적이지만 죽음 이전에는 기가 수양의 대상으로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저자는 기가 분명 죽음 이후에 흩어지지만 살아 생전에는 어떠한 기를 기르고 쌓아 왔는지도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호연지기와 진원지기를 제시하며 올바른 기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과 다른 생명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감수성이 작용하고 확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의 장점은 아주 명확하다. 자칫 개념적 규정에 천착해 이해되고 있는 리와 기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삶과 관계 맺으며 그것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리와 기가 모여서 나를 이루고 있음을 단순히 ‘A+B=C’ 라는 명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죽음에 있어서 리와 기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 이나

‘공기’와 같은 수준의 생활용어였던 리와 기라는 용어가 철학적인 개념으로 발전해가고, 나아가서 그러한 측면에만 경도된 인식을 가질 경우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환기시켜준다. 때문에 이 용어를 일상과 학문 모두에 통용했던 당시의 학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가졌을 만한 실존적·감정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러한 삶의 한 부분으로서 리와 기의 의미를 포괄적이면서도 풍부하게 이해하기에는 저자가 인용한 전거들이 다소 협소해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주로 「성학집요」와 「사생귀신책」, 그리고 극소량의 어록들에 의거해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에 율곡이 가진 생각을 도출해내고 있다. 율곡으로부터 조금 더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길어와서 그로부터 더 절실한 해석을 이끌어 낼 수는 없었을까? 물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율곡이 언급한 내용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남겨진 율곡의 문헌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리 공정한 평가가 아닐 것이다. 사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전거들은 단순히 따져 보아도 율곡이 남긴 문헌 중에서 결코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더구나 진지한 이론적·사상적 담론으로 범위를 줄인다면 더더욱 그렇다. 사실 율곡 문집 전체를 살펴보아도 생각보다 이론적인 진술을 많이 남긴 편이 아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 정말로 율곡이 이러한 문제를 절실한 삶의 문제로 여겼다면 왜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많이 그러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과 아쉬움을 남기는 면도 없지 않다.

상술한 측면들은 저자의 의미 있는 문제의식과 시도에 대한 긍정과 더불어 성리학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남기는 것 같다. 저자와 같은 문제의식의 필요성을 오늘날 더욱 절감하게 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원 소재로서의 통로와 단서를 찾아보면,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협소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단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정한 문제의식과 마음에 닿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는 더 과감한 해석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점점

더 오늘날의 우리 삶과 괴리되어 가는 성리학적 담론의 생명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2022년 한국 성리학 관련 연구 전체 동향 및 주요논문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이이와 이황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양상은 본 레포트 분석이 동일한 규모로 처음 시행된 2016년 이래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양상들도 발견된다. 먼저 2017년까지 이황에 관한 연구는 이이에 비해서도 두 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황과 이이 사이의 차이는 2018년부터 감소하여 2019년에는 오히려 이이가 근소하게 앞서고, 2020년에는 오히려 이이가 크게 앞서는 결과(17 대 6)가 나왔다. 그와 동시에 전체 목록에서 이황과 이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26%까지 감소하였다. 뒤이은 2021년 조사에서는 다시 이황의 연구 비중이 상승하면서 동수를 이루었으며, 이황·이이 연구 비율도 약 32%로 다소 상승하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다시 이황에 관한 연구가 이이에 관한 연구보다 상당히 더 많은 결과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올해 인물별 분류에서 보인 특징적인 경향은 이황과 이이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정도로 여러 편이 발표된 학자들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성리학 연구가 조선 후기로 확장되는 가운데, 이황과 이이와 같은 특정 학자로 연구가 집중되었던 중기 연구와 달리, 후기의 연구는 논의가 심화되고 확장되는 맥락이나 그 쟁점을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에 부합하는지는 추후의 연구 동향을 계속 살펴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별 양상을 보면, 이기·심성론에 대한 논문은 총 34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4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의 57%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

지만, 2019년(37%)이나 2020년(43%)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 이기심성론은 성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고 여타의 다른 응용이나 실천적 측면 또한 어느 정도는 이에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범주 구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관점 차이나 매년도 별의 연구 동향에 따른 변동은 있을지라도 이기심성론의 높은 비중이 아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은 수양론 및 교육론(14.3%), 경세론(13.0%) 순이었고,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논문들이 22편으로 그 비중(28.6%)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이기심성론의 고정적인 높은 비율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이기심성론의 높은 비중이 전통적인 연구 범주와 방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기타 비중의 증가는 그에 잘 부합하지 않는 연구 동향의 다변화 또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앞으로 어떤 추이로 변화되어 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몇 년 간의 성리학 연구 현황을 보면 연구의 초점이 조선 후기로 이행하면서 연구 주제나 인물 또한 다변화되고 있는 양상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에서 지면의 한계 상 일일이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려웠지만 새로운 방법론과 수준 높은 논의를 보여준 연구도 여러 편 있었다. 연구의 다변화와 질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간다면 성리학 연구의 발전과 심화 또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될 것이다.



제7장

## 한국양명학 연구

선병삼(승실대학교)

# 1. 머리말

본 내용은 2022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 26개, 유교학 4개, 인문학 4개, 중국어와 문학 1개이다. 아울러 1편의 박사 논문(진함, 『정제두(鄭齊斗) 심학(心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 조사되었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양명학>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 12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인물별(주제별) 분류에 따른 해당 논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을 했다. 인물별 분류를 말하자면, 첫째는 정제두 관련 논문이고, 둘째는 강화 양명학과 관련 논문이고, 셋째는 한국양명학 연구 관련 논문이다.

## 2. 인물별(주제별) 분류

### 1) 정제두 관련 논문(6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길수	하곡 생리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송명 유학의 생리설과 비교를 중심으로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2	진 함	하곡 정제두 심(心) 개념 재해석	孔子學	한국공자학회
3	박현정	하곡 정제두의 지각과 양지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4	정진옥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내관적(內觀的) 신체관과 그 의의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5	서근식	강화학파(江華學派) 역학사상의 전개 양상 연구 (1) -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 역학사상의 하락(河洛)·선후천(先後天)적 특징-	울곡학연구	(사)울곡학회
6	한정길	하곡 정제두의 예제 인식에 나타난 문화다원론적 의의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2022년도 한국양명학 관련 논문 12편 중에서 정제두를 직접 다룬 논문이 6편이다. 이는 2021년도에 14편 중에서 강화 양명학과(정제두 포함) 논문이 6편이고, 2020년도에는 13편중에서 6편이었는데, 정제두를 직접 다룬 논문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편수 증가와 더불어 정제두 학술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글들이 발표되었다.

정제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양명학자로 강화 양명학파의 태두이다. 현대 연구자들이 정제두 학술사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첫째는 주자학 독존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양명학을 선양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국 양명학과 차별화되는 한국적 양명학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둘째 관점과 관련하여, 정제두 양명학을 주자학과의 친연성에서 독해하는 방식이 한국 학계에 널리 활용된다. 즉 정제두가 양명학을 추송한 양명학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양명학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주자학 요소를 가져 왔다는 입장이다.

박길수의 「하곡 생리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송명 유학의 생리설과 비교를 중심으로 -」은 하곡의 생리설을 검토한다. 정제두 양지론의 특색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생리설(生理說)이다.

박길수는 정제두 생리설 연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곡의 생리설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그의 사상이 정주 성리학과 왕양명 심학 가운데 어디에 연원을 두고 있는 지이다. ……먼저 그의 생리설의 사상적 연원을 개괄하기 위해서 송대 유학에서 정주와 정명도로 대변되는 송대 유학의 두 가지 생리 이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서술하였다. ……하곡의 생리설은 그의 독창적인 개념과 사고를 바탕으로 정주 성리학과 왕양명 심학의 생리설을 종합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해명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하지만 그 종합의 성격이 주요 개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는 비록 왕양명의 생리 사상을 대폭 수용하면서도 정작 그 전체적인 이념과 구도의 측면에서는 정주 성리학이 제시한 생리설의 기본적인 체계와 논리를 근본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정주 성리학의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박길수 논문에서도 한국 학계에서 주자학과의 친연성 하에서 정제두 양명학을 독해하려는 입장이 반영되었다.

진함은 2022년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제두(鄭齊斗) 심학(心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중국인 학자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체로 조선 시대 성리학과 실학을 공부해서 학위논문을 완성한다. 그러나 진함은 조선 시대에 이단의 학문으로 평가되었던 양명학을 연구하여 정제두 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진함은 본인 박사논문의 기본 입장을 미리 선언한다. “기존 연구에서 강화학파(江華學派)와 하곡학(霞谷學)으로 정제두의 양명학 정신을 표현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본 논문은 유학을 심학으로 인식하는 부분에서부터 정제두와 왕수인(王守仁)의 학문적 동질성을 검토한다.” 진함이 굳이 이와 같은 기본 전제를 선언하는 데에는 나름의 계산이 있다. 바로 정주학과 양명학의 친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진함의 「하곡 정제두 심(心) 개념 재해석」은 본인의 박사 논문에서 논한 전체로서의 심을 정초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인체에 대한 의학적 심을 설명한다. 『황제내경』의 심, 의학적 심을 중심에 둔다는 접근은 심리일치(心理一致)를 주장하는 정제두 생리설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결국 신체장기인 심을 중심에 두면, 마음의 활동성을 긍정하면서도 취약성을 동시에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진망의 총체인 심, 곧 생리(生理)에서 택기진리(擇其眞理)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시 정주학과 양명학의 친연성을 강화한 입장이다.

박현정의 「하곡 정제두의 지각과 양지」의 주제인 지각과 양지의 관계는 정제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왕양명이 양지가 천리라는 주장을 한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었다. 주자학자들은 양지는 지각 활동이기 때문에 불교의 심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일차로 제기한다. 아울러 지각 활동을 리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기론의 공리에 맞지 않다고 재차 비판한다.

박현정은 지각과 양지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를 검토한 후에 이렇게 정리한다. “정제두 양명학 이해의 독창성은 지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생리 개

념의 제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제두의 양명학 이해는 전체 양명학의 구도 안에서 양명학의 발전 가능한 한 형태이자 조선 양명학의 독창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현정의 입장은 앞서 소개한 박길수, 진함의 관점과는 다른 점이 드러난다. 박현정은 주자학과의 친연성에 정제두 양명학의 독특성을 두지 않는다. 박현정은 양명학의 발전 형태로서 정제두 양명학은 한국양명학의 독창적 발전이라고 평한다.

정진욱의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내관적(內觀的) 신체관과 그 의의」는 신체관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정제두가 의학적 심을 강조하고, 생리를 제창하고, 이기일원(理氣一元) 등을 강조하는 방식은 주자학 공리와 상당 부분 충돌이 발생한다. 왕양명은 양지를 제창하면서 자신의 이기일원 주장을 정당화 했다. 한편 정제두는 생리, 신(神) 등을 통해 이기일원을 주장한다. 정진욱의 신체관은 바로 이 점에 착안했다. 다만 정제두가 그의 독특한 신체관에 기반을 두고서 이기일원을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양지의 이기일원을 정당화 하는 과정에서 신체 논의를 제시한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서근식의 「강화학파(江華學派) 역학사상의 전개 양상 연구(1) -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 역학사상의 하락(河洛)·선후천(先後天)적 특징」은 의의가 있는 논문이다. 정제두는 역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 정제두 학설을 이해하는 첩경으로 평가받는 「존인」 맨 처음이 건괘 논의로 시작하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정제두 학술사상을 이해하는데 역학 연구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근식은 이렇게 평한다. “정제두 역학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송나라 도서상수역학(圖書象數易學)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하도」와 「낙서」는 가운데 있는 5가 중요한 부분이다. 정제두에 있어서 「하도」와 「낙서」의 가운데 5가 중요한 이유는, 한가운데에 ‘태극’이 있기 때문이다. ‘태극’은 정제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心]’과 같은 것이다. ……정제두는 「선후천도설(先後天圖說)」은 선천과 후천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

이다. 본체[體]와 작용[用]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본체[體]의 측면에서는 선천과 후천이 두 가지가 아니며, 작용[用]의 측면에서 비로소 선천과 후천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제두의 서양천문학의 이해는 『선원경학통고(璇元經學通放)』 등으로 완성되었다. 정제두는 역학저술에 있는 「선후천설(先後天說)」을 먼저 저술하고 보다 발전된 지식을 입수하여 『선원경학통고』를 완성한 것이다.”

체용론은 송명리학의 중요한 범주다. 정이천이 「역전서(易傳序)」에서 제시한 체용일원을 모두 긍정하면서도, 주자학파는 성즉리에 기반을 두고 선체후용(先體後用)을 강조하고 양명학파는 심즉리에 기반을 두고 즉체즉용(卽體卽用)을 강조했다. 양명학과 내에서도 이른바 즉체즉용을 주장하는 현성양지파(現成良知派)와 선체후용(先體後用)을 주장하는 수증귀적파(修證歸寂派) 사이에 대논쟁이 발생했다.

정제두의 선천, 후천, 체용 논의는 그의 양지 논의와 맞물려 있다. 다만 정진옥 신체관 논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제두가 독특한 자신의 역학관에 기반을 두고서 체용론을 전개한 것인지, 아니면 양지학을 정당화하는 과정과 맞물려 역학의 체용론을 제시한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근래 한정길은 기존 양명학 연구에서 소홀이 다뤄졌던 내용들에 주목하는데, 경제학적 측면, 예치적인 측면 등이다. 한정길의 「하곡 정제두의 예제 인식에 나타난 문화다원론적 의의」는 연속선상에 있는 논문이다.

한정길의 총론이다. “양명학에서는 일체의 문제를 마음으로 환원하려는 성향으로 인해서 제도로서의 예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 그런데 정제두는 양명학자임에도 예에 관한 많은 언급들을 남기고 있다. 이것은 그가 조선의 독특한 문화, 즉 주자학적 예교 문화의 토대 위에서 학문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예제 인식에 나타난 문화 다원론적 의의라고 하겠다.”

## 2) 이광려(강화양명학파) 관련 논문(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천병돈	초간본 『이참봉집』에 나타난 이광려 학술사상과 실학정신(2)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천병돈은 매년 강화 양명학과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몇 년은 새로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곡학과 전승 내력을 밝히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본 「초간본 『이참봉집』에 나타난 이광려 학술사상과 실학정신(2)」 논문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글이다. 작년에 발표한 논문(「초간본 『李參奉集』에 나타난 李匡呂 학술사상과 실학정신(1)」)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한 논문이다.

천병돈의 말을 들어보자. “이광려의 실심은 형이상의 본체로서 도덕심이다. 실심이 생활에서 구현되는 것이 실학이다. 이광려는 실심에 대한 규명보다는 실생활에서 실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었다. 실심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심의, 고구마 재배, 가채와 계례를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친민’이다. 친민은 실심이고, 실심은 친민이다. 이광려는 실심을 ‘친민’으로 발현시켰다. 이것이 바로 이광려가 추구한 실학정신이다.”

### 3) 신작(강화양명학과) 관련 논문(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민혜영	石泉 申緯의 『古文尙書』에 대한 견해 연구	남명학연구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석천 신작(1760-1828)은 『춘추좌씨전례』, 『역차고』, 『상차고』 등을 저술한 학자이다. 아버지는 호조참판 신대우(申大羽)이고, 어머니가 정후일(鄭厚一)의 딸이다. 정후일이 바로 정제두(鄭齊斗)의 아들이니, 신작은 정제두의 외증손이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과는 평소에 친분이 두터웠으며, 정약용은 신작의 지극한 효도에 감동하여 시를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 신작의 학문을 보통 양명학, 실학, 경학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다룬다.

민혜영의 「石泉 申緯의 『古文尙書』에 대한 견해 연구」는 그의 경학적 성격을 고찰한 글이다. “경학사에서 今古文論爭은 중요한 주제로, 『尙書』는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경전이다. 宋 이후로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古文尙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청대 閻若璩는 치밀한 문헌적 증거를 든 『古文尙書疏證』을 통해 『고문상서』가 위작임을 논증하였다. 조선의 학자들도 17세기 이후부터 『고문상서』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신작의 견해를 밝힌다. “신작은 현재의 위 『고문상서공전』이 위작이기는 하나, 전부터 경서로서 계속 전수해왔고 내용 또한 경전에 합당하고 이치가 있다면 폐하지 않고 전승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孔壁에서 나온 眞本은 아니므로 위 『고문상서공전』의 오류를 바로잡고 원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 4) 박은식과 정인보(강화양명학과) 관련 논문(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형	박은식과 정인보의 자아와 주체관 연구 -진아(眞我)론과 실심(實心)론의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사)울곡학회

한말 양명학자를 논할 적에 늘 등장하는 인물이 박은식과 정인보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박은식을 양명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지만 양명학을 현창한 공로가 상당하다. 정인보를 말하자면 강화양명학이 세상에서 빛을 보게 한 인물이고 진정한 양명학자라고 할 수 있다. 정제두에서 시작된 조선 시대 양명학이 정인보에 이르러 대종(大終)을 맺었다고 하는 평가는 허언이 아니다.

김우형의 「박은식과 정인보의 자아와 주체관 연구 -진아(眞我)론과 실심(實心)론의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는 박은식과 정인보를 동일한 궤적 안에 위치시킨다.

김우형의 말을 들어보자. “본고는 박은식과 정인보의 주체와 자아에 관



한 견해로서 진아(眞我)론과 실심(實心)론의 철학적 성격에 대해 상호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그들은 한국 근대양명학의 대표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진아론과 실심론을 양명학의 맥락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근현대 한국철학의 형성에 관련시켜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이어서 그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들의 자아관과 주체관은 민족적 정체성의 확인과 자국 철학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진아와 실심은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띤다. 과학적 철학적 원리에 대한 탐구와 인식[지각]을 강조하는 점은 진아론과 실심론의 주요 특징이다. 이는 그들의 도덕론에 영향을 미치는데, 두 마음의 윤리적 갈등상태가 상정되고 의(意)에 자율성이 부여됨으로써 주체는 자유의지를 지니게 된다. 또한 진아와 실심은 존재론적인 실체는 아니지만, 시비를 직관하고 우주의 근본 원리를 자각하는 양지(良知)의 작용에 의해 영원성을 얻을 수 있다.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아론과 실심론은 공통적으로 양명학의 방법을 통해 조선 유학을 비판하되 독창적인 ‘한국철학’으로 전화(轉化)시켰다고 할 수 있다.”

김우형은 박은식과 정인보를 동일한 양명학 궤적 안에 위치시킨다.

### 5) 한국양명학 연구 총괄 관련 논문(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한정길	한국양명학사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 분석과 연구 방법	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회
2	김세정	하곡 정제두 연구 현황과 과제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3	정광휘	『霞谷集』 定本化를 위한 校勘 方案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한정길은 한국양명학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다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양명학을 조망하고자 노력해 왔다.

한정길의 「한국양명학사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 분석과 연구 방법」은 다년에 걸친 연구를 바탕으로 개괄한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국

양명학사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이 요구된다. 1) 한국양명학사에 대한 연구 관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라는 시야에서 한국양명학의 특성과 의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양명학의 정의와 양명학 수용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조선에서 양명학을 수용하고 비판하게 된 그 정치적·학술적 배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양명학의 존재 양태와 전개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이 요구된다. 6) 유학은 수기치인, 혹은 내성외왕의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이요, 양명학도 유학의 한 형태라는 전제하에 한국양명학도 마음공부와 경세의 두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7)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한국 양명학의 의의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8) 한국양명학 관련 자료에 대한 폭넓은 발굴과 수집이 필요하다.”

김세정은 중국과 한국 내에서 발표된 중국 양명학과 한국 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거의 매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김세정의 「하곡 정제두 연구 현황과 과제」는 다년에 걸친 본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괄한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제두의 학술적 성과는 『하곡집』에 남아있으며, 1970년대부터 『하곡집』을 중심으로 하여 정제두의 사상과 학술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어 지난 50여 년간 많은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었다. 정제두에 관한 2019년도까지의 연구 성과는 저서 7종, 원전 번역서 5종, 박사학위논문 15편, 석사학위논문 25편, 학술논문 186편으로, 총 246종에 달한다. ……정제두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1970-1980년대는 정제두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토대 마련 시기’이다. 1970년대는 정제두 연구의 ‘과중 시기’라면, 1980년대는 정제두 연구의 ‘발아 시기’에 해당한다. 둘째, 1990년대는 정제두 연구가 뿌리를 잡는 ‘착근 시기’이다. 셋째, 2000년대는 ‘정제두 연구 성장 시기’이다. 넷째, 2010년대는 ‘정제두 연구 심화와 다양화 시기’이다.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제두 관련 연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하곡집』 정분화 작업과 『하곡집』 완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대한 정

제두 관련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학술적 차원에서 하곡학을 총체적으로 재조명하는 학술서가 나와야 한다. 아울러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하곡학 관련 대중서가 나와야 한다. 셋째, 현대 사회의 다양한 시대 문제와 관련하여 정제두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근래 수년에 걸쳐 하곡집 정본화 사업이 양명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정광휘는 「『霞谷集』 定本化를 위한 校勘 方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을 제시한다. 바로 정제두가 참고한 왕양명의 문집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정제두가 참고하였던 왕양명 문헌이 어떤 판본인지를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정제두가 참고한 왕양명 문헌은 현재 연구자들이 참고하는 문헌과 달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제두가 참고하였던 문헌에 근거하여 교감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자들은 대체로 1572년에 출간한 『왕문성공 전집(王文成公全集)』을 저본(底本)으로 하고 90년대 이전에 새롭게 발굴한 왕수인의 저술을 최대한 보완하고 교감하여 1992년에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판한 현대 중국어 판본 『왕양명 전집(王陽明全集)』을 참고하고 있다. 1572년 판본은 전덕홍이 주도하여 편집한 『왕문성공 전서(王文成公全書)』에 근거하였다. 그런데 정제두 『하곡집』에 실린 글을 보면 『왕문성공 전서』를 참고하지 않고 오히려 황관이 편찬한 『양명선생 문록(陽明先生文錄)』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덕홍은 왕양명이 남긴 자료를 선별하여 편집하고 자신의 견해에 따라 『양명부자 연보(陽明夫子年譜)』를 편찬하였으나 황관은 여기에 반대하고 객관적 관점에서 왕양명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게재하여 출판하였다. 아울러 정제두가 당시에 『양명선생 문록』만을 참고한 까닭과 학술환경도 필수적으로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미 인물별 분류 항목의 정제두 관련 논문에서 밝혔지만, 다시 한번 논

의를 위해 언급한다. 현대 연구자들이 정제두 학술사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데, 핵심은 주자학과 차별성을 부각하느냐 아니면 주자학과 친연성을 부각하느냐이다.

사실 이 문제는 꽤 복잡하다. 무슨 말이나 하면, 송명이학을 구성하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같음과 다름을 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송대의 주류논쟁을 시발로 하여 현대에도 주왕 논쟁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때 한국 학계에서 퇴계 심학 성격 논쟁이 뜨거웠다. 뚜웨이밍이 퇴계 이동설(理動說)을 모우종산의 즉존유즉활동(卽存有卽活動)과 연결 지으면서 퇴계 심학 성격 논쟁이 본격적으로 발화했다. 퇴계 이황이 주자학자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적 성리학의 정초자로 퇴계를 자리매김하고자 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중국 주자학과 다른 퇴계 성리학의 특징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심학이 부상했는데, 사실 심학은 양명학과 친연성을 보인다.

이런 상황이 정제두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하곡 정제두가 양명학자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적 양명학의 정초자로 하곡을 자리매김하고자 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중국 양명학과 다른 하곡 양명학의 특징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성학(性學)이 부상하는데, 사실 성학은 주자학과 친연성을 보인다.

이제 구체적인 분석으로 들어갈 차례다. 먼저 박길수의 「하곡 생리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송명 유학의 생리설과 비교를 중심으로-」를 살펴보자.

박길수는 정제두 생리설의 연원을 고찰하기 위해 송대 이학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정명도 식과 정주 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명도(程明道)는 생과 생리를 동일시하고 우주의 총체적인 창조성으로 규정하였고, 반면 정이천과 주자는 이기론에 근거하여 생리를 생과 생리(理)를 이원화하고 그 가운데 오직 성리(性理)로서 생리에만 긍정성을 부여하였다.”

그렇다면 박길수가 이해한 정제두의 입장은 어떤가? “하곡은 생성과 존재의 측면에서는 생리를 천지와 만물의 창조적 원천으로 여기지만, 정작 그 생리의 가치와 주체의 실질적 소재를 개체의 심신이 아닌 성리의 본체인 진

체와 진리에 국한했다는 점에선 정주의 이기론과 심성론의 체계에 가까우며 왕양명의 관점과 다르다. 이것은 결국 생리와 성리, 그리고 생과 생리를 철저하게 분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힌다. “이 점에서 하곡은 주요 개념과 내용의 측면에서 왕양명의 생리 사상을 대폭 수용하지만, 정작 그 전체적인 구도와 내재적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정주의 이론들을 근본 토대로 삼고 있다.”

이제는 좀 더 더 나아가 왕양명과 차이점을 논한다. “하곡 생리설의 심학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왕양명의 생리설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생리에 대한 다른 견해이다. 왕양명은 생리를 그 자체로 자족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반면 하곡은 그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생리의 자족성의 문제는 생리의 주재성에 대한 해명과 분리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만일 생리의 자족성을 인정할 경우 주재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성의 자발적인 창조와 자기 평형의 문제로 직결되고, 생리의 자족성을 부정할 경우 주재성의 문제는 생리를 초월하는 상위의 심급에서 정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왕양명은 생리의 주재성을 중(中)과 정(定)이라는 생리의 항상성과 안정성으로 규정하고, 반면 하곡은 생리의 주재성을 진체와 진리로 규정하고 그것을 성리의 통체와 본령의 중주로 정의한 본의이다.”

박길수의 입장은 한국 양명학 정초자로서 정제두를 자리매김하면서 주자학과의 친연성을 부각하고 있다. 다만 ‘정제두는 양명학자다’는 명제를 출발 전제로 삼는다면, ‘정제두는 양지를 천리로 삼았다’는 후속 명제도 긍정되어야 한다. 만약 1번 명제와 2번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박길수의 입장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현정은 양명후학 중에서 이른바 수증파(양명우파)로 불리는 섭표로 박사학위는 받은 신진연구자이다. 박현정이 「하곡 정제두의 지각과 양지」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종래 정제두의 지각에 대한 연구는 정제두가 비교적 주자학적으로 양명학을 이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본문은 지각에 대한 정제두의 인식이 과연 주자학적이

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양명후학의 지각관과 정제두의 지각관에 집중하여 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를 살펴본 후, 하곡집(霞谷集)의 내용을 통해 정제두 지각관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정제두의 지각에 대한 이해가 양명후학의 이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주자학적으로 양명학을 이해한 것이 아닌, 정제두 양명학 이해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즉, 본문은 지각에 대한 이해가 정제두 양명학 이해의 특질을 살펴보는 하나의 효과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부터 박현정의 주장을 따라가 보자. “우리는 앞 절에서 정제두의 지각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제두는 현상의 지각 A는 일반적 의미의 감각지각 활동이며, 지각 B는 양지본체가 발현된 지각임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것이 다시 사물의 이치에 대비되는 인간의 이치인 ‘생리’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본다.”

무슨 말이나 하면 “인간의 생리는 지각 A의 형태이지만 그 본질은 양지의 본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지각 B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 마음의 신명함은 이러한 지각 B의 성격을 가지며, 이것이 활발하게 약동하는 생리라고 말한다.”

이제 학계에 널리 퍼진 진리와 생리를 구분하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한다. “진리는 지각 A와 지각 B의 합인 생리 중에서 지각 B만을 진리로 나타낸 생리의 상위개념이기는 하지만, 현상의 지각 측면에서는 진리는 항상 생리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둘은 사실상 하나의 개념이다. 따라서 진리를 완전히 독립적인 개념으로 상정했다기 보다는 현상에서의 양지 본체의 순수함을 특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한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박현정은 정제두 생리설의 의의를 이렇게 총괄한다. “정제두 역시 지각 A와 지각 B를 구분하는 한편 지각 B는 언제나 지각 A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지각 B는 본질상 양지의 본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자는 양명학 전반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후자는 양명후학의 현성과 수증파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정제두의 독창성이 나타나는 부

분은 바로 이러한 지각 이해를 다시 자신의 언어인 생리(生理)로 나타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연구에서도 역시 생리설이 정제두의 특징적인 면모라고 꼽아왔지만 지각론의 관점에서 생리라는 개념을 분석해야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진의가 더 잘 드러난다고 본다. 인간의 지각작용과 거기에 포괄되어있는 양지의 현현(顯現)은 내 마음의 활발한 이치인 생리라고 보는 것이다.”

박길수와는 대비되는 견해를 알 수 있다.

#### 4. 평가와 전망

한국양명학 논문 편수는 14년도 8편, 15년도에 12편, 16년도 15편, 17년도 16편, 18년도는 19편, 19년도 18편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년도 13편, 21년도에는 14편, 22년도에는 12편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경향은 비단 한국 양명학 논문 편수만의 현상은 아니다. 중국 명청대 논문 편수도 줄었다.

1년 동안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양명학 연구 논문 편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조선유학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명학(하곡학파)의 비중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제두 학술사상을 중심으로 발표된 논문 편수가 예년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는 점을 특기할 수 있겠다.

2022년도 조사 논문 중에서 이른바 문제작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2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정진욱의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내관적(內觀的) 신체관과 그 의의」를 추천한다. 신체관이라는 관점이 신선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주제에 맞게 잘 녹여냈다. 둘째는 진함의 「하곡 정제두 심(心) 개념 재해석」을 추천한다. 진함은 정제두가 『황제내경(黃帝內經)』에 바탕을 두고 심(心) 개념에서 심장(heart)의 의미를 강조하는 특성을 상세하게 고찰했다. 정제두 심학에 자주 등장하는 신(神), 정(精), 기(氣), 혈기(血氣) 형기(形氣) 등 개념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주었다. 「존언」에 나오는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매번 지적인 사항이지만 향후 조선 양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새로운 양명학자의 발굴과 주제들을 탐색하여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헌의 제약이다.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8장

## 한국실학 연구

단윤진(단국대학교)

##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 한국유교 레포트 - 한국 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년간 한국에서 출간된 학술논문 중 한국 실학 관련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등재 학술지와 학위 논문을 살펴본 결과 2022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은 총 55편으로 일반 학술지 논문 47편, 학위 논문 8편(석사 2편, 박사 6편)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다.

1)반계 유형원(1622~1673), 2)성호 이익(1681~1763), 3)소남 윤동규(1695~1773), 4)하빈 신후담(1701~1762), 5)정산 이병휴(1710~1776), 6)반암 채제공(1720~1799), 7)순암 안정복(1712~1791), 8)월암 이광려(1720~1783), 9)연암 박지원(1737~1805), 10)금대 이가환(1742~1801), 11)초정 박제가(1750~1805), 12)다산 정약용(1762~1836), 13)구당 유길준(1856~1914), 14)홍준삼(1885~?), 15)성호학과 등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1)경학, 2)철학, 3)문헌학, 4)정치·경제, 5)교육·윤리, 6)문학·서학, 7)비교, 8)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3편을 선별하여 소개하여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았다.

먼저 2022년 한국실학 관련 논문의 총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구정분	茶山 丁若鏞의 茶文化認識 研究	석사	성균관대학교
2	박병만	丁若鏞의 行事中心的 修養論 研究	박사	성균관대학교
3	배한옥	성호우파 문인들의 서학 비판 저술과 반서학적 인식의 계승 확산에 대한 연구	석사	인천 가톨릭대학교
4	송육	李瀼 『論語疾書』의 경전 해석 특징 연구	박사	성균관대학교
5	이대식	다산 정약용 성기호설(性嗜好說)의 교육학적 해석	박사	춘천 강원대학교
6	이동화	18세기 近畿 南人系 학자의 정치사상 연구 -君臣關係論을 중심으로 -	박사	성균관대학교
7	이무영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공직윤리와 현대 공직윤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	광주대학교
8	이재복	공철정(公七情) 담론의 형성과 도덕 감정론 - 성호학파(星湖學派)를 중심으로 -	박사	한양대학교
9	고상미	'인민'에 대한 개념사적 고찰 - 서유견문 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Vol.-No.40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0	구지현	邵南이 星湖에게 보낸 서간의 성격과 家藏 書簡의 중요성	한 문 학 논 집 . No.60	근역한문학회
11	김대중	『잡동산이』 소재 眉叟遺文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12	김우선	18세기 실학적 지리학자들의 학문적 親緣性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	한국고지도연구 Vol.14No.1	한국고지도 연구학회
13	김우준	작품을 통해 고찰한 술과 음주에 대한 박지원(朴趾源)의 관념	한국중독범죄학회 보, Vol.12 No.1	한국중독범죄 학회
14	김윤경	조선 후기 '실(實)' 담론에 나타난 유교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 철학논집, Vol.- No.7	한국철학사연구회
15	김인철	성호 이익의 과변론(卦變論) -그 내원(來源)과 후학(後學)의 변용(變容)을 곁하여-	태동고전연구. 48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6	김선희	성호학에서 사질론의 한 분기 - 신후담에서 이병휴까지 -	동양철학연구. Vol 109	동양철학연구회
17	김선희	『맹자』의 부동심 논의에서 도덕성의 신체화와 정약용의 재해석	다산학, No. 41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18	김태영	다산 정약용의 刑政思想에 나타난 '實學'	역사와 경계 Vol.122 No.-	부산경남사학회
19	김호	『마과회통』의 원경遠景, 보식保息의 정치	다산학 No. 40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20	노상호	18세기 물리(物理) 개념을 통해서 본 성호(星湖) 이익(李瀼)의 인식론 탐구	한국학연구. No. 81	고려대학교 세종Cam. 한국학연구소

21	단운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	동양고전연구. No. 88	동양고전학회
22	명평자	금대(錦帶) 이가환(李家煥) 시의 창작 배경	한국사상과 문화. No.105	한국사상문화학회
23	박지현	성호 이익의 경학과 경세론 - 『대학』 제10장 ‘혈구지도’를 중심으로 -	장서각. No. 47	한국학중앙연구원
24	박창식	정약용 민권의식의 시민윤리에의 적용	도덕윤리교육. NO. 76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25	박혜민	곤여도설(坤輿圖說)의 조선 전래와 그 판본 검토 - 인천에 전해지는 윤동규(尹東奎)의 필사본을 중심으로 -	인천학연구. No. 37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6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 李瀾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No.95	민족어문학회
27	서영이	조선 후기 실학의 변증법적 전환	동방문화와 사상. No. 12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8	손혜리	안정복의 명나라 유민에 대한 기록과 인식 - 『잡동산이』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29	송양섭	유형원 연구의 시기와 『반계수록』 읽기의 방향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30	송응섭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학자의 기독교 이해와 그 한계 - 안정복의 『천학문답』을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No. 42	총신대학교
31	신동원	조선 후기 전염병에 대한 정약용의 대응 방식	다산학 No. 40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32	신주연	인륜을 통해 본 정약용의 수신론 - 그의 『대학』 해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No. 5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3	신향수	한국 실학과 미래 세대 교육	역사와 교육 Vol.35 No.-	역사와 교육학회
34	신혜연	‘유형원의 실리론’ 분석 - 실리의 강조는 ‘주리’적 사유로의 轉回인가 -	동양철학 Vol.-No.57	한국동양철학회
35	심경호	『星湖雜說』의 ‘字書’ 인용에 대하여	민족문화. NO. 61	한국고전번역원
36	안병직	礪溪隨錄의 方法과 體系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37	야규마 코토	동서양의 자연관, 그리고 기학과 동학의 생태적 윤리 - 이상과 덕성의 조화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38	이기호	동양사상의 전통 ‘악문樂論’에 관한 연구 - 정약용의 『악서고존樂書孤存』을 중심으로 -	哲學研究 Vol.164 No.- [2022]	대한철학회
39	이동희	반계 유형원의 부안 우반동 이주와 『반계수록』 편찬	한국실학연구 Vol.-No.43[2022]	한국실학학회
40	이승재	채제공 경제 정책의 성격과 방향 소고 - 『번암집』 소재 계시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No.44 [2022]	한국실학학회
41	이재복	이병휴의 서(恕) 개념 연구 - 성호학파의 해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NO. 90	한국유교학회
42	이정한 최진환 유완식	거중기의 설계와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Vol. 46, No.10	대한기계학회

43	임명남	楚亭 朴齊家の 虚心養性的 繪畫觀	서예학연구 Vol.41No.- [2022]	한국서예학회
44	전성건	礪溪 柳馨遠의 實理論과 經世學	대동문화연구 No. 12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45	정일균	조선후기 근기남인 사족의 '가(家)' 이념에 대한 일고찰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No.133	한국사회사학회
46	정종모	정산 이병휴의 공칠정(公七情) 연구 - 성리학적 연원과 윤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	양명학, NO. 66	한국양명학회
47	조치성	다산 정약용 시문에 나타난 소나무의 형상과 의미	아시아문화연구 NO. 58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48	천병돈	초간본 『이참봉집』에 나타난 이광려 학술사상과 실학정신(2)	陽明學 Vol.- No.65	한국양명학회
49	추동균	이준의 감독의 흑백영화 <자산어보>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Vol.16 No.4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50	최식	『雜同散異』의 異本과 特徵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51	최정연	하빈 신후담의 자득과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 - 사단질정론과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52	최주희	반계 유형원의 救荒論	한국실학연구 Vol.- No.44	한국실학학회
53	한종수	조선후기 실학자 홍중삼의 무과(武科)인식과 무과개혁안 연구	중앙사론, No. 5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54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國朝典故雜錄』 분석 - 『잡동산이』의 성격과 그 항목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55	황병기	조선 역학의 시대정신과 문화적 상대성 - 정약용의 역상학을 중심으로 -	도교문화연구. No.57	한국도교문화학회

## 2. 인물별 분류

인물별로는 1)반계 유형원(1622~1673), 2)성호 이익(1681~1763), 3)소남 윤동규(1695~1773), 4)하빈 신후담(1701~1762), 5)정산 이병휴(1710~1776), 6)번암 채제공(1720~1799), 7)순암 안정복(1712~1791), 8)월암 이광려(1720~1783), 9)연암 박지원(1737~1805), 10)금대 이가환(1742~1801), 11)조정 박제가(1750~1805), 12)다산 정약용(1762~1836), 13)구당 유길준(1856~1914), 14)홍중삼(1885~?), 15)성호학과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학위 논문을 포함한 다산 정약용에 관한 논문이 14편(일반논문 10편, 학위논문; 박사3편. 석사 1편)으로 가장 많고, 성호 이익 6편(일반 논문

5편, 박사논문 1편), 성호학과에 대한 논문 6편(일반논문 3편, 학위논문 3편), 반계 유형원 6편, 순암 안정복 6편, 정산 이병휴 4편, 하빈 신후담 2편, 소남 윤동규 2편, 그리고 각각 1편씩으로 변암 채제공, 월암 이광려, 연암 박지원, 금대 이가환, 초정 박제가, 구당 유길준, 홍준삼 등의 논문이 있다.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반계 유형원(1622~1673, 일반논문 6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양섭	유형원 연구의 시각과 『반계수록』 읽기의 방향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2	신혜연	‘유형원의 실리론’ 분석 - 실리의 강조는 ‘주리’적 사유로의 轉回인가 -	동양철학 Vol.-No.57	한국동양철학회
3	안병직	礪溪隨錄의 方法과 體系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4	이동희	반계 유형원의 부안 우반동 이주와 『반계수록』 편찬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5	전성건	礪溪 柳馨遠의 實理論과 經世學	대동문화연구 No. 12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6	최주희	반계 유형원의 救荒論	한국실학연구 Vol.- No.44	한국실학학회

### 2) 성호 이익 6편(1681~1763, 박사논문 1편, 일반 논문 5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 욱	李瀼 『論語疾書』의 경전 해석 특징 연구	박사	성균관대학교
2	김인철	성호 이익의 과변론(卦變論) - 그 내원(來源)과 후학(後學)의 변용(變容)을 곁하여-	태동고전연구. 48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3	노상호	18세기 물리(物理) 개념을 통해서 본 성호(星湖) 이익(李瀼)의 인식론 탐구	한국학 연구. No. 81	고려대학교 세종Cam. 한국학연구소
4	박지현	성호 이익의 경학과 경세론 - 『대학』 제10장 ‘월구지도’를 중심으로 -	장서각. No. 47	한국학 중앙연구원
5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李瀼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No. 95	민족어문학회
6	심경호	『星湖雜說』의 ‘字書’ 인용에 대하여	민족문화. NO. 61	한국고전번역원

### 3) 소남 율동규(1695~1773, 일반논문 2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구지현	邵南이 星湖에게 보낸 서간의 성격과 家藏 書簡의 중요성	한문학 논집. No. 60	근역한문학회
2	박혜민	곤여도설(坤輿圖說)의 조선 전래와 그 판본 검토 - 인천에 전해지는 율동규(尹東奎)의 필사본을 중심으로 -	인천학 연구. No. 37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4) 하빈 신후담(1701~1762, 일반논문 2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선희	성호학에서 사칠론의 한 분기 - 신후담에서 이병휴까지 -	동양철학연구. Vol. 109	동양철학연구회
2	최재연	하빈 신후담의 자득과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 - 사단칠정론과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 5) 정산 이병휴(1710~1776, 박사논문 1편, 일반논문 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재복	공칠정(公七情) 담론의 형성과 도덕 감정론 - 성호학파(星湖學派)를 중심으로 -	박사	한양대학교
2	김선희	성호학에서 사칠론의 한 분기 - 신후담에서 이병휴까지 -	동양철학연구. Vol. 109	동양철학연구회
3	이재복	이병휴의 서(愨) 개념 연구 - 성호학파의 해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NO. 90	한국유교학회
4	정종모	정산 이병휴의 공칠정(公七情) 연구 - 성리학적 연원과 윤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	양명학 No. 66	한국양명학회

### 6) 변암 채제공(1720~1799,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승재	채제공 경제 정책의 성격과 방향 소고 - 변암집, 소재 계사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 No.44	한국실학학회

7) 순암 안정복(1712~1791, 일반논문 6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대중	『잡동산이』 소재 眉叟遺文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2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李瀾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No. 95	민족어문학회
3	손혜리	안정복의 명나라 유민에 대한 기록과 인식 - 『잡동산이』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4	송응섭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학자의 기독교 이해와 그 한계 - 안정복의 『천학문답』을 중심으로-	충신대논총, No. 42	충신대학교
5	최 식	『雜同散異』의 異本과 特徵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6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國朝典故雜錄』 분석 - 『잡동산이』의 성격과 그 항목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8) 월암 이광려(1720~1783,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천병돈	초간본 『이참봉집』에 나타난 이광려 학술사상과 실학정신(2)	陽明學 Vol.- No.65	한국양명학회

9) 연암 박지원(1737~1805,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준	작품을 통해 고찰한 슬과 음주에 대한 박지원(朴趾源)의 관념	한국중독범죄학회 보 Vol.12 No.1	한국중독범죄학회

10) 금대 이가환(1742~1801,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명평자	금대(錦帶) 이가환(李家煥) 시의 창작 배경	한국사상과문화 No.105	한국사상문화학회

11) 초정 박제가(1750~1805,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	----	------	-----	------



1	임명남	楚亭 朴齊家の 虚心養性的 繪畫觀	서예학연구Vol.41	한국서예학회
---	-----	-------------------	-------------	--------

12) 다산 정약용 14편(1762~1836, 석사 1편, 박사 3편, 일반논문 10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구정분	茶山 丁若鏞의 茶文化認識 研究	석사	성균관대학교
2	박병만	丁若鏞의 行事中心的 修養論 研究	박사	성균관대학교
3	이대식	다산 정약용 성기호설(性嗜好說)의 교육학적 해석	박사	춘천강원대학교
4	이우영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공직윤리와 현대 공직윤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	광주대학교
5	이기호	동양사상의 전통 ‘악론樂論’에 관한 연구 - 정약용의 『악서고존樂書孤存』을 중심으로-	哲學研究 Vol.164	대한철학회
6	김선희	『맹자』의 부동심 논의에서 도덕성의 신체화와 정약용의 재해석	다산학, No. 41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7	김태영	다산 정약용의 刑政思想에 나타난 ‘實學’	역사와 경계 Vol.122 No.-	부산경남사학회
8	김호	『마과회통』의 원경遠景, 보식保息의 정치	다산학 No. 40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9	단운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	동양고전연구. No. 88	동양고전학회
10	박창식	정약용 민권익식의 시민윤리에의 적용	도덕윤리과교육. NO. 76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11	신주연	인류를 통해 본 정약용의 수신론 - 그의 「대학」 해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No. 5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정일균	조선후기 근기남인 사족의 ‘가(家)’ 이념에 대한 일고찰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No.133	한국사회사학회
13	조치성	다산 정약용 시문에 나타난 소나무의 형상과 의미	아시아 문화연구 NO. 58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4	황병기	조선 역학의 시대정신과 문화적 상대성 -정약용의 역상학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No.57	한국도교문화학회

정약용에 대한 논문은 총 14편으로 석사논문 1편, 박사논문 3편, 일반논문 10편이다. 2021년의 정약용 논문은 51편으로 박사논문 5편, 일반논문이 46편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감소한 것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는 학술 등재후보지와 학술등재지 모두를 포함하였지만 2022년에는 학술 등재후보지는 제외하고 학술등재지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

다.

학위 논문으로는 석사논문으로 구정분의 「茶山 丁若鏞의 茶文化認識 研究」(성균관대학교) 1편이 있다. 박사논문은 박병만의 「丁若鏞의 行事中心的 修養論 研究」(성균관대학교), 이대식의 「다산 정약용 성기호설(性嗜好說)의 교육학적 해석」(춘천 강원대학교), 이무영의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공직윤리와 현대 공직윤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광주대학교) 등 3편이 있다. 그 외 일반 학술지 논문으로 10편이 있다.

### 13) 구당 유길준(1856~1914,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고상미	'인민'에 대한 개념사적 고찰 - 서유견문 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Vol. -No. 40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 14) 홍준삼(1885~?,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한중수	조선후기 실학자 홍중삼의 무과(武科)인식과 무과개혁안 연구	중앙사론. No. 5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15) 성호학과 6편(석사 1편, 박사 2편, 일반논문 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배한옥	성호우파 문인들의 서학 비판 저술과 반서학적 인식의 계승 확산에 대한 연구	석사	인천가톨릭대학교
2	이동화	18세기 近畿 南人系 학자의 정치사상 연구 - 君臣關係論을 중심으로 -	박사	성균관대학교
3	이재복	공칠정(公七情) 담론의 형성과 도덕 감정론 - 성호학파(星湖學派)를 중심으로 -	박사	한양대학교
4	김선희	성호학에서 사치론의 한 분기 - 신후담에서 이병휴까지 -	동양철학연구. Vol 109	동양철학연구회
5	이재복	이병휴의 서(愨) 개념 연구 - 성호학파의 해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	유교 사상 문 화연 구.NO. 90	한국유교학회
6	최정연	허빈 신후담의 자득과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 - 사단철정론과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 - No.43	한국실학학회

성호학과는 총 6편으로 일반논문 3편과 학위논문 3편(석사 1편, 박사 2편)이 있다.

###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철학, 3)문헌학, 4)정치경제, 5)교육윤리, 6)문학서학, 7)비교, 8)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1)경학은 모두 9편(박사 1편, 일반논문 8편)의 논문이 있으며, 2)철학 11편(박사 2편, 일반논문 9편), 3)문헌학은 14편(박사 1편, 일반논문 13편), 4)정치경제는 5편(박사 1편, 일반논문 4편), 5)교육윤리는 6편(박사논문 2편, 일반논문 4편), 6)문학서학은 4편(석사 1편, 일반논문 3편), 7)비교는 일반논문 3편, 8)기타 논문은 12편(석사 1편, 일반논문 11편)이다.

주제별로는 중복되는 논문도 상당수 있으며 한 가지 범주로만 넣기에 무리가 있어 중복되는 것도 다수 있다. 많은 논문들이 각각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아 범주를 이루기가 어려운 논문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 1) 경학, 9편(박사논문 1편, 일반논문 8편 )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 욱	李漢 『論語疾書』의 경전 해석 특징 연구	박사	성균관대학교
2	김인철	성호 이익의 과변론(卦變論) -그 내원(來源)과 후학(後學)의 변용(變容)을 곁하여-	태동고전연구. 48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3	김선희	『맹자』의 부동심 논의에서 도덕성의 신체화와 정약용의 재해석	다산학 No. 41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4	단운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	동양고전연구. No. 88	동양고전학회
5	박지현	성호 이익의 경학과 경세론 - 『대학』 제10장 '혈구지도'를 중심으로 -	장서각. No. 47	한국학중앙연구원
6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 李漢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No.95	민족어문학회
7	신주연	인륜을 통해 본 정약용의 수신론 - 그의 「대학」 해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No. 5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이기호	동양사상의 전통 ‘악론樂論’에 관한 연구 - 정약용의 『악서고존樂書孤存』을 중심으로-	哲學研究 Vol.164	대한철학회
9	황병기	조선 역학의 시대정신과 문화적 상대성 -정약용의 역상학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No.57	한국도교문화학회

경학 관련 논문은 『논어』 1편, 『맹자』 2편, 『중용』 1편, 『대학』 2편, 『악기』 1편, 『주역』 2편이 있다.

### 2) 철학, 11편(박사논문 2편, 일반논문 9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병만	丁若鏞의 行事中心的 修養論 研究	박사	성균관대학교
2	이재복	공칠정(公七情) 담론의 형성과 도덕 감정론 -성호학파(星湖學派)를 중심으로 -	박사	한양대학교
3	김윤경	조선 후기 ‘실(實)’ 담론에 나타난 유교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 철학논집 Vol.- No.7	한국철학사연구회
4	김선희	성호학에서 사칠론의 한 분기 - 신후담에서 이병휴까지 -	동양철학연구. Vol 109	동양철학연구회
5	노상호	18세기 물리(物理) 개념을 통해서 본 성호(星湖) 이익(李翼)의 인식론 탐구	한국학 연구. No. 81	고려대학교 세종Cam. 한국학연구소
6	서영이	조선후기 실학의 변증법적 전환	동방문화와 사상. No. 12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7	신혜연	‘유형원의 실리론’ 분석 - 실리의 강조는 ‘주리’적 사유로의 轉回인가 -	동양철학 Vol.-No.57	한국동양철학회
8	안병직	礪溪隨錄의 方法과 體系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9	이재복	이병휴의 서(恕) 개념 연구 - 성호학파의 해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No. 90	한국유교학회
10	정종모	정산 이병휴의 공칠정(公七情) 연구 - 성리학적 연원과 윤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	양명학 No. 66	한국양명학회
11	최정연	하빈 신후담의 자득과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 - 사단칠정론과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 3) 문헌학, 14편(박사 1편, 일반논문 1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 욱	李漢 『論語疾書』의 경전 해석 특징 연구	박사	성균관대학교
2	김대중	『잡동산이』 소재 肩叟遺文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3	김 호	『마과회통』의 원경遠景, 보식保息의 정치	다산학 No. 40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4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李瀾의 『孟子疾書』와 順庵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No. 95	민족어문학회
5	손혜리	안정복의 명나라 유민에 대한 기록과 인식 - 『잡동산이』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N/A)
6	송양섭	유형원 연구의 시각과 『반계수록』 읽기의 방향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7	송응섭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학자의 기독교 이해와 그 한계 - 안정복의 『천학문답』을 중심으로-	총신대 논총. No. 42	총신대학교
8	심경호	『星湖德說』의 '字書' 인용에 대하여	민족문화, No. 61	한국고전번역원
9	이기호	동양사상의 전통 '악론樂論'에 관한 연구 - 정약용의 『악서고존樂書孤存』을 중심으로-	哲學研究 Vol.164	대한철학회
10	이동희	반계 유형원의 부안 우반동 이주와 『반계수록』 편찬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11	이승재	체제공 경제 정책의 성격과 방향 소고 - 『번암집』 소재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 No.44	한국실학학회
12	천병돈	초간본 『이참봉집』에 나타난 이광려 학술사상과 실학정신(2)	陽明學 Vol.- No.65	한국양명학회
13	최식	『雜同散異』의 異本과 特徵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14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國朝典故雜錄』 분석 - 『잡동산이』의 성격과 그 항목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 No.43	한국실학학회

#### 4) 정치·경제, 5편(박사 1편, 일반논문 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화	18세기 近畿 南人系 학자의 정치사상 연구 - 君臣關係論을 중심으로 -	박사	성균관대학교
2	김태영	다산 정약용의 刑政思想에 나타난 '實學'	역사와 경계 Vol.122	역사와경계 Vol.122 No.-
3	이승재	체제공 경제 정책의 성격과 방향 소고 - 『번암집』 소재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 No.44	한국실학학회
4	전성건	礪溪 柳馨遠의 實理論과 經世學	대동문화연구 No. 12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5	최주희	반계 유형원의 裁荒論	한국실학연구 Vol.- No.44	한국실학학회

#### 5) 윤리·교육, 6편(박사논문 2편, 일반논문 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대식	다산 정약용 성기호설(性嗜好說)의 교육학적 해석	박사	춘천

				강원대학교
2	이무영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공직윤리와 현대 공직윤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	광주대학교
3	박창식	정약용 민권익의식의 시민윤리에의 적용	도덕윤리과교육. NO. 76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4	신항수	한국 실학과 미래 세대 교육	역사와 교육 Vol.35	역사와 교육학회
5	아규마 코토	동서양의 자연관, 그리고 기학과 동학의 생태적 윤리 - 이성과 덕성의 조화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6	정종모	정산 이병휴의 공철정(公七情) 연구 - 성리학적 연원과 윤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	양명학 No. 66	한국양명학회

### 6) 문학·서학, 4편(석사 1편, 일반논문 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배한옥	성호우파 문인들의 서학 비판 저술과 반서학적 인식의 계승 확산에 대한 연구	석사	인천가톨릭대학교
2	명평자	금대(錦帶) 이가환(李家煥) 시의 창작 배경	한국사상과 문화. No.105	한국사상문화학회
3	조치성	다산 정약용 시문에 나타난 소나무의 형상과 의미	아시아문화연구 NO. 58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4	송웅섭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학자의 기독교 이해와 그 한계: 안정복의 『천학문답』을 중심으로	총신대 논총. No. 42	총신대학교

### 7) 비교, 3편(일반논문 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단윤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	동양고전연구. No. 88	동양고전학회
2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李瀾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No.95	민족어문학회
3	최정연	하빈 신후담의 자득과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 - 사단칠정론과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비교 논문으로 단윤진은 왕부지와 정약용을 『중용』의 주석을 을 중심으로 비교하였고, 변은미는 성호 이익과 순암 안정복을 『맹자』의 해석 논의를 고찰하였으며, 최정연은 하빈 신후담과 성호 이익을 비교하여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을 논하고 있다.

## 8) 기타, 12편(석사 1편, 일반논문 1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구정분	茶山 丁若鏞의 茶文化認識 研究	석사	성균관대학교
2	구지현	邵南이 星湖에게 보낸 서간의 성격과 家藏 書簡의 중요성	한문학 논집. No.60	근역한문학회
3	김우선	18세기 실학적 지리학자들의 학문적 親緣性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	한국고지도연구 Vol.14No.1	한국고지도 연구학회
4	김우준	작품을 통해 고찰한 슬과 음주에 대한 박지원(朴趾源)의 관념	한국중독범죄학회 모 Vol.12 No.1	한국중독범죄학회
5	박혜민	곤여도설(坤輿圖說)의 조선 전래와 그 판본 검토 - 인천에 전해지는 윤동규(尹東奎)의 필사본을 중심으로 -	인천학 연구. No. 37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6	신동원	조선 후기 전염병에 대한 정약용의 대응 방식	다산학 No. 40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7	아규마 코토	동서양의 자연관, 그리고 기학과 동학의 생태적 윤리 - 이성과 덕성의 조화 -	한국실학연구 Vol.-No.43	한국실학학회
8	이정한 최진환 유완석	거중기의 설계와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Vol.46, No.10	대한기계학회
9	임명남	楚亭 朴齊家の 虚心養性的 繪畫觀	서예학연구Vol.41	한국서예학회
10	정일균	조선후기 근기남인 사족의 '가(家)' 이념에 대한 일고찰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와 역사 No.133	한국사회사학회
11	추동균	이준익 감독의 흑백영화 <자산어보>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Vol.16 No.4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12	한중수	조선후기 실학자 홍중삼의 무과(武科)인식과 무과개혁안 연구	중앙사론. No. 5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4. 주요 논문 소개 및 비평

2022년 실학 관련 논문은 총 55편이다. 그 중 3편의 논문을 선정해서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1) 박병만, 「정약용(丁若鏞)의 행사중심적(行事中心的) 수양론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다산이 성리학의 수양론을 딛고 새롭게 수양론 체계를 수립하게 된 문제

의식을 살펴보고, 그 수양론 체계와 더불어 여기에서 다산이 가장 역점을 둔 특징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산 수양론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마음의 본체를 바로 세우고 덕(德)을 성대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온전한 경세(經世)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성리학적 인식이 하나다. 또 하나는, 일상의 현실을 떠나 정좌(靜坐)에 몰두하며 이기·심성(理氣·心性)에 대한 탐구와 논쟁에 골몰한 채 경세(經世)를 도외시하던 당시 성리학자들의 학문 풍조였다. 다산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심·성(心·性)에 대한 이해와 마음의 본체 함양(涵養)에 중점을 둔 수양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心·性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아울러 함양(涵養)이라는 방법론을 극복할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다산은 孔子·孟子的 수양론 전통으로 돌아가 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것이 일상의 행사(行事) 속에서 덕성(德性)을 반성하며 덕(德)을 확충해 나가는 행사(行事) 중심의 수양론 체계다.

초월적 절대자인 천·상제(天·上帝)를 다산은 자신의 수양론 체계에서 수양의 근거로 설정하였다. 상제(上帝)의 실존에 대한 지각(知天)과 이 지각이 내면의 참됨(誠意)으로 이어지며 지천·성의(知天·誠意)가 수양의 근본을 이룬다. 개인적으로 수양은 상제(上帝)의 지성무식(至誠無息)한 덕성(德性)을 체화(體化)하여(肖天) 결국에는 성인(聖人)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상제(上帝)에 대한 신성감(神聖感)과 외경심(畏敬心)이 인륜의 실천으로 이어져 종교성과 윤리성이 융합되는 구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유학(先秦儒學)의 전통을 계승하는 사천(事天)의 소사지학(昭事之學)이라 할 수 있다. 다산은 인간을 신형묘합(神形妙合)의 존재로, 성(性)을 영명무형(靈明無形)한 심(心)이 선(善)을 지향하는 기호(嗜好)로 인식하였다. 도덕성은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고,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주지권(自主之權)과 선악(善惡)을 분별할 수 있는 영명성(靈明性)을 부여받았다고 하며 인간을 도덕 실천의 자율적 존재로 자리매김하였다. 수양의 문제에서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중심으로 천·상제(天·上帝)와 선(善)을 지향하는 성(性) 등의 기제(機制)들이 긴장 관계를 이루며 중요한 구도를 형성한다.



다산의 수양론 체계는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온갖 다양한 마음의 작용을 다산은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으로 이분화하였다. 또한, 악(惡)의 원인을 양심(良心)의 함익(陷溺)으로 이해하여 선(善)과 악(惡), 공(公)과 사(私)가 양심(良心)과—이와 대립하는—인심(人心)에 의해 생겨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심(人心)을 어떻게 제재하고(治心) 도심(道心)을 어떻게 배양할(率性) 것인가가 수양의 관건이 된다. 다산은 성리학적 수양 인식에서 벗어나 수양은 기본적으로 행사(行事)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수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였다. 아울러 덕(德)과 단(端)의 개념도 성(性)이 단초가 되어 행사(行事)를 통해 덕(德)을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內端外德)이라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수양의 방법으로는 신독(愼獨)과 충서(忠恕)가 두 축을 이룬다. 지천(知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신독(愼獨)은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미발·이발(未發·已發)을 관통하며 다산 수양론에서 수양의 전 과정을 대표한다. 충서(忠恕)는 감정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양이다. 충서(忠恕)를 자수(自修)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공자·맹자(孔子·孟子)의 전통을 계승하여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유학적 이념과 이상을 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다산 수양론의 문제의식은 결국 이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는 유학의 본령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산이 새롭게 제시한 수양은 행사(行事)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양과 도덕 실천이 일체화하여 도덕 실천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양을 통한 경세(經世) 주체의 도덕적 소양은 온전한 경세(經世)의 바탕이 되고, 경세(經世)의 실효성이 향상되면 선순환적으로 그 도덕성이 더욱 확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양과 경세(經世)가 서로 질적으로 병진(竝進)하며 유학적 이념과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가장 역점을 둔 수양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2) 최정연, 「하빈 신후담의 자득과 성호 성리설의 비판적 계승 - 사단칠

정론과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 No. 43, 한국실학학회)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 1702~1761)은 투철한 회의(懷疑)와 자득(自得)의 자세로 유교 경전을 기존과 다르게 해석했다고 한다. 특히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의 이기사칠(理氣四七說)을 수용하여 자신의 논리학에 정교하게 다듬어갔는데, 그 성과가 『사칠동이변』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빈은 이 책을 저술한 그해 여름에 당시의 정설(正說)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구설에 올랐고, 사후에도 정론에서 벗어나 리기설과 경전을 자의로 해석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하빈의 해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그가 기존과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글에서는 하빈이 피력한 이질적인 리기사칠설이 성호설을 세밀하게 보완하여 산출된 이론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문 2장에서는 하빈이 『사칠신편』을 입수한 경위를 간략히 제시하고, 그가 『사칠동이변』에서 성호에게 제기한 세 가지 이전을 소개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그가 성호설과 해석을 달리한 쟁점 셋을 차례로 점검했다. 3장에서는 사단과 칠정의 성을 별개로 구분한 하빈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밝혔다. 4장에서는 앞 장에서 밝힌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그가 인간성과 동물성을 구분한 논리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사단과 칠정이 서로 다른 성의 발현이라는 하빈의 주장을 기초로 그의 공칠정설을 검토했다.

성호가 자득과 회의의 정신을 중시하면서도 주자설과 퇴계설의 보전이라는 학파적 과제에 주안점을 두어 해석에 신중히 한계선을 그었다면, 하빈은 자득과 회의를 동력으로 삼아 자유로운 경전 해석과 학술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그 선을 넘어서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러한 학문 태도는 정산(貞山) 이병휴(李秉休, 1710~1776)의 지지를 받았고 정산을 추종하던 문인들에게도 이어졌다. 이들 사이에 서학의 적극적 수용과 과감한 경전 해석이 나타나며 성리학의 지식체계를 뒤흔들게 된 것도, 성호조차 우려할만한 학술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짐작된다

3) 김인철, 「성호 이익의 괘변론(卦變論) -그 내원(來源)과 후학(後學)의 변용(變容)을 곁하여-」(『태동고전연구』 No 48.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이 논문은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괘변론이 함유하고 있는 특징과 그 역학사적 의의를 탐색한 것이다. 이익은 자신의 괘변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정이(程頤)와 주희(朱熹)의 견해를 주된 원천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이익은 「설괘전(說卦傳)」에 의거한 3획괘 차원에서의 부모육자괘(父母六子卦)의 논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이의 괘변론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6획괘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를 64괘 전체로 확대하여 64괘를 여덟 가지 부류로 유형화함으로써 주희의 「괘변도(卦變圖)」에 비견될 만한 도식화를 시도하였다. 비록 비효(比爻) 간의 호환이라는 괘변의 실질적인 방법은 채택하지 않았으나 「괘변도」로 64괘를 범주화한 주희의 견해를 이익은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익의 괘변론은 3획괘 중심의 논의였던 정이의 괘변론을 이론 전개의 중추로 삼으면서도 그것을 6획괘에도 전환시키고 64괘 전체로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주희의 괘변론까지 통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익의 괘변론이 갖는 역학사적 의의이기도 한 그러한 통합적인 면모는 신후담(愼後聃)·이병휴(李秉休)와 같은 후학들에 의해 계승·변모되어진다. 신후담은 이미 이른 시기에 정이의 괘변론을 6획괘 차원으로 변환시켜 이해하는 계기를 지니고 있었던 까닭에, 일부 상(象) 위주의 다른 해석을 개선하기는 하였지만, 성호의 견해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과 동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비해 이병휴는 정이 괘변론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인 순수성을 견지하면서 표지(標識)라든가 왕래교환의 상[往來交換之象]을 강조함으로써 괘변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회의(懷疑)와 자득(自得)을 중시하였던 이익의 학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것 역시 괘변론 분야에서 성취한 긍정적인 면모로 간주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22년 1년간 한국에서 학술등재지에 발표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3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분석하고 소개하였다. 2022년 1년 동안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은 총 55편이다. 2022년도 많은 논문이 다산 정약용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뒤를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과 성호학파가 잇고 있다. 나머지 실학자들에 관한 연구는 1~2편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각각의 논문에서 인물들은 서로 비교되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별 분류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또한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됨이 없이 경학, 문헌학, 철학, 문학, 윤리, 교육학, 정치, 경제학 비교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첫째, 인물별로는 모두 14명의 학자와 성호학파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다산 정약용에 관한 논문이 14편(일반논문 11편, 학위논문, 박사3편 석사 1편)으로 가장 많고, 성호 이익 6편(일반 논문 5편, 박사논문 1편), 반계 유형원 6편(일반 논문 6편), 순암 안정복 6편, 성호학파에 대한 논문 6편(일반논문 3편, 학위논문 3편) 등이 있다. 그 외에는 모두 일반논문으로 정산 이병휴 4편(일반논문 3편, 박사논문 1편), 하빈 신후담 2편, 소남 윤동규 2편이며 그리고 각각 1편씩으로 변암 채제공, 월암 이광려, 연암 박지원, 금대 이가환, 초정 박제가, 구당 유길준, 홍준삼 등의 논문이 있다. 2021년에는 다산 정약용에 관한 논문이 51편(일반논문 46편, 학위논문 5편)으로 가장 많았다, 성호 이익은 8편(일반 논문 7편, 학위논문 1편), 성호학파에 대한 논문은 5편(일반논문 4편, 학위논문 1편), 반계 유형원은 3편(일반 논문 1편, 학위논문 2편), 나머지는 모두 일반 학술지 논문으로 담헌 홍대용은 일반논문 6편, 순암 안정복 4편, 성제 허전 2편, 소남 윤동규 2편, 영재 유득공 2편, 혜강 최한기 2편, 덕촌 양득중 1편이 있었

다. 2020년 인물에 관한 논문은 유형원 4편, 박세당 4편, 성호학과 21편, 북학과 15편, 정약용 44편, 정조대왕 7편의 일반 논문이 있었다. 2020년, 2021년 대부분의 논문은 다산 정약용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그 뒤를 성호와 성호학파가 잇고 있었다. 각각의 논문에서 인물들은 서로 비교되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둘째, 주제별 분류에서 1)경학은 모두 9편(박사 1편, 일반논문 8편)의 논문이 있으며 2)철학 11편(박사 2편, 일반논문 9편), 3)문헌학은 14편(박사 1편, 일반논문 13편), 4)정치경제는 5편(박사 1편, 일반논문 4편), 5)교육윤리는 6편(박사논문 2편, 일반논문 4편), 6)문학서학은 4편(석사 1편, 일반논문 3편), 7)비교는 일반논문 3편, 8)기타 논문은 12편(석사 1편, 일반논문 11편)의 논문 등으로 분류하였다. 중복되는 논문도 상당수 있으나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어 여러 영역을 점유하고 있다. 2021년은 1)경학이 학위논문 2편(석사1편, 박사 1편)과 일반논문 8편으로 모두 10편의 논문이 있었고, 2)철학은 박사논문 4편과 일반논문 15편으로 총 19편이었다. 3)문헌학은 일반 논문 20편, 4)문학은 박사논문 1편과 일반논문 5편으로 총 6편이었다. 5)예학은 일반 논문 7편, 6)정치·경제는 9편(박사1편, 석사1편, 일반논문 7편)이다. 7)비교 논문은 9편이며, 8)기타 논문은 10편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셋째, 분석 및 비평에서는 한국 실학 관련 논문 중 3개의 논문을 소개하고 정리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021년에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은 총 87편(일반 학술지 논문 77편, 학위 논문 10편(석사2편, 박사 8편))이었으며, 2020년에는 총 103편(학술논문 100편, 학위논문 3편)의 논문이 있었고, 2019년에는 총 122편의 논문(학술논문 115편, 학위논문 7편)이 발표되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논문의 수가 확연히 감소한 것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2022년 이전에는 학술 등재후보지와

학술등재지 모두를 포함하였지만 2022년에는 학술 등재후보지는 제외하고 학술등재지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매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아쉽게도 한국 실학 논문의 양이 매년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학계의 연구에서 한국 실학이 관심의 영역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실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학문 연구를 계속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 바탕으로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과 현대사회와 접목된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깊이 있는 한국 실학의 수준 높은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제9장

## 한국 근대유학 연구

이원준(성균관대학교)

##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근대 유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학문별, 주제별로 종합 및 분석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연구성과의 범위는 19세기 중반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활동한 유학자들의 사상과 해당 시기의 유학 관련 담론을 주제로 한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 발표논문 및 철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상술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는 총 54편의 학술지 논문이다. 연구성 과들을 계과적 측면에서 분류할 경우 성리학 논문이 35편, 성리학 이외의 한국 근대유학 관련 논문이 19편으로, 성리학 분야의 연구가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성리학 연구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리학 연구성과를 노사학과, 간재학과, 화서학과 등 근대시기의 주요 성리학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특기할 점은 한주 이진상(寒洲 李震相, 1818~1886)을 포함한 한주학과 연구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점이다. 성리학 이외의 한국 근대유학의 경우 양명학이나 한국실학 등 특정 사상체계로 분류하기에는 개별 논문의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학문별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성리학 이외의 한국 근대유학의 경우 특정 인물의 삶과 사상을 중심으로 근대유학을 조명한 경우와 특정 인물을 경유하지 않고 근대시기 유학사상의 변천을 다룬 경우로 나누어 각각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상술한 연구성과는 한국의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학 관련 담론”이라는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 또한 가능한데, 총 다섯가지의 분류틀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전통유학의 심화”의 측면에서 한국 근대유학 연구를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한국유학 전통에서 이어지는 유학사상의 전개 및 심화를 의미한다. 그 다음 분류틀은 “전통유학의 변동”으로, 시대 속에서 전통 유학에 대한 한계를 목도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으로도 근대유학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전통적 가치의 상실과 국권피탈에 대응하는 저항 담론의 기초로서 유학사상이 점유하는 지위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밖



에도 “근대학문으로서의 유학” 과 “종교로서의 유학” 이라는 틀로도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각각 근대적 학문방법론과 종교의 일환으로서 유학사상이 분석 또는 이해되는 양상을 의미한다. 물론 상술한 주제들이 연계된 경우 또는 상술한 주제들과 무관한 연구성과 역시 발표된 만큼, 상술한 주제들과 거리가 멀거나 여러 주제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성과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 2. 학과별 분류

### 1) 성리학

근대 한국유학 연구성과 가운데 성리학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38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간재학과를 주제로 한 연구가 13편, 노사학과를 주제로 한 연구가 12편 발표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화서학과를 다룬 연구성과가 4편 발표되었다. 반면, 작년에는 간재학과 및 노사학과를 뒤이어 가장 많은 7편의 연구성과가 발표된 한주학과의 경우 1/3 가량 줄어든 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 (1) 간재학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보승	간재 전우의 수양론에 관한 소고 - 성사심제에 기반한 경(敬)의 실천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73	한국철학사연구회
2	길태은	근대 이행기 유학자의 현실대응 양상에 관한 연구 - 간재 전우의 위정적사(衛正斥邪)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11	동양철학연구회
3	박학래	良齋 田愚의 유학사적 위상과 그 영향	을곡학연구 50	(사)을곡학회
4	신요한	重菴 金平默 門人과 良齋 田愚의 심설논쟁 양상	漢文古典研究 45	한국한문고전학회
5	이향준	지친 성리학적 사유의 기율 - 전우(田愚)와 외필논쟁(猥筆論爭)-	범한철학 106	범한철학회
6	정경훈	良齋 田愚의 『檢本』에 대한 일고	동방한문학 90	동방한문학회
7	정도원	간재 전우의 心說과 理氣論 -사상사적 배경과 心氣 이해를 중심으로-	우계학보 43	(재)우계문화재단
8	김근호	후창 김택술(金澤述)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9	김낙진	전우의 문인 홍사철의 심설 -곽종석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2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이천승	금재 최병심을 통해 본 간재문집 간행의 갈등양상	한국철학논집 75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정경훈	良齋 田愚의 저서 간행 상황과 문제점	동방한문학 91	동방한문학회
12	정도원	『白山旨訣』과 綱齋 金永燮의 간재학 계승	동방한문학 91	동방한문학회
13	진성수	裕齋 宋基晁의 義理思想- 「妄言」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93	동방한문학회

간재학과를 주제로 한 연구 중 절반 이상인 7편의 논문이 학과의 종장인 간재 본인의 사상을 다루었으며, 여기서도 절반이 넘는 4편의 논문(신요한, 이향준, 정경훈, 정도원)이 간재가 참여한 구한말 성리학 논변인 ‘심설논변(心說論辨)’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간재의 수양론과 현실대응을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나아가 그가 당대 유학계에서 점유하는 지위를 살펴본 논문도 발표되었다. 간재 후학들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의 경우 문집 간행을 매개로 간재 사상을 계승하고자 했던 김택술(金澤述, 1884~1954)을 주제로 한 논문이 2편(김근호, 정경훈) 있으며, 그 밖에는 중복되는 인원 없이 간재 후학들의 간재 사상 계승 양상을 살펴보았다.

## (2) 노사학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다진	기정진 경학(經學)의 특징적 양상에 관한 검토 -경전에 대한 인식과 공부를 중심으로-	동방학 47	동양고전연구소
2	배제성	인물성등이논쟁을 통해 본 노사(蘆沙)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의 쟁점과 함의	동양철학 57	한국동양철학회
3	박학래	기정진 이기설에 대한 노사학과 문인들의 계승 의식에 관한 검토 - 답문류편(答問類編) 「논도체(論道體)」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61	유학연구소
4	김성희	老柏軒 鄭載奎의 독서법 유형과 그 지향	南冥學研究 73	경남문화연구원
5	서영이	을계(栗溪) 정기(鄭琦)의 체용불이(體用不二)의 사유	유학연구 59	유학연구소
6	양순자	명호 권운환(明湖 權雲煥)의 성리학적 사유 - 「납량사(納涼私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7	(사)율곡학회
7	이향준	기우승(奇宇承)의 「외필문목(猥筆問目)」 비판 - 「박외필문목변(駁猥筆問目辨)」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7	(사)율곡학회
8	이향준	노사(蘆沙)와 화서(華西)의 만남 -박해량(朴海量)의 「해상일기(海上日記)」를 중심으로-	한국 철 학 논 집 72	한국철학사연구회

9	이형성	순창지역의 蘆沙學派 門人 조사와 계승성 一致	동양문화연구 36	동양문화연구원
10	정상엽	석음 박노술의 시대인식과 항일행적	남도문화연구 45	남도문화연구소
11	조우진	難窩 吳繼洙의 성리설과 실천적 의리정신	동양고전연구 86	동양고전학회
12	조우진	남파(南坡) 이희서(李僖錫)의 역학적 사유와 현실 인식	범한철학 107	범한철학회

노사학과 관련 연구성과는 예년과 비슷한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간재학파에 대한 연구 동향과 상반되게, 노사학과를 다룬 연구 가운데 노사 본인의 성리설을 다룬 논문은 박다진, 배제성의 논문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노사학과에 대한 연구 중 특정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학파의 전반적인 계승 양상을 고찰한 박학래의 논문을 제외하면 노사 문인 개인의 노사 학설 계승양상 또는 현실 대응을 다루었으며, 각각의 논문들에서 주제로 다룬 인물이 중복되지 않아 다양한 인물들이 발굴 또는 재론되었다. 이형성의 논문은 표제상으로는 순창지역 노사학과 일반을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노사학 계승 양상에 대해서 논하였다. 최근 19세기 성리학의 전개 양상을 연구하는 데 주력하는 이향준의 연구는 모두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노사 문인의 저작을 학계에 소개하였다.

### (3) 화서학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유경	이항로의 주리론적 성리학 특징 고찰	퇴계학논집 31	영남퇴계학연구원
2	김경화	화서 이항로의 「효열부문씨전」 고찰	유학연구 59	유학연구소
3	배제성	화서 이항로의 선악관과 역사의식 -역사적 주제 형성의 성리학적 기원-	철학 150	한국철학회
4	신요한	重菴 金平默 門人과 良齋 田愚의 심설논쟁 양상	漢古典研究 45	한국한문고전학회
5	이향준	노사(蘆沙)와 화서(華西)의 만남 -박해량(朴海量)의 「해상일기(海上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2	한국철학사학회

화서 및 화서학과를 다룬 연구성과는 총 5편의 논문이 있다. 화서학파의

종장인 이항로 개인의 사상을 주제로 한 연구가 3편, 화서학과와 타 학파의 사상을 비교한 연구가 2편 발표되었다. 화서학파의 사상을 타 학파와 비교한 2편의 논문들은 모두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화서학파 문인들의 자료를 소개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각 학파의 입장을 살펴본 것들이다.

#### (4) 한주학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낙진	이진상 심즉리설의 함의와 목적	동방학 47	동양고전연구소
2	김낙진	河謙鎭 心無對說의 의미	南冥學研究 76	경남문화연구원
3	김종석	한말 영남지역 심설논쟁 관련 기초자료 검토 - 1902년 도산서원 삼봉서당 간의 통문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집 88	한국학연구원

예년에 비해 한주학파를 주제로 발표된 연구성과가 절반 이하로 감소된 3편이 발표되었다. 이 중 김낙진은 한주 본인을 주제로 한 연구와 하겸진(河謙鎭, 1870~1946)을 주제로 한 연구를 각각 1편씩 발표하였는데, 두 논문에서는 한주 계열의 심(心) 중심의 사유가 조선 후기 위정척사 및 저항정신의 원류로 작용했다고 평가하였다. 이 밖에도 한주의 문집을 둘러싼 안동의 유림과 한주학파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논쟁 과정을 다룬 연구 역시 1편 발표되었다.

#### (5)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오영	김대진(金岱鎭)의 학통(學統)과 이학(理學)	청계사학 24	청계사학회
2	김경호	한 시골 유학자의 죽음 - 농산 신득구의 철학사상과 삶의 지향 -	유학연구 58	유학연구소
3	유지웅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 천설(天說)의 학계 평가와 실천적 해석	동서철학연구 106	한국동서철학회
4	이상익	조선 말기 心說論爭의 성격과 의의	퇴계학보 151	퇴계학연구원

상술한 학과 분류에 속하지 않은 성리학 연구로는 4편의 학술논문이 있

다. 권오영의 논문은 김대진(金岱鎭, 1800~1871)의 학통이 영남 퇴계학파의 적통인 김성일(金誠一, 1538~1593) - 이현일(李玄逸, 1627~1704) - 이상정(李象靖, 1711~1781) 계열임을 논증하였고, 김경호와 유지웅의 논문은 기호학맥에 속하는 유학자이지만 앞서 살펴본 학파로는 분류되지 않는 인물인 신득구(申得求, 1850~1900)의 사상을 다루었다. 이상익의 논문은 근대시기에 전개된 성리학 논쟁인 ‘심설논쟁(心說論爭)’의 성격을 분석하고 해당 논쟁이 당대 사회에 가졌던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 2) 성리학 바깥의 한국 근대유학 ① : 인물을 경유한 경우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형	박은식과 정인보의 자아와 주체관 연구 - 진아(眞我)론과 실심(實心)론의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48	(사)울곡학회
2	정성희	20세기 초 유교 종교화의 논리와 유교사적 의의 - 박은식(朴殷植)과 장지연(張志淵)의 경우 -	동양철학연구 111	동양철학연구회
3	이영숙	小訥 盧相稷의 현실 대응 양상에 대한 考察	동양한문학연구 61	동양한문학회
4	이준규	소설 노상직의 서당교육과 서당교육자료 -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 소설문고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62	동양한문학회
5	김영건	해창(海窓) 송기식(宋基植)의 사상과 교육관 - 해창집과 유교유신론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86	동양고전학회
6	이현정	송기식 『유교유신론』의 집필 계기와 ‘유교청년’ 기획	한국사상사학 70	한국사상사학회
7	김미영	장지연 유학사상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연속과 단절	민족문화연구 96	민족문화연구원
8	김운경	1930년대 조선학 운동가들의 ‘실’담론과 ‘실학’개념의 형성   - 정인보의 ‘조선학’과 ‘실사구시의학’을 중심으로 -	양명학 67	한국양명학회
9	김운경	설태희의 근대 유학연구 비판(II)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 유학 연구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4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이왕우	월남 이상재의 유교적 思维의 전환 재조명	동양고전연구 89	동양고전학회
11	하운서	남궁역(南宮穉)의 가족치유(家族治癒) 연구 -家庭教育의 맹아적(萌芽的) 의의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30	영남퇴계학연구원

한국 근대유학 연구 중 성리학 분야를 제외한 19편의 논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편의 논문이 특정 인물의 사유에서 확인되는 근대 유학의 각종 면모를 확인하였다. 인물별로는 박은식(朴殷植, 1859~1925) 2편(김우형, 정성

회), 노상직(盧相稷, 1855~1931) 2편(이영숙, 이준규), 송기식(宋基植, 1878~1949) 2편(김영건, 이현정), 장지연(張志淵, 1864~1921) 2편(정성희, 김미영), 정인보(鄭寅普, 1892~?) 2편(김우형, 김윤경)이 있다. 이 중 박은식을 주제로 한 논문의 경우 박은식을 단독으로 다루지 않고 동시기 사상가와 함께 다룬 점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도 설태희, 이상재, 남궁억을 주제로 한 한국 근대유학 연구가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상술한 논문들은 근대라는 격동의 시기에 해당 인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유학사상을 다루는가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 중 유학전통의 수호를 다룬 연구는 근기 남인계 실학 전통을 이은 노상직을 주제로 한 두 편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전통적 유학사상에 대한 변혁 또는 탈피를 다루었다.

### 3) 성리학 바깥의 한국 근대유학② : 인물을 경유하지 않은 경우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 호 김용재	19~20세기 초, 조선 유학사상계의 表裏 - '道統'과 '實心'의 관점에서 -	양명학 64	한국양명학회
2	엄진성	근대 선비 지식인과 종교	철학논총 109	새한철학회
3	이행훈	일제강점기 종교 담론의 유형과 전개	개념과 소통 30	한림과학원
4	서육수	전환시대의 평민유교 II - 박경리 『토지』 서회와 길상의 갈등과 화해의 메카니즘 -	한국민족문화 82	한국민족문화연구소
5	박태욱	'위정척사(衛正斥邪)'와 '개화(開化)'사상에 나타난 유교지식인의 공(公)·사(私) 관념	인문과 예술 13	인문예술학회
6	문경득	'조선유학'과 '조선유교' 표현의 개념사	역사연구 43	역사학연구소
7	장순순	일제강점기 실학자 저작의 출간과 조선학운동	역사연구 43	역사학연구소
8	김우형	일제강점기 한국철학 연구의 양상 - 연구 주체의 성격과 조선유학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65	중앙철학연구소

성리학 이외의 한국 근대유학을 다룬 논문 가운데 8편의 논문은 특정 인물의 사유를 경유하지 않고 당대의 유학사상의 전개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 3. 주제별 분류

본고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술한 연구성과는 한국의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①전통유학의 심화, ②전통유학의 변동, ③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 ④근대학문으로서의 유학, ⑤종교로서의 유학이라는 다섯 가지 분류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근대 한국 유학의 주류 사상이 성리학이었던 만큼 “전통유학의 심화”와 “전통유학의 변동”은 사실상 “성리학의 심화”와 “성리학의 변동”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까닭에 앞서 살펴본 성리학 관련 논문의 절대다수는 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 33편의 성리학 논문을 ①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논문의 경우 ②와 관련된 논문이 6편, ③, ④, ⑤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각각 4편씩 있다. 상술한 기준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3편의 논문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 1) 전통유학의 심화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보승	간재 전우의 수양론에 관한 소고 - 성사심제에 기반한 경(敬)의 실천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73	한국철학사연구회
2	길태은	근대 이행기 유학자의 현실대응 양상에 관한 연구 - 간재 전우의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11	동양철학연구회
3	박학래	良齋 田愚의 유학사적 위상과 그 영향	을곡학연구 50	(사)을곡학회
4	신요한	重菴 金平默 門人과 良齋 田愚의 심설논쟁 양상	漢文古典研究 45	한국한문고전학회
5	이향준	지친 성리학적 사유의 기율 - 전우(田愚)와 외필논쟁(猿筆論爭) -	범한철학 106	범한철학회
6	정경훈	良齋 田愚의 『檢本』에 대한 일고	동방한문학 90	동방한문학회
7	정도원	간재 전우의 心說과 理氣論 - 사상사적 배경과 心氣 이해를 중심으로 -	우계학보 43	(재) 우계문화재단
8	김근호	후창 김택술(金澤述)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9	김낙진	전우의 문인 홍사철의 심설 - 광중석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72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이천승	금재 최병심을 통해 본 간재문집 간행의 갈등양상	한국철학논집 75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정경훈	良齋 田愚의 저서 간행 상황과 문제점	동방한문학 91	동방한문학회
12	정도원	『曰山旨訣』과 綱齋 金永燮의 간재학 계승	동방한문학 91	동방한문학회

13	박다진	기정진 경학(經學)의 특징적 양상에 관한 검토 - 경전에 대한 인식과 공부를 중심으로 -	동방학 47	동양고전연구소
14	배제성	인물성동이논쟁을 통해 본 노사(蘆沙)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의 쟁점과 함의	동양철학 57	한국동양철학회
15	박학래	기정진 이기설에 대한 노사학과 문인들의 계승 의식에 관한 검토 - 답문류편(答問類編) 「논도체(論道體)」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61	유학연구소
16	김성희	老柏軒 鄭載圭의 독서법 유형과 그 지향	南冥學研究 73	경남문화연구원
17	서영이	을계(栗溪) 정기(鄭琦)의 체용불이(體用不二)의 사유	유학연구 59	유학연구소
18	양순자	명호 권운환(明湖 權雲煥)의 성리학적 사유 - 「남량사의(納涼私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울곡학연구 47	(사)울곡학회
19	이향준	기우승(奇宇承)의 「외필문목(猥筆問目)」 비판 - 「박외필문목번(駁猥筆問目辨)」을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47	(사)울곡학회
20	이향준	노사(蘆沙)와 화서(華西)의 만남 - 박해량(朴海量)의 「해상일기(海上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2	한국철학사연구회
21	이형성	순창지역의 蘆沙學派 門人 조사와 계승성 - 攷	동양문화연구 36	동양문화연구원
22	조우진	難窩 吳繼洙의 성리설과 실천적 의리정신	동양고전연구 86	동양고전학회
23	조우진	남파(南坡) 이희석(李僖錫)의 역학적 사유와 현실 인식	범한철학 107	범한철학회
24	안우경	이항로의 주리론적 성리학 특징 고찰	퇴계학논집 31	영남퇴계학연구원
25	김경화	화서 이항로의 「효열부문씨전」 고찰	유학연구 59	유학연구소
26	배제성	화서 이항로의 선악관과 역사의식 -역사적 주제 형성의 성리학적 기획-	철학 150	한국철학회
27	김낙진	이진상 심즉리설의 함의와 목적	동방학 47	동양고전연구소
28	김낙진	河謙鑰 心無對說의 의미	南冥學研究 76	경남문화연구원
29	김종서	한말 영남지역 심설논쟁 관련 기초자료 검토 - 1902년 도산서원 삼봉서당 간의 통문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집 88	한국학연구원
30	권오영	김대진(金岱鎭)의 학통(學統)과 이학(理學)	청계사학 24	청계사학회
31	김경호	한 시골 유학자의 죽음 - 농산 신득구의 철학사상과 삶의 지향-	유학연구 58	유학연구소
32	유지웅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 천설(天說)의 학계 평가와 실천적 해석	동서철학연구 106	한국동서철학회
33	이상익	조선 말기 心說論爭의 성격과 의의	퇴계학보 151	퇴계학연구원

성리학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 33편은 전근대 학문 전통에 기반한 당대 지식인들의 유학사상을 주로 다루었다. 상술한 연구성과 중 적지 않은 수의 연구에서 근대를 조우한 성리학자들의 현실 인식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현실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양상보다는 해당 학자의 사유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 2) 전통유학의 변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형	박은식과 정인보의 자아와 주체관 연구 - 진아(眞我)론과 실심(實心)론의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을곡학연구 48	(사)을곡학회
2	김영건	해창(海窓) 송기식(宋基植)의 사상과 교육관 - 해창집과 유교유신론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86	동양고전학회
3	이현정	송기식 『유교유신론』의 집필 계기와 '유교청년' 기획	한국사상사학 70	한국사상사학회
4	김미영	장지연 유학사상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연속과 단절	민족문화연구 96	민족문화연구원
5	이왕무	월남 이상재의 유교적 思维的 전환 재조명	동양고전연구 89	동양고전학회
6	하운서	남궁역(南宮億)의 가족치유(家族治癒) 연구 - 家庭教育의 맹아적(萌芽的) 의의를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30	영남퇴계학연구원

성리학 바깥의 근대 유학자들을 다룬 논문 11편 가운데 6편은 “전통유학의 변동”을 다룬 논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박은식과 정인보 등 양명학을 수용하였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다룬 김우형의 논문은 진아론과 실심론 등의 관념을 양명학의 맥락에 국한시키지 않고 근현대 한국철학의 형성의 측면에서 조명한 관계로 “전통유학의 심화”라기보다는 “전통유학의 변동”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유학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이상재를 주제로 한 이왕무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학사상이 근대라는 공간을 경유하여 전통사상과 대비되는 “근대 한국철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는가를 살펴보았다.

## 3)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진성수	裕齋 宋基冕의 義理想- 「妄言」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93	동방한문학회
2	정상엽	석음 박노술의 시대인식과 항일행적	남도문화연구 45	남도문화연구소
3	이영숙	小訥 盧相稷의 현실 대응 양상에 대한 考察	동양한문학연구 61	동양한문학회
4	이준규	소놀 노상직의 서당교육과 서당교육자료 -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 소놀문고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62	동양한문학회

전통적 유학사상이 근현대 공간에서 점유했던 지위 중 하나인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 을 고찰한 논문은 총 4편이다. 이 중 진성수의 논문은 간재학파인 송기면(宋基冕, 1882~1956)의 성리학적 의리정신이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의 현실 속에서 저항 담론의 기저로 작용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정상엽의 논문은 노사학파인 박노술(朴魯述, 1851~1917)의 항일행적을 그의 사상과 결부하여 논의하였다. 노상직을 주제로 한 두 편의 논문은 전통 유학사상을 유지하고자한 그의 방식이 일종의 저항적 의식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 4) 근대 학문으로서의 유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형	일제강점기 한국철학 연구의 양상 - 연구 주체의 성격과 조선유학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65	중앙철학연구소
2	김윤경	1930년대 조선학 운동가들의 '실'담론과 '실학' 개념의 형성 I - 정인보의 '조선학'과 '실사구시의학'을 중심으로 -	양명학 67	한국양명학회
3	김윤경	설태희의 근대 유학연구 비판(II) -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 유학 연구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4	한국철학사학회
4	장순순	일제강점기 실학자 저작의 출간과 조선학운동	역사연구 43	역사학연구소

유학사상을 근대적인 학문방법론으로 분석하는 양상과 관련된 논문은 총 4편으로, 대체적으로 한국의 전근대 유학사상이 근대 학자들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 및 연구되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이 중 김윤경의 논문 1편과 장순순의 논문은 조선후기 살용적 학문사조로 평가받는 ‘실학’의 탄생 과정을 분석하였고, 김우형의 논문은 일제강점기 학계에서 조선유학에 대해 지니는 입장을 전통적 방법론에 입각한 ‘전통 유학적 주체’와 전통을 부정하는 ‘근대 주체’, 조선유학을 근대 한국철학의 일환으로 전환하고자 한 ‘현대 주체’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설태희를 주제로 한 김윤경의 논문은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 연구의 비판 양상을 통해 근대 한국학자의 조선유학 이해방식의 일면을 밝혔다.

## 5) 종교로서의 유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문경득	‘조선유학’과 ‘조선유교’ 표현의 개념사	역사연구 43	역사학연구소
2	엄진성	근대 선비 지식인과 종교	철학논총 109	새한철학회
3	이행훈	일제강점기 종교 담론의 유형과 전개	개념과 소통 30	한림과학원
4	정성희	20세기 초 유교 종교화의 논리와 유교사적 의의 - 박은식(朴殷植)과 장지연(張志淵)의 경우 -	동양철학연구 111	동양철학연구회

“종교로서의 유학”을 주제로 한 연구는 총 4편으로,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자기 삶을 지탱하기 위한 ‘종교’를 필요로 했던 당대의 지식인들이 유학사상을 이용하는 각종 양태를 살펴본 엄진성의 논문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근대 지식인들에 의해 전통 유학이 서양적인 종교(religion)와 유사한 형태로서의 유교(儒敎)로 이해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 6)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 호 김용재	19~20세기 초, 조선 유학사상계의 表裏 - ‘道統’과 ‘實心’의 관점에서 -	양명학 64	한국양명학회
2	박태욱	‘위정척사(衛正斥邪)’와 ‘개화(開化)’사상에 나타난 유교지식인의 공(公)·사(私) 관념	인문과 예술 13	인문예술학회
3	서육수	전환시대의 평민유교 II - 박경리 『토지』 서회와 길상의 갈등과 화해의 메카니즘 -	한국민족문화 82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상술한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연구성과는 총 3편이다. 김호/김용재의 논문은 근대 유학사상계의 움직임을 ‘주자학적 道統’과 ‘주체적 實心’을 강조했던 유자들의 행보로 나누어 전자에 치중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시대에 뒤쳐졌음에도 현실을 외면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박태욱의 논문은 ‘위정척사’와 ‘개화’ 모두 전통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한 유사점과 근대 문명에 대한 대립된 태도에서 오는 차이점을 동시에 드러내어 오늘날 공사(公私) 관념의 연원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서육수의 논문은 역사소설 『토지』에서 도리와 배려의 유교적 이념과 영성과 교감의 전통 종교 이념을 융합한 평민 중심의 민족 이념, 즉 ‘평민 유교’의 생성이 확

인된다고 보았다.

####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근대는 서양의 학문과 문물이 범람하듯 유입되던 시기였으나, 동시에 성리학의 이론적 심화 작업 또한 병행되던 시기였다. 국운이 경각에 달한 격동의 시기에 오히려 전근대 학문이 심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연구성과 가운데 상술한 질문에 대해 대답한 논문이 두 편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김호와 김용재의 논문 「19~20세기 초, 조선 유학사상계의 表裏 - ‘道統’ 과 ‘實心’ 의 관점에서 -」는 “19세기 조선의 유자들 중 성리 논쟁에 관한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즐비했다고는 하나, 이들 가운데 변하는 세상을 감지하여 나라를 지키려는 날카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던 유자는 누구였는지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215쪽)고 하여 당대의 성리 논쟁의 사회적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지를 전개한다. 이에 저자들은 성리학자인 전우(田愚, 1841~1922)가 성리학적 ‘도통’ 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의병활동이나 파리장서운동 등의 독립 활동에 비판적이었다면, 양명학에 기반한 주체적 ‘실심’ 을 사상적 기저로 한 까닭에 강화학파에 속하는 유학자 이건승(李建昇, 1858~1924)이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에 투신할 수 있었다고 본다.

저자들이 당대 성리학계를 박하게 평가하는 원인은, 이들이 양명학의 ‘친민(親民)’ 이 계급과 상관없이 인간의 양지(良知)를 긍정하였던 까닭에 주자학적 ‘신민(新民)’ 에 비해 근대에 조우할 수 있는 추동력이 존재하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논문 229~232쪽 참조) 박은식과 정인보 등 근대 유학자들이 양명학에 주목한 점에서 저자의 설명은 일견 설득력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도통 전승을 목적으로 전우가 취했던 일부의 행동만으로 당대 성리학이 사상계나 사회에 점유하였던 지위를 예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에서, 후술할 이상익의 논문이 주목된다.

이상익의 논문인 「조선 말기 心說論爭의 성격과 의의」는 심설논쟁의 전개

과정을 “ ‘리의 주재자적 성격을 강화하는 이론’ 을 구상한 이항로와 기정진, 이진상의 ‘새로운 주리론(主理論)’ 에 대한 전우의 성사심제(性師心第)에 기초한 대응 및 비판” 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주리론’ 이 “타락한 현실에 대한 ‘우환의식의 소산’ 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타락한 현실에 대한 처방으로서 ‘적실성이 없다’ 는 점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156쪽)고 평가하였다. 저자는 새로운 주리론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 ①리선기악(理善氣惡)으로 귀결되어 성리학적 이기론의 기본원칙인 ‘형이상자-형이하자’ 구도를 무너뜨린 까닭에 ‘정합적인 이론체계’ 를 정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마음이 주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마음에 대한 명목적 규정을 바꾸기만 한 것에 불과하며, ③ ‘순선한 리가 현실적 기를 마음대로 부린다’ 는 주장이 인간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상술한 분석에 기초하여, 저자는 심설논쟁에서 등장한 ‘새로운 주리론’ 이 사상사적으로 기여한 바는 적으며, 오히려 격변하는 시대에 유교계를 분열시키고 동어반복적 논쟁만 지속시켜 성리학을 시대에 뒤쳐진 탁상공론으로 여겨지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새로운 주리론’ 을 비판한 전우의 학설에 대해선 “기의 능동적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가치추구의 궁극적 표준으로서의 리를 중시한 성리학의 리주기자론(理主氣資論)” (169쪽)을 계승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우환의식에 앞서 이론적 보편타당성을 상실한 주장을 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한 ‘새로운 주리론’ 보단 논리적 정합성이 확보된 전우의 이론이 근대 시공간에서 성리학의 지위를 살펴보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자의 논문은 앞서 살펴본 논문의 논지에 대한 일종의 반론인 셈이다. 다만, 저자는 새로운 주리론의 의의를 “의병 활동에 적극적이고 신문물과 신학문 수용에 능동적이게 된다” 고 보는 것에 대해 “외세 배척에 기초한 의병활동과 서구학문의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자가당착적 태도” (166쪽 참조)라고 반론하였는데,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한 것을 논리적 정합성의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다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 5. 평가와 전망

2021년에 발표된 한국 근대유학 관련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연구논문의 수량에서도 확인되듯, 한국의 근대라는 시공간에서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던 관념은 성리학이었다는 점이다. 격동하는 시기에 전통을 고수한 인물들보다는 변혁을 꾀한 인물들이 주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변혁을 기도한 인물이 당대 사상계의 다수를 이루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근대 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성리학을 제외하고 사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근대 한국유학을 살펴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 다수였던 성리학자들을 단순히 수구 세력으로 매도하는 작업은 당대의 사상계를 오롯이 평가하기 위해선 지양해야 할 자세일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소 빈약하게 진행된 당대 성리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진일보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에 비해 ‘근대학문으로서의 유학’이나 ‘종교로서의 유학’ 등 근대적 학문방법론 또는 서구 종교의 틀에서 전통 유학이 분석되고 이해되는 양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은 고무적이다. 적지 않은 수의 연구논문들이 근대라는 격동기 속에서 유학사상이 단순히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당대의 최신 분석틀로 논의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환언하면, 성리학이 당대 지식인들에 의해 근대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형태로 자리매김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인 셈이다. 전통 유학이 근대 공간에서 점유한 지위를 살펴보는 작업을 위한 분석틀이 예년에 비해 다양해진 점에서, 향후 ‘근대에 놓인 전통유학’의 성격을 이해하는 방식이 점차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